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변동의 시대와 한국어 문학 II - 구원과 희망의 모색

일시: 2022년 1월 6일(목) 오후 1:00 - 6:00
장소: 실시간 ZOOM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변동의 시대와 한국어문학 II - 구원과 희망의 모색”

▶ 일시 : 2022년 1월 6일(목) 13:00 - 18:0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ID: 913 9829 7811 암호: 1234]

▶ 진행 순서

* 회장: 홍혜원(충남대)

* 사회: 구선정(한신대)

[1:00 - 1:10] 개회 및 회장 인사

[1:10 - 1:35] 박필현(국민대)

“<한말속의 『하얀 도정(道程)』에 나타난 연애서사와 길 찾기”

[1:35 - 2:00] 이대성(두원공과대)

“김승희 시에 나타난 고통과 희열의 언어”

[2:00 - 2:10] 중간 휴식 (10분)

[2:10 - 2:35] 윤인선(한밭대)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과 애도의 글쓰기”

[2:35 - 3:00] 윤지아(안동대)

“조선 후기 강호가사가 그리고 있는 유가적 이상세계와 희망”

[3:00 - 3:10] 중간 휴식 (10분)

[3:10 - 3:35] 조정민(평택대)

“신문 기사 속 '희망'의 개념적 은유”

[3:35 - 4:00] 박정아(경희대)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서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연구”

[4:00 - 4:10] 중간 휴식 (10분)

[4:10 - 5:30] 종합토론

[5:30 - 5:50] 연구윤리교육(편집이사) 및 총회

[5:50 - 6:00] 폐회사

* 좌장: 최형용(이화여대)

[지정토론자]

현대문학: 황지영(충북대) 정끝별(이화여대)

고전문학: 박성혜(서울대), 김승우(이화여대)

어학 : 이한민(이화여대), 정미지(아주대)

梨花語文學會長 홍혜원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관

목 차

“한말숙의 『하얀 도정(道程)』에 나타난 연애서사와 길 찾기 - 1950년대 작품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박필현(국민대학교) 1 토론 : 황지영(충북대학교)	
“김승희 시에 나타난 고통과 회열의 언어” 이대성(두원공과대학교) 17 토론 : 정끝별(이화여자대학교)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과 애도의 글쓰기” 윤인선(한밭대학교) 36 토론 : 박성혜(서울대학교)	
“조선 후기 강호가사가 그리고 있는 유가적 이상세계와 희망 - 趙聖臣의 <皆巖亭歌>를 중심으로” 윤지아(안동대학교) 50 토론 : 김승우(이화여자대학교)	
“신문 기사 속 '희망'의 개념적 은유” 조정민(평택대학교) 68 토론 : 이한민(이화여자대학교)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서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연구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박정아(경희대학교) 84 토론 : 정미지(아주대학교)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 (2021.07.08. 개정) 111	

한말숙의 『하얀 도정(道程)』에 나타난 연애서사와 길 찾기 - 1950년대 작품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박 필 현(국민대학교)

차례

1. 서론
2. ‘나’와 사회, 청년 세대의 정체성 모색과 입사(入社, initiation)
3. 지향점으로서의 예술과 모호한 가치
4. 연애, 자기세계의 대체
5. 결론

1. 서론

한말숙은 1956년 「별빛 속의 계절」, 1957년 「신화의 단애」 두 편을 『현대문학』지에 추천받으며 등단했다. 1956,7년에 등단한 후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단편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보여준 작가이지만, 반세기가 넘는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 다작의 작가라 하기는 어렵다.¹⁾ 한말숙은 때로는 열정적인 활동을, 또 때로는 긴 침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다소 불균형한 활동 양상을 보이는데, 작품 활동의 초기 단계라 할 195,60년대는 활발한 활동으로 특히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첫 작품집 『신화의 단애』와 첫 장편인 『하얀 도정』은 바로 이 시기의 결과물이다. 한말숙은 1950년대 중후반 등단하여 1960년에 15편의 단편을 모아 첫 작품집 『신화의 단애』를 묶어 냈고 같은 해에 첫 장편인 『하얀 도정』을 연재하기 시작했다.²⁾

이름을 들으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점에서 한말숙은 분명 유명 작가이지만 “기존의 작품 연구를 찾다가 난관에 부딪혔다.”³⁾는 토로가 있을 정도로 일면 소외된 작가이기도 하다. 2000년대 여성 문학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기 전까지 한말숙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단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⁴⁾ 치밀한 관찰이나 구성, 뛰어난 묘사력

1) 『하얀 도정』, 『모색시대』, 『아름다운 영가(靈歌)』 등 5편의 장편과 60여 편의 단편이 있으며, 1993년에는 『아름다운 영가』로 노벨 문학상 추천 후보가 되기도 했다.

2) 1960년 4월 『현대문학』지에 연재를 시작한 후, 1964년 휘문출판사에서 첫 출판되었다. 이후 1972년 삼성(三省)출판사의 한국문학전집 중 한 권으로 출간된 것을 비롯해 민중서관, 삼성당 등에서도 재출간되었다.

3) 이덕화, 「응시로씨의 글쓰기-한말숙의 『하얀 도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집, 2008.12, p.234.

4) 단편적 논의로는 아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태용, 「20년의 정신사」, 『현대문학』 1965.4 : 천상병, 「자기소외와 객관적 시선-한말숙론」,

등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다양한 소재이다. 실제로 자신과 무관한 다양한 소재에 치중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을 정도로⁵⁾ 1950년대 초기 작품에서 그려진 삶의 양태는 실로 다채롭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작품들은 이러한 평가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 시기 이후의 작품들은 대개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정체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하얀 도정』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작 지점에 놓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말숙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매우 희소한 편으로, 『하얀 도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로는 이덕화가 있을 뿐이다.⁶⁾ 이덕화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작품 속 여성 인물의 표류와 여성 정체성의 상관성을 읽어낸다. 자신에 대한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은 남성 젠더를 통한 남성 욕망의 자기화로, 다시 자신의 결핍을 채워 줄 새로운 대타자 찾기로 이어지지만 결국 이상적 자아인 대상과의 합일을 이루려는 순간 대상은 미끄러지며, 이는 현실 밖에 있는 작가의 응시에 의한 결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50년대 작품 속 인물들에게서는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하얀 도정』의 인물은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만 결국 여성의 관습적 수행성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혼란을 보여준다고 논한다. 1950년대 작품은 이처럼 흔히 분절적으로 이해되는데⁷⁾, 과연 1950년대 작품 속 인물들과 『하얀 도정』의 인물의 거리는 그렇게 먼 것일까. 아울러 인물의 길 찾기는 어떤 내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하강 플롯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1950년대 작품들과 『하얀 도정』의 연속성과 차별성 문제는 “자신과 무관한 다양한 소재에 치중”했던 작가가 어느 순간 왜 그런 특성을 내려놓고 ‘자신과 유관’한 소재에 집중하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과도 이어진다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하얀 도정』과 1950년대 작품들과의 상관관계 곧 그 연속성과 차별성을 다시 살피고, 예술과 연애로 표상된 청년 세대의 희망 찾기 과정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한국문학전집13』, 신구문화사, 1967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김우중, 「한말숙의 문학세계」, 『신과의 약속』, 일신서적출판사, 1994 : 최혜실, 「실존주의 문학론」,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등.

한말숙에 대한 논의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유인순(「다시 읽는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이후, 2000년대 이후 여성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등장한 논의들로는 아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덕화(2008), 앞의 글 : 이덕화, 「한말숙의 『아름다운 영가』에 나타난 타자윤리학」, 『새국어교육』 86호, 2010. : 이덕화, 『한말숙 작품에 나타난 타자윤리학』, 소명, 2012 : 유수연, 「한말숙 「신화의 단애」에 나타난 실존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집, 2012. : 방금단, 「전후 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형상화 연구-한말숙의 「신화의 단애」와 서기원의 「암사지도」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9, 2006. : 김원희, 「한말숙 「신화의 단애」 몸 담론과 젠더 정치성」, 『한어문교육』 35집, 2016. 등.

5) 자기와 무관한 다양한 소재에 치중하여 인생이나 인간에 대한 냉혹한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은 천상병(앞의 글)의 논의이다. 작품의 다양한 소재나 객관적 태도 등 한말숙의 특징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문제의 바깥에 남으려는 관찰자의 보상의식이라거나 주제의식의 약화 등 주로 비판적으로 이해되었다.

6) 이덕화, 앞의 글.

7) 이 외에도 한말숙의 작품을 크게 1,2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변신원의 경우, 변화의 기점을 1962년 전후로 잡는다. 1962년은 작가의 결혼이라는 전기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주변부 인물의 불행한 운명을 통한 현실저항적 태도가 사라지고 가정에 안주하는 보수적인 여성, 권력의 모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는 남성이 등장하며 보수적인 작품으로 선회한다고 보았다.(변신원, 「한말숙 소설 연구-결핍의 글쓰기로부터 자족의 세계로」, 『현대문학연구』 1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2.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르자면 『하얀 도정』이야말로 바로 그 분기점에 놓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와 사회, 청년 세대의 정체성 모색과 입사(入社, initiation)

1956,7년에 걸쳐 두 번의 추천이 완료되며 등단한 한말숙은 1960년에 1950년대 작품 15편을 묶어 작품집 『신화의 단애』를 출간했다. 그리고 1964년에는 1960년 연재를 시작했던 장편 『하얀 도정』을 처음 간행했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신화의 단애』와 『하얀 도정』은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친 시간대에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는 전쟁의 시기이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한국 전쟁으로 시작된 1950년대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1960년대는 4.19 혁명과 그에 연이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다. 최동호는 1950년대를 둘로 나누어보는데, 이 중 1950년대 전반은 전쟁 속 생존 자체가 급선무였던 시기로, 후반은 전후 복구 및 민족적 지향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은 시기로 설명한다.⁸⁾ 극도의 혼란이라고 할 전쟁의 소용돌이가 휴전으로 종결된 후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 역시 강화되었다. 전쟁이 지나간 폐허의 자리에서는 사사오입 개헌, 보안법 파동, 1960년 3.15 부정선거 등 파괴된 사회 체제와 질서를 회복하려는 강압적인 시도가 이어진다.

이덕화는 「신화의 단애」나 「별빛 속의 계절」의 여주인공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작품의 현실이 전쟁의 연장선 속에 있기에 이들 인물들은 ‘밥’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문제에 사로잡힌, 찰나의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하얀 도정』은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여성의 혼란을 드러낸다고 본다.⁹⁾ 그러나 「별빛 속의 계절」의 경자, 「신화의 단애」의 진영과 『하얀 도정』의 인옥의 거리는 과연 그렇게 분명한 것일까.

등단작에 한정하지 않고 1950년대 작품 전반을 살펴보면, 『하얀 도정』은 1950년대 작품들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작가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며 여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집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듯하지만, 정작 『하얀 도정』이 보여준 이러한 특성은 1950년대의 작품 활동과의 연속성 속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를 보면 『하얀 도정』은 작가 한말숙이 1950년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문제에 대한 나름의 총 정리본에 가까운 것이다. 『하얀 도정』의 서사는 주인공 인옥과 인옥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술대학 졸업반인 인옥의 가족은 사업을 하는 아버지, 화가인 계모 송여사, 대전에서 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오빠 제준 그리고 아버지의 양모인, 따라서 혈연관계는 없는 할머니로 구성된다. 그 외에 인옥의 친구들 무리로 김석기, 박정호, 김기섭, 나영애 등이 있고, 인옥의 연애 상대로 형모, 두현, 명규, 영환이 있다.

『하얀 도정』은 청년 세대의 삶, 그 중에서도 ‘청년-여성’인 인옥의 연애서사를 주축으로 한다. 그러나 인옥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의 삶은 이들 청년 세대가 삶에 대해 사유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화의 단애』속 단편들과 비교하며 읽다보면 인옥의 가족들은 일종의 기시감을 주는데, 이는 이 인물들이 1950년대 작품들 각각에 흩어져 있던 여러 인물들의 변주에 가깝기 때문이다. 혈연관계 없이 이루어

8) 최동호, 「1950년대의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의」, 김윤식·김우종의,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2, 344면.

9) 이와 같은 이덕화의 논의는 앞서 언급된 변신원과도 유사한 입장이다. 이덕화 역시 초기작과의 차이를 『하얀 도정』에서 드러나는 혼란을 작가의 결혼이라는 전기적 사건과 결부시켜본다. 작품의 연재나 출판이 작가의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변수가 작용했는데, 결혼이라는 사건이 현실적 논리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서술구조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이덕화, 앞의 글 pp.235~236.) 그러나 『하얀 도정』 이전에도 유사한 혼란을 담아낸 작품은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은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진 가족 속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된 인물인 인옥의 할머니는 「노파와 고양이」의 노파와 오롯이 닮아있다. 할머니는 가족들 중에서도 철저히 고립된 인물로 반려동물 외에는 손녀와의 일방적이고 소소한 교류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인옥의 계모인 송여사는 화가로 세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로, 아내나 어머니로서 가족을 살피는 전형적인 주부의 역할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송여사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그림, 개인전, 작품 판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화가로서의 명예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말미에서 벌어진 자살 사건을 보면 어쩌면 송여사에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것이다. 아이가 없어서 외롭겠다는 친구의 말에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면 몰라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응수하던 송여사는 정작 자신이 수개월에 걸쳐 받은 뜨거운 연애편지가 어쩌면 한낱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자 자살을 시도한다. 사업가인 남편과 애정 없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딸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더해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문제인 기혼 여성이라는 점에서 송여사는 「낙조전」의 은옥의 또 다른 버전이다. 할머니나 송여사에 이어 사업가이자 집안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특징이라고 할 인옥의 아버지는 「맞선 보는 날」의 윤사장과 동일인처럼 보인다. 가족들 외에 주인공인 인옥 역시 미술을 전공하는 ‘아프레 걸(après-girl)’이라는 점에서는 「신화의 단애」의 진영, 충실한 애인을 두고도 키스쯤이라고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다가온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회피한다는 점에서는 「낙루부근」의 귀영,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으나 영별(永別)한다는 점에서는 「검은 장미」의 영옥과 두루 겹쳐진다.

등단작이 곧 대표작이기도 하다 보니 한말숙의 초기작은 ‘아프레 걸’을 비롯해 혼돈과 궁핍 속의 청년 세대 형상화로 모아진다고 인식하기 쉽지만 1950년대 한말숙 작품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 극도의 빈곤층부터 상류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1950년대 한말숙은 해방구에서 짧은 자유를 만끽한 ‘아프레 걸’이나 양공주 외에도, 그 나름 발 빠르게 세태를 읽으며 살길을 모색하는 이재에 빠른 현실적 여성 인물들(「세탁소와 여주인」, 「Q호텔」 등), 자신이 꾸린 가정 내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기혼 여성들(「어떤 죽음」, 「검은 장미」, 「낙조전」 등), 실직 상태로 과거와 같은 가부장적 지위를 상실한 중년 남성(「세탁소와 여주인」),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성취를 거둔 사업가(「검은 장미」, 「낙조전」 등) 등을 두루 그려낸 바 있다. 작가 스스로 “문학은 인간의 탐구”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처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인간을 탐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때로 그것은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로, 때로는 사회의 왜곡된 모습에 대한 성찰로 설명되었다.¹⁰⁾ 이러한 논의 역시 타당성을 갖지만 1950년대 일군의 작품들 뒤에 『하얀 도정』을 놓고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층 세대와의 차별성이다. 이미 사회 속에서 그 나름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중장년층 세대의 삶은 경제적 수준이나 지위고하(地位高下)와 무관하게 온통 허위에 가득 차 있다. 이를 테면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특별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외도를 일삼으며, 여성들은 생활을 꾸러가기 위해 애쓰는 와중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애정의 대상을 갈구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죽음에 이른다. 그리고 저 허위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의 뒤를 이어야 할 청년 세대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서 방황한다. 극단적 혼란과 궁핍이라는 현실에 놓인 진영과 경자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나 불안을 토로하지 않지만, 출판사 직원으로 집안의 준가장이자 제법 그럴듯한 애인을 둔 귀영(「낙루부근」)이나 “사법 행정 양과를 수석 패스”한 수재 경웅(「맞선 보는 날」) 등은 히스테리적인 불안에

10) 각각 김혜리와 변신원의 논의이다.

시달린다.

1950년대 초반이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이자 동시에 같은 이유로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삶을 구속할 수 없었던 해방구이기도 했다면,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미국의 원조 하에 경제 재건을 꾀한 1950년대 중반 이후는 전보다 더욱 강압적인 방식으로의 사회 통제와 질서 확립이 시도된 규범의 일대 재정비가 이루어진 시공간이기도 하다. 해방구는 빠르게 폐쇄되고 사회는 사회 속을 살아가는 개인인 ‘나’에게 질서 속으로 편입될 것을 요구한다.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의지나 그로 인한 갈등은 ‘나’의 삶이 내가 취한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요구나 틀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진영이나 경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밥벌이의 처절함이라기보다는 미처 내 삶을 통제하려는 어떤 틀을 접하지 않은 해방구에서의 자유로움이다. 사회화된 기성세대의 삶이 가진 허위성은 청년 세대로 하여금 개인인 ‘나’와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게 한다. 그 속에서 빚어지는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곧 청년 세대의 주된 갈등 요인이라 할 때 진영, 경자 등과 인육의 심리적 거리는 그리 멀지만은 않다. 전자는 후자의 전사(前史)요, 후자는 그 틀을 접한 전자일 뿐 애초에 대단한 의지의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작품들과 『하얀 도정』의 이러한 유사성은,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하얀 도정』이 1950년대 작품 활동과 동일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화의 단애』를 살펴보면 한말숙의 1950년대 작품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인물들의 삶을 통한 사회 속 인간의 삶에 대한 모색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본격적 입사를 앞 둔 청년 세대의 방황과 갈등이다. 그리고 전자는 결국 후자로, 곧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통한 사회 속 인간의 삶에 대한 냉철한 탐구는 결국 청년 세대의 자아 성찰과 입사 문제로 연결된다. 자신과 무관한 소재에 치중하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부족하다는 등의 당대의 비판적 논의는 이러한 지점의 일면만을 파악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하얀 도정』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소재가 아니다. 질서 회복의 사회적 요구, 회복된 질서 안으로의 편입 요구에 직면해 히스테리적 불안을 보이던 청년 세대의 삶에 딱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주어진 입사의 현실적 과정이 간단하든 그렇지 않든 성큼 그 과정 속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저 불안감 속에서 표류하고 있던 청년들의 삶의 내부를 한 겹 들춰보는 것이다.

3. 지향점으로서의 예술과 모호한 가치

『신화의 단애』 속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사회가 정답처럼 요구하는 길을 거부한다. 무턱대고 그 길로 들어섰다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기성세대의 삶이 이미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웅(「맞선 보는 날」)은 행정 사범 양과에 수석 패스를 했지만 관료가 되고 싶지도 법률가가 되고 싶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취직이나 결혼을 원하지도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취업도 결혼도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다. 경웅은 본인이 한 취업 청탁이나 맞선 주선이 결실을 이루려하면 정작 스스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일을 망쳐놓기를 반복한다. 경웅의 이런 이상 행동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 경웅은 그것을 ‘열쇠’에 비유해 말한다.

「글쎄 갑자기 어쨌다는 거야. 졸도라도 했던 말이나?」

「아니에요. 무어라고 할까, 제 심장 속이라고 할까요, 두뇌 속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무슨 열쇠같은 것이 짝걸하고 반대로 틀렸다 말씀이에요.」

「애야, 그만 두어라. 열쇠는 무슨 말라 비틀어질 열쇠야.」

「아니에요. 큰 아버지, 저는 참 그 열쇠같은 것 때문에 여간 번민하고 있지 않아요. 저의 이성이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해 볼 힘이 없거든요.」 (p.230)¹¹⁾

취업이든 결혼이든 이루어질 법하면 알 수 없는 열쇠가 반대로 틀려버린다는 경우에 더해 「낙루부근」의 귀영은 자신을 둘러싼 객관적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귀영은 직장인 출판사도, 밥벌이를 하는 자신만 바라보며 가장처럼 대접하는 가족들도, 헌신적이고 성실한 애인의 청혼도 싫다.

새집 주인 아주머니가 귀영의 곁에 와서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가워 한다. 그들은 아주 친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요놈들 여전해요.」

귀영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참 한 사흘 안 보이었지. 글썄 요년 있지 않우? 요년이 수놈의 눈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어저께 이 수놈은 또 새로 사넣은 거예요. 아주 손해 보았어요.」

한다.

「네? 어찌든…….」

귀영은 놀라며 다시 새장속을 보았다.

요년이라고 손가락질된 파란 잉꼬는 지금 수놈의 목과 가슴에대 주둥이를 비벼대느라고 법석이다.

어저께 수놈을 눈을 빼서 죽인 것을 암놈은 잊고 있는 모양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즐거워 하고 있다.

귀영이도 아주 완전히 즐거워졌다. 마음 속에 아무런 티끌도 없어졌다. 그녀는 잉꼬 때문에 사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p.246)

수놈의 눈을 빼서 죽이고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있는 파란 잉꼬 암컷의 모습은 성실한 연인의 청혼을 무참히 거절한 귀영의 욕망을 선명히 표상한다.

차마 수궁할 수 없는 기성세대의 삶의 모습에, 입사의 과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1950년대 작품에서는 주어진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들 청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하얀 도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술 혹은 학문이다. 『하얀 도정』의 경우, 인옥을 비롯해 그 주변의 친구나 애인 등 인옥과 사적 관계가 있는 동세대는 모두 예술가 혹은 학자 지망생이다.

명규가 김에게 먼저 소개를 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석기군.」

김이 손을 내밀어 영환과 악수하였다.

「다음은 화가 박정호군.」

박도 커다란 손을 내밀어 희고 화사한 손을 싸듯이 악수했다.

「나영애양.」

영애가 쌍극 웃으며 고개를 까닥했다.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던 영환의 시선이 비로소 인옥을 보았다. 순간 그 눈에

11) 본고에서 인용된 1950년대 작품은 모두 한말숙, 『신화의 단애』, 사상계, 1960.

놀라는 빛이 스쳤다가 가만히 그녀를 본다. 역시 그때처럼 조용한 눈이라고 인옥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강렬한 힘이 있어 조용하나 마치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눈이다.

「화가 이인옥양.」

명규가 소개하였다. 인옥은,

「호호.」

하고 웃어 버렸다. 화가라고 한 것이 우스웠다. 영환은 웃음이 불쾌하였는지 눈을 숙였다가 냉랭하게 인사를 한다. 명규가,

「왜? 화가라고 해서 우스우세요?」

그는 눈치가 빠르다.

「그래 두는 거지 무어. 다음은 김기섭군, 문학청년이지.」(pp.86-87.)¹²⁾

인옥과 박은 미술 전공자이고, 김은 바이올린, 영애는 성악 전공자이며 기섭은 시를 쓴다. 인옥이 편지를 나누는 사이인 두 애인 중 형모는 문학에 뜻이 있고 두현은 영문학 공부를 위해 옥스퍼드에서 유학중인 예비 학자이다. 인옥의 주된 갈등 대상인 두 남자 명규와 영환은 서로 친구 사이로 각기 이과와 철학으로 전공은 다르지만 둘 모두 학업에 뜻이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명규는 다음해에 미국 유학이 예정되어 있고 영환은 현재는 영자신문사인 R신문사의 기자이지만 곧 기자직을 내려놓고 논문과 유학을 준비할 계획이다.

내집단(內集團, in-group)이라고 할 이들 인물군의 특성은 인옥이 취업을 위해 만나게 되는 유평방직, 유평제지 사장과 비교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인옥은 고개를 꾸벅하였다. 사장은 부리나케 손을 상의 안 포켓에 넣더니 명함을 꺼내어서 인옥에게 준다. 명함은 필요도 없으나 인옥은 받았다. 받은 이상 한 번쯤 보는 것이 예의 같아서 그녀는 명함을 보았다. 유평방직, 유평제지의 사장이다. 회사가 둘인가 보다. 전화번호가 준비하게 다섯이나 있다. 직통하고 자택이다. 지저분한 명함이다. 있는 것은 걸레까지 다 늘어놓은 것 같다. 혹 사람의 인상이 나빠서 명함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른다.(중략) 웃을 일도 없는데 그는 다시 눈을 가늘게 하며 웃는다. 세상에는 별 추한 남자가 다 있구나 하고 인옥은 속으로 생각했다. (중략) (오늘은 되는 일이라곤 없어!) 그녀는 제준의 선보는 일부러 그녀의 취직 건을 생각하며 속으로 너까렸다. 그러나 그녀는 승리자처럼 상쾌하였다. (pp.135~137)

『하얀 도정』에서 명백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은 유평방직, 유평제지의 사장과 계모인 송여사이다. 송여사는 냉랭한 성품에 “노랑이”로 언급되며,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유독 기자들에게만은 웃음을 보인다는 점, 대단할 것도 없는 그림으로 개인전까지 몇 차례 열었다는 점 등이 강조된다. 즉 긍정적 청년세대와 부정적 기성세대의 이와 같은 대립 구도는 지향해야 할 것으로서의 순수한 예술이나 학문, 지양해야 할 것으로서의 세속적인 부나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적 가치에 대한 거부와 자신만의 가치 추구라는 것은 사실 근대 문학에 있어 매우 익숙한 구도이다. 사회와의 불화, 개인이나 내면의 발견 등은 오래된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라 할 것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대적 개인은 거대한 사회에 비하자면 한낱 사소한 부속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학은 그 보잘 것 없는 개인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1950년대 작품들이나 『하얀 도

12) 본고에서 인용된 『하얀 도정』은 모두 1972년 간행된 삼성출판사 판본.

정』의 인옥 등 이들 청년 세대들의 불안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다. 이들은 입사를 요구받으며 사회가 자신만의 무엇을 훼손하거나 없앨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허위에 가득 찬 삶을 남겨놓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어진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하얀 도정』은 예술과 학문을 사회적 가치의 반대 향에 둔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지극히 모호하게 그려진다는데 있다. 송여사의 그림에 대한 혹은 그림으로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간단히 비웃는 인옥은 정작 그림에 대해 송여사만큼의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 인옥 외에 예술을 지향하거나 학문을 지향하는 일군의 청년 집단 역시 각기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관이나 그것에 대한 강렬한 열정, 학문 추구의 가치 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역시 불명확하다.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불화하는 개인 ‘나’의 특이성과 욕망이 명확해야 한다. 열심히 실험을 하고, 바이브레이션 연습을 하고, 조각을 하는 것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일용품을 디자인하고 타이프를 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다름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사회와 불화하는 개인의 특이성과 가치, 소위 ‘자기세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고해진 사회 질서 앞에 놓인, 『하얀 도정』의 인옥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인지하며 입사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사회의 질서와 요구에 맞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단순히 현실과 별개의 예술이나 학문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인옥의 불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데, 『하얀 도정』에서 예술을 통한 추구가 본격적으로 탐색되지 못하는 것은 미묘하게 드러나는 인옥의 성차(性差) 의식과도 결부된다.

조각실에는 대여섯 명의 남학생들이 땀을 흘려 가며 일에 열중하고 있다. 중에서도 돌을 파고 있는 학생이 제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 모두 말이 없다. 오로지 자기의 작품만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중략) 남학생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 불협화음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의 손가락 끝에서 굴러 나오고 있다. 박자가 잘 안되는지 치던 데를 되풀이 되풀이 열중하고 있다. (남자는 다 열심히다.) (중략)

김의 집 골목으로 들어서는 바이올린이 들려 온다. (있구나) 인옥이 대문을 미니까 김은 대청에서 중학생의 레슨을 보아 주고 있다. 그는 발로 박자를 치며

「다시」

하고 소리를 친다.

모두 열심히구나. (pp.176-179, *밑줄은 필자)

그녀의 바로 옆에 캔버스가 있었다. 아마도 광선이 좋아서 이 방에서 그렸는 것 같다. 캔버스는 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은 볼 수가 없었다. 계모가 못 보도록 돌려놓은 것이었다. 인옥은 한 번도 그녀의 그림을 집안에서 본 일이 없다. (중략) 작년에 개인전을 열었을 때에 인옥은 비로소 그녀의 그림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후로는 계모의 그림에는 흥미조차도 잃어버린 셈이다. (중략) 인옥은 계모의 그림을 경멸했다. (pp.29-30)

인옥은 “남자는 다 열심히” 이라고 말하지만 남자만 열심히는 아니다. 비록 인옥이나 그 친구들에 의해 수준이 폄하되고 있지만 송여사는 적어도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화실에서 보낸다. 모임의 또 다른 여성 멤버인 영애 역시 공연을 앞두고 성실히 연습하며 목관리에 애쓴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 즉 송여사나 영애 등의 노력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단순한 묘사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명규의 소개 과정에서 김이나 박, 기섭 등은 각기 바이올리니스트, 화가, 문학청년 등의 수식어가 붙지만 영애에게만은 맥락 상 충분히 주어짐직한 성악가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는다. 예비 예술가들 모두 자신에게 붙은 수식어에 웃지 않지만, 인옥만은 자신에게 붙은 화가라는 호칭에 웃음을 터트린다. 이 웃음은 인옥 스스로 자신에게 ‘화가’라는 호칭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예술가 지망생이라 하여도 영애는 성악가가 아니고 인옥은 화가가 아니며, 남학생의 조각이나 피아노 연습은 인옥의 마음을 울리지만 송여사나 영애의 노력은 폼하 또는 간과된다.

지향점으로서의 예술을 표면에 내걸고 있지만,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인옥의 평가 기준은 사랑이다.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열 여섯 살 젊은 남편을 잃고, 유복자 아들마저 같은 나이에 잃은 할머니의 삶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가엾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유복자 아들을 키워온 과정이나 그 아들마저 잃은 후 할머니의 삶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등은 인옥에게 전혀 관심이 대상이 아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화실에서 보내는 송여사의 노력은 냉랭함으로, 죽어서도 화가로 대접받고 싶다는 사회적 욕망은 살아서 명예를 누리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으로 치환되어 읽힌다. 졸업을 하고 나면 결혼 대신 파리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피력한 인옥 본인에게 조차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무게로 그려지지 않는다. 예술이나 학문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옥은 은연중에 여성에게는 그것이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세상과 맞서는 자신만의 무엇을 간직하고자 하지만, 이제 여성인 인옥에게는 세상과 맞서 지켜야 할 자신만의 것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인옥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채워줄 것을 외부에서 구하고자 한다. 연애는, 예술로 표상되었으나 실상은 신기루뿐인 인옥의 자기 세계의 대체품이다.

4. 연애, 자기세계의 대체

『하얀 도정』에서 인옥이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은 둘이다. 첫 번째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비교적 큰 문제가 없었던 인옥의 집은 아버지의 사업과 할아버지의 묘 이장 등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고 결국 집을 내놓는 것은 물론 가재도구를 하나씩 팔아야 할 상황에 까지 내몰린다. 오빠 제준으로부터 집안 상황을 듣게 된 인옥은 취업을 결심하는데, 놀랍게도 결심과 거의 동시에 직장을 얻는다.¹³⁾ 영문으로 제시된 지문을 읽고 재떨이를 하나 그려내는 것으로 외국계 회사의 디자이너로 채용되는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인옥의 취업 과정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만 이 정도의 노력조차도 무색하게 이 심각한 듯한 문제는 결국 아주 간단히 종결된다. 대대로 물려받은 산을 판 것이다. 조상을 모신 선산이기에 아버지는 그것을 팔지 않으려 했지만, 인옥의 코치 하에 제준이 아버지의 인감을 훔쳐 계약을 해버렸고, 벌어진 일에 대해 아버지가 추인하는 것으로 가정의 위기는 순식간에 극복된다. 가난한 친구들에게 동류의식을 느끼며 경제적 문제로 집안의 집기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경험까지 하지만 인옥에게 그것은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가난한 친구들에 대한 동류의식이 보다 부유한 이들을 향한 거리감이나 적대감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결국 인옥에게 남은 유일한 갈등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명규과의 결혼을 받아들일 것인가,

13)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사회는 전 인구의 1/3이 실직상태였고, 70만 제대 장병 중 직업을 알선 받은 사람은 0.83%에 불과할 정도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직업 보도 받은 건 0.83%」, 《경향신문》, 1957.4.25.)

이것을 거부하고 갑자기 나타나 마음을 혼든 영환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이다.

인옥은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연민하고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송여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그런 만큼 『하얀 도정』 속 인옥은 늘 연애 중이다. 인옥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가치의 차원에서는 그림과 사랑이며 현실의 차원에서는 친구와 애인이다. 인옥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예술을 빼고 나면 가치로운 일이라고는 다양한 애인들과의 연애만이 남는 셈이다. 인옥은 거듭해서 허무함이나 외로움을 말하며, 그 이유를 현재가 짝 차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충실히 보내려고 한다고 그만큼 내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옥의 삶은 그저 곁돌 뿐이다. 인옥은 현재 자신이 밭 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가치롭지 않고 그 무엇에도 생을 투신할 정도의 의지를 갖지 못한 채, 그림에도 지금 순간순간의 삶이 짝 차기를 바라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옥은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자신의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것을 찾고자 한 것이다.

김경일에 따르면 1950년대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개인의 자유가 진지하게 고민된 첫 시기”이다.¹⁴⁾ 이 시기 소설 속 인물들은 “스스로를 연애하는 인간으로 선언하고 삼각, 사각 등 복잡다단한 짝짓기의 전장으로 뛰어” 들었다.¹⁵⁾ 인옥 역시 개인의 자유를 고민하며 당대의 청년들처럼 연애에 투신한다. 그런데 인옥의 연애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어딘가 어색하다. 연인 관계라면 가장 밀도 있는 관계로 서로의 내면에 가닿아야겠지만 인옥과 애인들의 관계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두현은 받은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되는 사이이고, 형모와의 관계는 “인옥이 편지는 모두 거짓말이지?” 라는 질문에 “그래요.” 라고 답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심지어 집안 간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갔던 명규와의 관계 역시 “인옥이는 변했지?” 라는 말에 “네.” 라고 응답하며 끝난다.

형모는 만년필을 뚜껑한 채로 테이블 위에 무엇인가 쓰고 있다. 로마 문자다. 인옥은 La mort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은 L'amour... Poet... 형모의 앞에 놓인 차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간다. 인옥은 형모에게 손을 내밀었다. 더 앉아 있으면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뿐이다. 다시 낭비다. 형모가 인옥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뜨겁다. 인옥은 형모의 손을 꼬옥 쥐었다.

「안녕.」

「잘가. 그림 많이 그려.」

「고마워요. 안녕.」

(중략)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갔다. 외로움이 슬픔으로 번져 갔다. 그녀의 가슴에 형모의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 뜨거운 것이 핑그르 괴었다. 그것이 넘쳐 뺨으로 흘러 내렸다. 눈물은 샘물처럼 평평 솟아 흘러 내렸다. 그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달이 눈물 속에서 수정처럼 부서진다. 그녀는 더 걸을 수가 없어서 지나던 높은 담에 팔을 짚고 얼굴을 파묻고 서서 울었다. 누가 슬픈 때는 내가 슬펐다. 그녀는 어깨를 들먹이며 한참 동안 소리없이 울었다. 그녀의 온 혈관이 눈물로 깨끗이 씻기어져 갔다.(pp.61~62)

형모와의 이별과정에서 인옥이 보여준 것처럼 인옥의 거듭된 연애는, ‘연애의 포즈’ 의

14)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p.141.

15) 조미숙, 「1950년대 말 여성 작가의 서사전략-장편소설 『끝없는 낭만』, 『빛의 계단』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3집, 2019, p.135.

연속이다. 스스로의 포즈와 감정에 도취되었다가 그것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또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이다. 도현이나 형모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규와의 관계 역시 사랑이라기보다는 결혼을 둘러싼 저울질에 가깝다. 명규에 대한 인옥의 감정은 부단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제시된다. 대신 “김명규는 우리와 동색(同色)”이라는 아버지의 평가에 이어 그보다 더 나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서양, 찻집에 들어서려는 순간 명규를 향해 쏟아지는 여자들의 시선 등 주변 반응에 대한 묘사를 통해 명규가 얼마나 놓치기 아까운 남편감인가가 부각되는 식이다.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인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연애는 영화에 한정된다. 인옥은 “동색”인 명규 대신 스스로의 열정과 감정에 의거해 영화와의 사랑을 택한다. 그런데 연애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영화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매우 추상적으로 묘사된다. 만남도 연애의 과정도 개연성 없는 우연의 반복으로만 이루어지며, 데이트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화의 이와 같은 물구체성은 그가 너무나 완벽한 이상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인옥이 꿈꿔온 완벽한 모든 것의 관념적 집합체에 가깝다. 현실계에 있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영화와의 관계는 어떤 현실도 개입할 수 없는 낭만적 환상이다.¹⁶⁾ 연애서사로서 『하얀 도정』은 하강의 플롯을 갖는다. 인옥은 형모, 도현, 명규와 이별을 선택했고 영화과는 교통사고로 인해 영별하게 된다. 영화와 인옥과의 연애는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겨우 시작되는데, 둘은 채 몇 번 만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영화의 죽음은 복선이라고 하기에에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적나라하게 예고된다.

가요,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불만이면 같이 죽어 버려요!
그를 추운데 세워 두었는가 생각하니 아픔이 분노로 치솟아 올랐다.(p.272)

아까 서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인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싫어요. 내가 먼저 죽을 테예요.(p.274)

죽을 때 인옥의 품 안에서 죽어야 해. 그래야지 나는 내 죽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긍정할 거야 그것이 또 나의 삶의 긍정이기도 해. 만족하게 죽는 것, 그것은 만족하게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흐리멍덩하게 죽는지도 사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p.276)

『하얀 도정』은 지켜야 할, 추구해야 할 자신만의 가치로 예술을 놓았으나 그것은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렀다. 연애라는 형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으나 그것은 이내 무의미하거나 결혼이라는 세속적인 형태로 변해버렸다. 이러한 한계의 봉착이 낳은 결과물이 영화이다. 이상적인 사랑이자 이상적인 관계의 완벽한 대상인 영화와의 영별은 『하얀 도정』의

16) 앤소니 기든스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를 말한다. 낭만적 사랑은 가문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인을 결정짓던 오랜 관습에 대항해 개인의 감정과 열정에 의거해 파트너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전복적인 근대 경향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사랑, 결혼, 그리고 모성의 결합을 통해 여성의 가정적 종속으로 이어지며 젠더 관점에서 불균형한 것이 된다.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경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pp.27~28 : p.82.)

현실감을 보여준다. 예술을 통한 자기세계의 확립은 믿지 못하고, 완벽한 사랑을 통한 삶의 충만함은 애초에 허락되지 않는다. 영환과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났다면 인옥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영환에 투영함으로써 스스로를 잃고 대상과의 합일에 이르렀을 것이다. 완벽한 환상이다. 인옥은 예술과 연애를 통해 삶의 가치와 희망을 모색해보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에 머무를 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대상과 사랑을 놓지만 예견된 것처럼 이는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게 예술과 연애를 거쳐 ‘청년-여성’ 인옥이 되돌아온 자리는 다시 출발점이다.

인옥은 하얀 길을 자꾸만 걸어갔다. 드디어 별판에 나왔다. 사방에 지평선이 아득히 멀었다. 바람도 없는데 바람 소리가 뿜 나는 것같이 텅 비인 별판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춰서 잠시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했으나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걸어 왔던 길은 어디에 갔는지 없었다. 숲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다만 하늘도 땅도 없는 하얀 공간뿐이었다. 그녀의 발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었다.(p.19)

『하얀 도정』의 인옥은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고 성장하고자 하지만 그에 이르지 못한다. 무한히 펼쳐진 하얀 길 위에 시작도 끝도 없이 놓여 있을 뿐이다. 자기 안의 목적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성숙한 청년, 그리하여 아직 무르익지 않은, 미처 자기 세계를 갖지 못한 미성숙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얀 도정』은 길 찾기의 실패 과정을 담고 있다. 예술도 사랑도 답이 아니라면 인옥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이정표로는 무엇이 가능할까. 『하얀 도정』을 통해 한말숙은 청년들을 다시 원점에 세운다.

5. 결론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한말숙의 『하얀 도정(道程)』에 나타난 연애서사와 길 찾기
- 1950년대 작품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황 지 영(충북대학교)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에 창작된 한말숙의 작품들과 『하얀 도정』(1960)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차별성을 살피고, 예술과 연애로 표상된 청년 세대의 희망 찾기 과정과 그 특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말숙의 『하얀 도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이 논문이 완성되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계에 해당하는 현대소설사의 한 부분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기에 논문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한 점과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청년-여성’ 인옥을 작품의 중심에 놓고 사유할 경우 기성세대의 문제는 인옥의 가족들을 통해 나타나고, 청년 세대의 문제점은 인옥의 친구 및 연인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와 후자가 부정성과 긍정성으로 이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기성세대의 부정성은 개별 인물의 특성을 통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재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년 세대가 긍정적으로 그려졌는지를 묻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예술과 학문을 지향했지만 그 수준이 일정 경지에 오르지 못했고, 청년 세대들의 관계 역시 그 세대들의 세계를 창조하기에는 허약한 것임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분법적 구도가 유효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 이 논문에서 『하얀 도정』은 “질서 회복의 사회적 요구, 회복된 질서 안으로의 편입 요구에 직면해 히스테리적 불안을 보이던 저 청년 세대의 삶에 딱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는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필력이 지닌 한계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입사의 과정 속으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의 내부를 한 겹 들춰보는 작업은 이 시기 청년 세대들의 삶을 오롯이 보여주기 위한 소설적 전략인지, 아니면 좀 더 근접 관찰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작가의 능력 부족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의도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3. 작품 속에서 청년-여성 인옥의 연애 역시 긍정적인 의미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층적인 연애 관계 속에서 선택들을 이어가는 인옥의 모습은 당대의 청년 세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후의 혼란상과 사회 재건 기획, 그리고 1960년 4월의 혁명적 분위기와 연결하여 인옥의 연애 서사를 연결하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보다 잘 전달될 것입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이 하강 결말임을 지적하시면서 “예술과 연애를 거쳐 ‘청년-여성’ 인옥이 되돌아온 자리는 다시 출발점” (12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출발점’은 처음의 ‘출발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작가는 왜 『하얀 도정』에서 청년들을 다시 원점에 세운 것일까요? 그 이유 보다 구체

적으로 서술되어야 이 논문의 중요한 키워드인 청년 세대의 ‘길찾기’가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 시에 나타난 고통과 희열의 언어

이 대 성(두원공과대학교)

차례

1. 들어가며
2. 사적 공간 속 여성의 고통과 희열의 언어
3. 공적 공간 속 여성의 고통과 희열의 언어
4. 나가며

1. 들어가며*

김승희만큼 한결같이 여성 문제에 천착해온 시인은 흔치 않다. 그녀는 주부의 가사 공간은 물론이고, 동서양에서 여성이 처한 신화적, 동화적 공간을 제시하며, 집 내부에 갇혀 여성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느낌과 생각을 지속해왔는지를 50년 가까이 써 왔다.¹⁷⁾ 단군 신화에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갇혀 있어야 했던 동굴과 푸른 수염의 연쇄 살인마가 여러 여자를 가둔 지하의 작은 방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 내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가둬야 하는 자궁까지, 그녀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 경험했던 억압의 공간성을 다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김승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여성시사에서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선행 연구는 김승희 시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자의식, 여성적 말하기 또는 글쓰기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김승희의 시는 여성의 비천함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 필자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이상 카카오톡 보이스톡, 줌,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격주 화요일 밤 9시, 비대면 시 읽기 모임을 진행해왔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소개 글을 접한 뒤, 서울, 논산, 부천, 군포, 부산, 제주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참여했고, 화상 화면을 끈 채 청각에 의존해 시를 낭독하며 시 감상을 나누었다. 시인, 평론가 등 예술가 동인이 아닐뿐더러 회비를 낸 유료 단체도 아니었기에 이 모임의 결속력은 매우 느슨했으며, 모임 중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빠져나갔다. ‘늦은 밤 시간에 나는 왜, 이들은 왜 시를 읽으려 할까.’ 이런 질문을 이어가던 지난 9월 말, 필자는 간절하게 구원과 희망을 바라고 있었기에 “구원과 희망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발표를 결정했다. 처음에는 코로나 이후 시작된 비대면 시 읽기 모임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볼까 했으나, 모임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기 십상이었기에 중단했다. 이후 2021년 11월 23일, 70~80년대 시 읽기 텍스트로 김승희의 『달걀 속의 생』에서 15편의 시를 골라 추천했다. 시인은 어떻게 고통의 장소에 처해 있는 시 속 화자를 글로 쓰면서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생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막막한 질문 때문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17) 김승희는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그림 속의 물」이 당선되어 등단하여 2021년 현재까지 11권의 시집을 비롯해 소설, 수필, 논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약 50년 동안 글을 발표했다. 첫 시집 『태양미사』(고려원, 1979)에서부터 여성의 수호신 “다이아나”와 함께 하는 “사냥”을 “긴 어둠의 창작(創作)”으로 비유하여 여성적 글쓰기의 곤경과 필요를 표현했으며(「햇님의 사냥꾼」), 최근 시집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랑』(창비, 2021)에 이르기까지 “신디 셔먼”이 촬영한 “소식도 모르는 암매장의 여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글로 쓰면서 여성적 글쓰기의 현재적 필요를 여전히 표현한다.

상징 질서를 위반하거나, 여성 신화를 통해 식민화 된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여성 현실에 저항하면서도 현실과 공모하여 아이러니를 만들며, 비판적 자의식을 기반으로 여성적 고통의 진정성을 성찰하며, 현실의 억압체계를 극복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해간다.¹⁸⁾ 여성이 겪는 고통의 경험과 이를 성찰하는 여성적 자의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됐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고통을 부각하여 현실 순응적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비판적 자의식을 드러내어 현실 저항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들 선행 연구는 김승희가 여성의 삶을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이라는 의도된 목적을 실천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김승희의 시에는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신에 말놀이라는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 여성 문제/해결이라는 의도된 목적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논하기보다는, 현실의 논리를 거부하는 문학의 관점에서 김승희 시인이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여성의 고통을 다루었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승희에게 “ ‘문학은 현실의 논리와 다르며 오히려 현실을 지배하는 상징적 질서에서의 예측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해체의 욕망과 현기증의 회열을 보여준다’ 는 것을 ‘말놀이’ 의 전략만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¹⁹⁾ 이는 말놀이의 전략에서 대항담론적, 체제 전복적 성격을 긍정하기 위한 설명인데, 말놀이의 기능을 서사적, 시적 언어의 두 층위로 구분하여 이해한다면, 김승희의 시에서 현실의 논리를 거부하는 두 개의 다른 전략을 살펴보는 데 단서로 참고할 만하다. 문학에서 서사적 언어는 현재와 과거에 일관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잘 짜인 해석을 구성한다.²⁰⁾ 말놀이의 전략 또한 서사화를 위해 일관된 해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시적 언어는 양행 결침, 운 맞추기, 동음이의어 등 문자와 소리의 배열을 활용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보충하여, 의미의 일관성을 방해한다.²¹⁾ 따라서 두 종류의 언어가 있다. 서사적 언어와 시적 언어, 즉 기의 층위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해석적 설명을 제공하며 일관성 있게 구성된 언어와 기표 층위에서 소리와 문자의 배열에 의해 스스로 초과적인 의미를 재생산하며 자유롭게 유희하는 언어이다. 김승희의 시는 사적/공적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의 언어를 재현하는 동시에 음소적, 문자적 연결에 따라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회열의 언어를 생산한다.

이 글에서는 김승희 시에 나타난 고통과 회열의 언어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한편으로는 여성 문제를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는 서사적 언어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적 비약으로 여성 문제/해결의 서사적 언어에서 벗어나는 말놀이의 시적 언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간 존재가 현실 사회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회피하지 않는 가운데, 글쓰기

18) 이현정, 「김승희 시에 나타난 애브젝션(Abjection) 연구」, 『한국어와 문화』 5,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3-38쪽; 이명희,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고전 속 여성 신화의 전복적 양상 — 김혜순, 김승희, 문정희 시인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2, 온지학회, 2012, 201-231쪽; 이유허, 「김승희 시의 아이러니 연구」, 『우리문학연구』 50, 우리문학회, 2016, 307-332쪽; 조연정, 「김승희의 초기시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의 전략과 그 윤리」, 『석당논총』 7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219-247쪽; 김영춘, 「김승희 시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자각과 여성적 글쓰기」,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36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135-165쪽.

19) 김승희, 「말 놀이-상징적 가짜 담론을 해체하는 그 해방의 현기증」,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59쪽.

20) 제롬 브루너(Jerome Seymour Bruner), 『이야기 만들기』, 강현석·김경수 옮김, 교육과학사, 2010, 59, 67쪽 참고.

21) Blasing, Mutlu Konuk, *Lyric Poetry: The Pain and the Pleasure of Word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3. 참고.

행위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승희 시인의 문제의식과 텍스트적 말놀이 현상 간의 지속적 진동으로서 김승희 시의 고유한 성격을 다루기 위해, 김승희 시 전편을 대상으로 통시적 변화를 다루기보다는,²²⁾ 11편의 시집 중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발표된 『미완성을 위한 연가』(나남, 1987), 『달걀 속의 생』(문학사상사, 1989),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세계사, 1991),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세계사, 1995) 등 4편의 시집을 대상으로 각각 사적/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고통을 기술해낸 서사적/시적 언어를 분석한다.

2. 사적 공간 속 여성의 고통과 희열의 언어

김승희 시의 언어는 1980년대에는 여성이 처해 있는 집의 닫힌 공간성을 비유적으로 재현하고 집 안에서의 여성적 기술을 사용해 은밀하게 말놀이한다면, 1990년대에는 집의 친숙함과 당연함을 낯설게 만들며 노골적으로 말놀이한다. 어느 시대든 김승희 시의 화자는 집 안에 속해 있는 존재, 야생이 아닌 길들여진 여러 동물로 비유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위치한 여성 화자가 여성적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모어(母語)의 일상적 용법을 중단하는 말놀이를 살펴본다.

처음인 양 나는 계단을 바라본다
아무런 장식이 없는 콘크리트 계단
무덤 속처럼 깊고 하얗고 불길한
무표정의 무한
층계 위에서
나는 장의사집의 장롱 같은
영원하고 모호하고도 단호한
하나의 절벽을 느낀다

(중략)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나의 발이 막장의 층계 속으로
한 발 아득히 닿고 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엄청난 그 무엇이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다음에도

22) 이해원, 『자유를 향한 자유의 시학』, 소명, 2012. 이 책에서는 김승희 시의 전개과정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시의식과 여성적 시쓰기의 양상을 살펴본다. 1기의 시는 죽음의식의 관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태양 미사』(고려원, 1979), 『왼손을 위한 협주곡』(문학사상사, 1983)으로, 2기의 시는 본격적 여성경험이 드러나는 『미완성을 위한 연가』(나남, 1987), 『달걀 속의 생』(문학사상사, 1989)으로, 3기의 시는 제도에 대한 부정과 현실 비판이 보다 분명해지는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세계사, 1991),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세계사, 1995)으로, 4기의 시는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을 드러내는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민음사, 2000), 『냄비는 둥둥』(창비, 2006)으로 정립한다. 이 연구서 이후, 『희망이 외롭다』(문학동네, 2012), 『도미는 도마 위에서』(난다, 2017),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창비, 2021) 등의 시집이 발간됐다. 이 책의 구분법대로라면 이 글에서는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시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승희 시에는 현실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치적 의미에서 현실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현실 제도/부정의 도식에서 벗어나 있는 놀이적 영역을 결정적으로 회피한다.

별은 있다고,
 그 별의 이름은 미완성이라고,
 나의 발은 조용히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나의 손은 조용히 슬픔의 채탄을 하기 위해
 바닥의 하늘을
 부드럽이 껴안는다

—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며」 부분(『미완성을 위한 연가』, 31쪽)

이 시는 샤를르 페로의 동화 『푸른 수염』과 같이 가정 공간에서의 여성적 위치를 서사 화함으로써 집이라는 친숙한 장소를 무덤으로 재해석하게 하고, 매장된 슬픔을 조사하는 여성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화자는 누군가 지하 깊이 숨겨진 여성의 존재를 보도록 안내하기 위해 가정 공간의 위계질서를 일관성 있게 구성한다. 하지만 동시에 단어 간의 운을 맞추는 작업은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으로 대체하고, 정서적 상태인 슬픔의 고착성을 말놀이의 운동성으로 대체한다.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하는 어조를 취해 여성의 길을 무덤 속처럼 깊고 하얗고 불길하고 절벽처럼 아득하게 해석하는 데서 나아가, 영원히 지하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이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석도 제공한다. 화자의 “채탄” 작업은 가정 공간을 손쉽게 탈출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가운데, 집 안에서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슬픔을 외부로 드러내어 여성의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의도된 목적을 갖는다. 화자는 집 바깥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가정 공간의 억압을 외부 세상에 알리고자 의도한다.

화자는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손과 발로 바닥을 느끼는데, 바닥의 끝없음을 가늠하는 행위에 대해 슬픔이라는 석탄을 채굴하는 행위라고 여긴다. 화자가 눈과 입을 사용하는 대신에,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바닥의 깊이를 재는 까닭은 다른 시에 나온 대로 “하얀 돌계단 층계 층계마다/ 쉬잇, 쉿…… 입술 위에 손가락을 얹은/ 곡두 여인들”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봄 幻」), “말하지 마라”라는 정언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선 석탄보다도 더/ 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자기 삶의 사명, 목적을 기억해내고 성장해 간다.

유사하게, 운을 맞추는 화자는 여성적 삶에 대한 자기 해석을 보충하여 사적 공간의 억압성을 기표 층위에서도 표현한다. 음절 층위에서 ‘단’의 소리와 의미를 활용해, “어두운 계단”과 ‘단호한 절벽’ 사이에서 ‘단단한’ 슬픔을 강조하고, “계단”과 “무덤” 사이에서 ‘제단’의 희생을 강조한다. 여성 화자에게 지하 공간은 폐쇄적으로 압사시키는 ‘단단한 벽’이고, 남성의 제물로서 순응하게 하는 ‘제단’이다. 비록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기 삶의 사명을 해결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더라도 “계단” 또는 ‘단계’라는 수직적 질서 속에 머무르기에 고통의 서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화자는 또 다른 말놀이를 통해 “계단”, “제단”의 언어가 만든 위계질서에서 벗어난다. 화자는 “절벽”의 ‘벽’에서 “별”을 연상하여 지하를 천상으로 역전함으로써 아득함의 계단을 세어 가는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다음에도/ 별은 있다고,/ 그 별의 이름은 미완성이라고,” ‘성’의 운을 맞춰 셀 수 없는 계단 너머를 “엄청난 그 무엇”, “바닥의 하늘”로 표현한다. 화자의 언어는 지하의 평화에 안주하거나 지하의 슬픔을 부정

하는 대신에, 여성이 수동적으로 처해 있는 지하 공간 내부에서 남성의 위계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질서를 삽입하여 수평적 운동성을 활성화한다.²³⁾

이로 인해 마지막 2행에서, 화자가 “바닥의 하늘을/ 부드러이 껴안는” 힘은 수직적으로 “계단을 내려가며”, “석탄보다도 더/ 껴어지”는 고통의 언어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다음에 셀 수 없는 “미완성”의 운 맞추기를 유희하는 언어 양측의 협력으로 생성된다. 김승희의 시에서 고통의 언어는 숨겨진 여성 문제를 발견하도록 현재와 과거에 일관된 서사를 구성하면서도,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승희 시의 화자는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불가능성, 희망의 부재 상태를 고집한다. 이와 달리, 화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운을 맞추면서 “벽”과 “별”, “천왕성”과 “미완성” 등 언어간의 놀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차이를 신뢰하고, 희망 없이 희망의 상태를 유지한다.

하얀 달같이 하나
뜨거운 물 속에서 펄펄 끓고 있네,
전달갈 속에선 어떤 부화의 깃도
돌아나질 않아,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들의 비명,
(달걀꾸러미 속에 얽잡히 누워 있는
하얀 전계란들의 꼭찬 평화)
무섭게 달궜진 프라이 팬 위에서
성녀처럼 와들와들 해체되는
스크럼블드 에그,
어떤 꿈도 그 고통을 구할 순 없지

(중략)

모든 달같은 와삭와삭 깨어져
무참히 와해되고 말지만
그 안에 방이 있어
방이 하나 있어
내 얼굴을 닮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르고 있지,
눈물과 함께
입술연지로
환한 미소를 은은히 뿌리면서

— 「달걀 속의 생 · 1」 부분(『달걀 속의 생』, 92쪽)

23) 시 「내가 찾는 별은」에서도 화자는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기에 “수화”로써 손을 사용해 말한다. 더 정확히, 화자는 입에 “하얀 반창고”를 붙이고 있으며, 이 흰색의 이미지는 성별화되어 있는 언어 조건을 암시하며 남성에게 보내는 항복, 순종의 기표이다. 김승희 시의 화자는 “벽” 안에 갇힌 상태에서 “하얀 비밀 같은 면사포를 쓴”, “병어리 별”을 찾는, 기표 층위의 움직임 시도한다.

이 시는 난생 모티프를 활용해 ‘전혀 희망이 없이 어떤 희망을 구하는’ (1연) 여성의 삶을 ‘달걀 속 생’으로 빗대어 표현한다. 화자는 “안전” (1연)하게 보호받을 집을 원하지만 오히려 그 집에서 “으깨지는” (2연) 고통만 경험했던 자기 삶을 은유적 서사로서 구성하여, 예상 가능한 물리적 “와해” (5연)로부터 정신적 ‘와해’ 까지 겪지 않으려 노력한다. 동시에 “어떤 부화의 깃도” (4연) 생겨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 낙담과 고통과 달리, 운 맞추기와 음성적 유사성 등에 의한 말놀이가 화자의 고통 서사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성을 은밀하게 실천한다.

3연의 요리 장면은 가사 노동하는 여성의 기술을 묘사하며 1인칭 복수의 성별로 여성성을 구체화한다. 여성 화자는 해석의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외관상 괘호 안에 닫혀 있는 채 “암전히 누워” “꽉찬 평화” 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화형장에서 불로 태워지는 성녀의 고통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표현한다. 또한 “달걀”과 “생”의 시어는 ‘알 난(卵)’, ‘어려울 난(難)’, ‘낳을 생(生)’, ‘낳을 산(産)’ 등 기표-기의 계열체적 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적 삶의 어려움을 표현한다. 특히 ‘알 난(卵)’은 여성의 신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난자(卵子)’와 연결되고, ‘생(生)’을 낳거나 낳지 못하는 ‘출산(出産)’, ‘난산(難産)’의 고통과 더불어 ‘달걀로 바위 치기’의 ‘어려움(難)’으로까지 연결된다. 한자어와 고유어 모두에 익숙한 독자라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망 속에서, 「달걀 속의 생」은 여성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전달한다.

그러나 시의 화자는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시어들 간의 운을 맞추며 다른 종류의 균열을 강조하고 “부화” (또는 ‘부활’)의 희망을 모색한다. 3연에서 “하얀 달걀”은 끓는 물에서 쪄지거나,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와들와들” 무서워 떨고 있다. 이 “와들와들”은 5연에서 “와삭와삭”, “와해”와 함께 두운을 맞추며 ‘와’의 의태어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 (“스크럼”에서 ‘스케리’)에 빠진 “에그” (‘아이’)이지만, 동시에 “스크럼”을 짠 “에그” (‘아이’)들이기도 하여, ‘와’ ‘와’ ‘와’ (“와들와들”, “와삭와삭”, “와해”)여럿의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견고한 집”을 부수는 운동성을 만들어낸다. 화자는 견고한 집 안에서 불에 “달궈진” 고통의 상태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스크럼”을 짠 “에그”들의 ‘와, 와, 와’ 이동하는 “이름 없는 운동”처럼 “고요히” “타오르는” 희열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또 다른 음소적 연결에 의해서도 드러나는데, 4연에서 화자는 기의 측면에서 정착의 “뿌리가 없어 슬프지만”이라고 말하더라도, 기표 측면에서 그 안의 방에서조차 “빛을 뿌리면서”, “은은히 뿌리면서”, 공중에 “뿌리”를 만들고자 말놀이한다.

시 「달걀 속의 생 · 1」처럼 김승희의 ‘희망 없이 희망을 구하는’ 글쓰기 전략을 잘 보여주는 시는 없다. 김승희는 여성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적 화자를 고통의 악순환 속에 내던짐으로써, 고집스럽게 여성 문제의 어려움을 상기시킨다. ‘희망 없는 희망’이란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는 대신에, 목적론적 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놀이의 삶 속에서 가능해지는 새로운 접촉과 새로운 의미의 발생을 특징짓는다.

미미는 유리상자 속을 둘러본다.
 거울속에거울이있고거울속에거울이
 있고거울속에거울이거울속에
 거울이미미의아름다운

얼굴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열어 붙은 겨울 하늘을 쨍쨍 울리며
날아가는 겨울새들은
어쩌면 자기 몸 속의 두려움의 얼음을 깨기 위해
그렇게 따귀를 치며 불기를 치며
날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른다고
생각하자
미미는 온몸이 떨리며 불안해졌다.
자기가 모르는 어떤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 싫었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좋은 곳을 찾아
그토록 쨍쨍 체벌을 가해서까지 날아가고 있는 새들이
있는 세계가 싫었다.
그토록 쨍쨍 체벌을 가해서까지 날아가고 싶은
곳. 그곳은 어떤 곳일까?

- The END

- Fin

- 終

- 끝

저 무서운 겨울새들의 세계를 리모컨으로 꺼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미의 유일한 불안이었기 때문에

미미는 저 새때들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얼른 커튼을 닫아버리었다.

— 「인형의 시대 · 2」 부분(『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98쪽)

이 시는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의 삶을 높은 진열대에 거치한 장난감 인형 미미의 삶에 은유하여, 상품화된 사적 공간 속에서 안주하지도 탈출하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떠는 삶의 서사로 여성의 삶을 일관성 있게 구성한다. 동일시된 “나”와 “미미”는 바깥에 나는 새를 집 안에서 관찰한다. 새가 앞뒤로 행하는 날개짓은 “따귀-불기” 치며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의 “체벌”이다. 화자는 “고층 아파트”, “좋은 유리상자” 안에 지낼 수 있다면 “친여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고, 의도적으로 창 커튼을 닫아 새들의 따귀-불기 치는 고통 장면을 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화자는 기계적으로 이 고통의 조건을 반복하면서 고통 속에 동반되는 희열의 말놀이를 멈추지 않는다.

“미미”가 “흔들리면 끝장”, “끝장”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수록, 화자는 운을 맞추며 강조되는 “끝”에서 “미미”가 거울 속 거울, 심연에서 바라보게 될 ‘아름다움’을 발전시켜간다. 머릿속 생각에 남은 “끝”의 시어는 ‘끝날 종(終)’을 파생시키고, “종”에서 “쨍쨍”을 파생시키면서, 유사해보이나 미세한 차이를 내며 “몸 속의 두려움의 얼음”을 깨뜨리고 “미미”도 몰랐던 제 안의 “아름다움”(美)을 지각하게 한다. “미미”는 정말 “좋은” 곳이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질문과 질문을 꼬리 물게 하는 ‘AND’에서

“END”를 연상하고, “Fine”(좋은)을 떠올리면서 다시 “Fin”, 한계로 다다르며, “쨍쨍” 깨져나가는 ‘종(終)’ 소리에서 “끝”을 연상한다. 마지막 행에서 “미미”가 커튼을 가려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고통의 말소리는 머릿속 연상 작용에 의해 자동화되며 의도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김승희의 시에서 여성 화자는 바깥으로 나가 있기보다는,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제 안의 아름다움을 새로 발견해내려 한다. 고통의 악순환은 김승희 시에서 필수적인데, 이러한 반복에 의해 고통의 소리음이 희열의 소리음으로 다시 연결되어 정박보다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에 끓는 “부글부글”, “바글바글”을 반복하여 ‘밖을밖을’로(「동굴벽화」), 바닥을 ‘기는’에서 날아 “가는”으로(「거위」), 상처 받아 생기는 “멍”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울부짖는 “멍·멍”으로, 숨통의 ‘구멍’으로(「멍」), 불길에 타는 “휙휙”을 날개짓을 치는 “휙휙”로(「아네모네 꽃이 핀 날로부터·5」), 언어의 한끝 차이를 이용해 고통을 오직 고통으로만 기억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 논리적 비약을 통해 희열의 경험을 생산해간다.

김승희는 손쉽게 세상 바깥으로 탈출하는 여성 영웅을 선택하기보다는, 친숙한 집 속에서 겪는 여성의 고통을 일관성 있게 서사화한다. 이러한 서사화 기획은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적 설명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해결책에 대한 기대를 거부한다. 이는 여성 삶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론적 사고 방식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애초에 결과를 정해놓고 모든 과정의 시간을 소진하는 방식은 이미 웰-빙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집 안을 선택했던 여성이 그 집을 낯설게 느낄 때, 설득력을 잃었다. 하지만 김승희는 희망을 완전히 잃고 허무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기표-기표의 병렬체적 축에서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언어의 길을 신뢰하고,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즐거움을 즐긴다.

3. 공적 공간 속 여성의 고통과 희열의 언어

김승희의 시에는 구술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여 손과 발로 소통하는 화자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로 인해 독자는 김승희 시인이 주로 다루는 문자 언어 그 자체에 특별히 주목할 수 있다. 손을 쓰는 또는 손으로 입력하는 문자 언어는 두 가지 음향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승희 시의 화자와 김승희 시인 간의 관련성을 맺는다. 하나는 집에 갇힌 여성이 집 바깥을 향해 벽을 두드리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집 바깥으로 출판물을 유통하고자 집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이다. 이번 장에서는 출판 또는 소통의 형식으로 문자 언어를 유통하는 공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여성 화자가 실천하는 말놀이를 살펴본다.

백치 같은
너는
세상은 온통 관절이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시를 써서
세상의 관절염을 모조리 고쳐주겠노라고
되뇌이는 머리가 살짝 돈
너는
빈혈엔 연애를 하세요
건강에 좋아요
식욕 성욕이 모두 좋게 생긴 의사가 미워
에잇 연애보다는 애연을 하겠소

발악적으로 담배를 한 대 더 피워 무는 한심스런
너는

천추에 씻지 못할 슬픔 때문에
천추에 씻지 못할 사랑 때문에
단 하나 가진 밀천
제 몸뚱이만 괴롭히는
병신 같은
너는
그래도 시 한 줄 못 쓰는
그래도 시 한 줄 안 써지는
천치 같은
너는

공포만화 외설만화 스포츠만화
속에
순정만화 하나
시대착오적으로 수절합니다

— 「순정 만화」 부분(『미완성을 위한 연가』, 83쪽)

이 시의 화자는 의사의 치료 방침을 따르지 않는 시인-환자로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다. 화자는 의사 또는 출판 시장을 비판적으로 문제 삼는 대신에, 두 종류의 말놀이를 통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언어적 질서를 구별한다. 이때, 시인-환자를 “백치”로서 치유하는 언어와 “천추”의 기다림으로 쓰는 시적 언어가 상호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현실의 논리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한편으로 치유하는 언어는 의사의 시선에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노출되듯이, 출판 시장에서 시가 시대착오적으로 전략한 문제적 서사를 구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적 언어는 화자의 의도 하에 질병을 치유하거나 시집의 출판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 논리가 아니라, 기표-기의 간의 관련성으로 축소되지 않는 기표-기표 간의 자유로운 유희로써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생성한다.

시인이 쓰는 “순정만화” 종류의 책은 “폭력만화 섹스만화 요설만화” 속에 “명칭히” 꽃혀 있다. 1연의 “명칭히”는 의미적으로 2연의 “백치”, 3연의 “병신”, “천치”로 연결되며, 동시에 문자적으로 “(명)칭히”에서 “천치”에서 “천추”로 연결되어, 두 종류의 다른 언어적 질서를 갖는다. 환자는 의사의 언어를 빌어 “너”에 대해 “머리가 살짝 둔” 시인이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의사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연애”와 “애연”의 회문 구조를 가지고 논다. 이러한 자리바꿈은 분명한 참조 언어에서 출발한 “명칭히”, “백치”, “천치”의 의미망에서, “천추”로의 이동을 통해 기표-기의 간 관련성을 탈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환자의 시 쓰기는 현재 처해 있는 출판 시장과 질병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끈질기게 고집하면서 목적 없이 생겨나는 다수의 우발적 사건을 오랜 세월(“천추”) 기다리는(“수절”) 전략이다. 4연에서는 시어 “순정”은 문자적으로 “수절”과 연결되어 있다. 시인이 쓰는 “순정만화”의 언어란 단순히 지시적 의미에

서 남녀 간의 “순수한 애정”을 다루지 않으며, 주류를 차지하는 폭력, 섹스, 요설, 공포, 외설, 스포츠 등의 문화 일반에 대한 현대적 관심을 철회하고 “시대착오적으로” ‘둘러놓는’ 언어이다.

김승희 시인은 시, 산문, 연구서 등 여러 방면에서 글을 써왔다. 입을 봉쇄당한 여성에게, 글쓰기 행위는 집 안의 존재로서 선택한 구원의 몸짓이었을 수 있다. 김승희 시에 나오는 손가락은 집에 갇힌 여성이 수동적으로 처하게 되는 슬픔의 악순환 속에서 능동적으로 순환의 고리를 깨트리는 핵심 신체 부위로 사용된다.

모든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는 곳에서
왜 나만 아무데로도 가지 않고
불꺼진 책방 문을 열고 들어가
<죄와 벌> 한 권을 사려는 것일까

*

인형 놀리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타서
우쭈우쭈 반죽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인형극 대본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빈방엔
바람의 글씨로 휘호된
신비스런 액자가 하나 걸리어 있다
바람의 휘호를
해독할 줄 몰라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문자라고 불렀다

*

엄마 아버지 아우들아
기다려 주세요
난, 조금만, 더, 묘지가의 썩기풀을 모아
마법을 풀
썩기풀 옷을 뜨개질해야 해요
어두운 얼굴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웃지 않는 나를
그들은 마녀라고 부르지만
엄마 아버지 아우들아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화형대의 불이 켜지더라도
난 다만 이 뜨개질을 계속해야만
해요
화형대의 불이 날름날름 날 집어삼켜도
난 다만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걸요

— 「길을 가다가」 부분(『달걀 속의 생』, 185쪽)

이 시의 화자는 전반적으로 “<죄와 벌> 한 권”, “인형극 대본”과 “신성문자”, ‘피홀리며 짜는 췌기풀 텍스트’(안테르센의 동화 『백조 왕자』) 간의 일관성을 만들면서, 공개된 공간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했던 형벌의 글쓰기 공간을 구성한다. 동시에 자음 유사성, 음절 반복 등으로 운을 맞추는 화자는 여성을 죄인, 인형, 마녀로 구성해온 공적 서사에 의해 “해독” 불가능한 글쓰기 공간을 발생시킨다. “췌기풀”을 모아 “마법을 풀” 옷을 만드는 텍스트적 전략은 동화의 서사에서부터 고정되어 전승되어 온 고통의 언어(“췌기”)이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을 따르지 않는 희열의 언어(“마법”)이다.

화자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집에서 쓴 텍스트를 공적으로 유통해야 할 때조차 고통의 언어를 되풀이하여 선택한다. 그녀는 “사방으로 열려 있는” 길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사람과 달리 선택할 다른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여성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에,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는다. 화자는 사방으로 열린 길을 가다가도 결국 “불꺼진 책방”으로 돌아가 “죄” 지은 마녀로서 “벌” 받아야 하는 무대에 선다. 그리고 마치 “인형극 대본”에 써진 대로 “우쭈우쭈” 춤추듯 발을 구르고, 청중(“엄마 아버지 아우들”) 앞에서 연극 대사 “기다려 주세요”를 말한다.

또한 화자는 문자적, 구어적 유사성을 따라 “풀”과 “불”, “뜨개질”과 ‘뜨거워’를 계속 쓰고, 화형에 처한 여성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텍스트를 직조한다. 화자는 불길 속에서 ‘불 뜨거워’라고 신호 보내며, 화형대에서의 고통을 잊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의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이는 무대 바깥에서 연극을 보는 “엄마 아버지 아우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4번째 절에서 화자는 가사 공간에서 경험하는 “전자렌지의 투명한 불꽃” 속에서 “밀가루반죽”을 발견한다. “반죽”은 ‘반쯤 죽어버린’ 여성적 고통의 언어인데, 이는 고통 속에 개체성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넓게 부풀어” 가는 과정에서 “향그리이”, “한덩이 빵”, “향기”의 ‘ㅎ’ 자음 유사성 속에 재결합하여 비밀 결사체를 만드는 희열의 언어로 발전해간다. 이로 인해 5번째 절에서 “촛불 속에서 녹초가 되도록” 타들어가는 여성의 신체는 “하느님” 보호의 부재 아래 버려져 죽어가지만, 동시에 “빈 방”을 “한” 가득 채워가는 “향기”로서 부활한다.

“바람의 휘호”라는 시어는 의미적 차원에서 신이 쓴 ‘붓’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음소적 차원에서 “불”에 탄 여성이 “향”, “흔적”으로 읽을 수 있다. 「길을 가다가」는 “풀”, “불”, “방”, ‘붓’, “화형” 등 여성의 문제적 서사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호”, “화”, “향”, “흔” 등에서 ‘ㅎ ㅎ ㅎ ㅎ’의 자음 유사성을 바탕으로 참조성을 넘어 웃음소리를 생산한다. 김승희는 이러한 두 개의 다른 접근법 덕분에, ‘발 등에 떨어진 불’처럼 여성이 현재 처해있는 고통의 서사를 과거와 현재 모두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으며, 동시에 당면한 문제/해결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입으로 소리내지 못한 대신에 손으로 직조한 언어 놀이를 통해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을 놀라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한다.

나의 시,
 그것이 세상의 유창한 변설을
 막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중략)

아르비안 나이트 속의
호리병,
그 호리병 속에 간혀 있던 거인이
반만년 동안이나
내 몸 속 천지를 밀면서
꿈틀대고 있음을 난 알고 있다.
이제 세상은 사악한 선이 오래토록
지배해 왔음을 난 알고 있기에
호리병 속의 거인이
취고 있는 깃발을
난 두려워하진 않는다.
난 다만 그것의 뚜껑마개를 열어줄 힘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호리병 속의 거인이
내 목구멍까지 치받쳐 올라와
식도 속의 안전마개를 딸그락거린다.
뚜껑마개는 딸그락 딸그락
나는 그래도 그 회오리의 말을
참는다.
세상엔 으르렁 말과 가르릉 말이 존재한다고
언어시학자 제프리 리취는 쓰고 있다.
으르렁 말이 검둥이새끼라고 말하면
가르릉 말은 흑인으로 고친다.
그래서 후진국 저개발국(으르렁)은 개발도상국
신생국(가르릉)이 되고
파시즘(으르렁)은 민주 애국 등등의
가르릉 연상망을 거느리게 된다.

(중략)

이 딸국질로, 난 다만, 홀로 완결되어
가려는 이 시대의 문장이 홀로 완결되는 것을
잠시 방해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다.

딸꾹 딸꾹,
그것은 병든 뼈꾸기의 실패한 노래가 아니라
딸꾹 딸꾹,
이 시대의 뼈꾸기는 그렇게 운다.

— 「딸국질」 부분(『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94쪽)

이 시에서 화자는 제 안에 “회오리의 말”이 있어도 “안전차단장치”를 들어 올릴 힘이 부족하여, 다만 “이 시대의 문장이 홀로 완결되는 것을/ 잠시 방해”하는 수준에서 삼입되는 “딸꾹” 소리로서 시적 언어의 기능을 공개적으로 해명한다. 하지만 ‘기’ 연구계열

중심의 음운 유사성은 “딸꾹” 소리에서 ‘딸각’ (“딸그락”) 거리는 소리를, “빠꾹” 소리에서 ‘부글부글’, ‘바글바글’, ‘끓는’ 소리를 연상시키며 “목구멍” 을 ‘총구멍’ 으로 만들면서, 언어 간의 접촉만으로 자동폭파장치를 작동시킨다. 화자는 시의 언어에 대해 서사적으로는 “힘을 가지지” 못한 자가 완전한 문장을 “잠시 방해” 하는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할지라도, 시적으로는 언어 스스로 완전한 문장을 폭파하는 수준으로 변화해가도록 특정 언어를 선택한다.

시의 화자는 자신의 시적 언어를 “세상의 유창한 변설” 과 구분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실패한” “병든” 언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시인은 “완결” 된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 대신에 두운 또는 각운과 같은 음운 유사성에 의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망을 보충하는 말하기를 계속 시도한다. 화자는 “꾸르륵거림” 에서 “꿈틀대고 있음” 을 발견하고, 입의 “딸꾹질” 에서 목구멍의 “안전마개” 를 들썩이는 “딸그락 딸그락” 소리를 발견한다. 이때, “딸꾹 딸꾹” 은 새장에 갇혀 있거나 등지를 떠나지 못하는 “빠꾸기의 노래” 라는 점에서, ‘빠꾹 빠꾹’ 의 음향 효과를 내포한다. 따라서 “딸꾹” 은 ‘빠꾹’ 과의 각운으로 ‘꼭꼭’ 참는 고통의 언어를 환기하면서도, ‘딸각’ 과의 두운과 음운 유사성으로 ‘딸각딸각’ 거리며 “치받쳐 올라” 오는 희열의 언어를 환기한다.

3연에서 화자는 언어시학자 제프리 리취의 말을 인용하여 고양이처럼 편안한 “가르릉 말” 과 사자처럼 위험한 “으르렁 말” 의 두 언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가르릉 말” 을 한다면, 음운 유사성을 따라, 그 아래에 억눌려 있는 “으르렁 말” 을 동시에 듣게 만드는 말놀이의 전략을 암시한다.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고통과, 능동적으로 창조해야 하는 희열의 언어 모두를 시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시인은 “갇혀 있던 거인이” “목구멍까지 치받쳐 올라” 오도록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안하는 행동가가 아니다. 시인의 말놀이는 해결책이 부재하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억압 당하고 굴복 하며 괴로워했던 모든 사실을 고통스럽게 기억할지라도 억압 하는 완결의 문장을 “잠시 방해” 또는 ‘폭파’ 하는 미완결의 요소를 삼입함으로써, 미지의 미래를 발생하게 한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김승희 시인이 고통의 공간에 처해 있는 시 속 화자를 글로 쓰면서 어떻게 고통의 악순환에 사로잡히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 희열의 운동성을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에 일관성 있게 고통의 기의를 구성하여 여성의 삶을 문제적으로 해석하는 서사적 언어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와 문자의 배열에 의해 언어가 스스로 초과적인 의미를 생성하며 기표 층위에서 움직이는 시적 언어를 분석했다. 김승희 시에서 서사적 언어는 치유, 완결, 기표-기의의 계열체적 언어로, 시적 언어는 환자, 미완결, 기표-기의의 병렬체적 언어로 여러 양상을 변주하며 나타났다. 김승희 시에서 서사적/시적 언어는 모두 나타났으며 일견 상충되는 듯 보일지라도, 현실의 논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무목적론적인 방향 탐색의 운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협력하고 있었다.

김승희는 시의 화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불가능성, 희망의 부재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했다. 그녀는 여성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적 화자를 고통의 서사 속에 내던짐으로써, 고집스럽게 여성 문제의 어려움을 기억했다. 하지만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대안적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사화 기획은 두

가지 효과를 야기했다. 하나는 여성이 현재 처해 있는 고통의 서사를 과거와 현재 모두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한결같이 강조하는 효과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론적 사고 체계를 거부하여 의도된 목적에 따라 모든 과정의 의의를 소진하는 현실 논리를 거부하는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희는 희망을 완전히 잃고 허무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기표-기표의 병렬체적 축에서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언어의 길을 신뢰하고,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즐거움을 즐긴다. 김승희의 시에는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나타나 있지 않은 대신에, 말놀이라는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 여성 문제/해결이라는 의도된 목적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김승희 시에 나타난 음운 유사성, 음절 반복, 회문 구조 등의 말놀이는 목적론적 체계에 종속되지 않고, 언어 간 새로운 접촉에 따라 자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며 무목적론적 방향 탐색의 운동성을 만들어냈다.

김승희 시에서 고통의 일관된 서사는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서둘러 문제/해결이라는 목적론적, 남성적 현실 논리를 유보함으로써, 다른 한편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기습적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악(surprise)의 즐거움을 가능하게 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은 경우 경제적, 정치적, 젠더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노력을 해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가능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글쓰기는 말을 해도 들어줄 누군가를 찾지 못한 존재,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안주하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존재, 문제 해결의 전망을 찾지 못해 희망이 끊긴 존재가 현실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있더라도, 문자적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삶의 활력을 생성해내는 기술이다. 글로 써진 텍스트에서 각각의 언어가 운을 맞추며 우연한 접촉과 우연한 의미 발생을 가능하게 하여 작가가 의도한 말하기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인간 존재는 오히려 목적론적 전망을 망각할 때 비로소 무목적론적으로 발생하는 언어의 희열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자료

- 김승희, 『미완성을 위한 연가』, 나남, 1987.
_____, 『달걀 속의 생』, 문학사상사, 1989.
_____,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세계사, 1991.
_____,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세계사, 1995.

2. 논저

- 김영춘, 「김승희 시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자각과 여성적 글쓰기」,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36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135-165쪽.
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이명희,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고전 속 여성 신화의 전복적 양상 — 김혜순, 김승희, 문정희 시인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2, 온지학회, 2012, 201-231쪽.
이유정, 「김승희 시의 아이러니 연구」, 『우리문학연구』 50, 우리문학회, 2016, 307-332쪽.
이현정, 「김승희 시에 나타난 애브젝션(Abjection) 연구」, 『한국어와 문화』 5,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3-38쪽.
이혜원, 『자유를 향한 자유의 시학』, 소명, 2012.
제롬 브루너, 『이야기 만들기』, 강현석·김경수 옮김, 교육과학사, 2010.
조연정, 「김승희의 초기시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의 전략과 그 윤리」, 『석당논총』 7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219-247쪽.
Blasing, Mutlu Konuk, *Lyric Poetry: The Pain and the Pleasure of Word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김승희 시에 나타난 고통과 희열의 언어」에 대한 토론문

정 끝 별(이화여자대학교)

위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여성 시사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차지하는 김승희 시인의 시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통’으로 압축되는 여성 현실을 사적·공적 공간으로 나누고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저항의 욕망을 내재한 ‘희열’의 운동성을 시 쓰기(말놀이) 전략으로 읽어낸 후, 그 전략을 기의 차원에서 고통의 여성 삶을 계열체로 해석하는 서사적 언어와, 기표 층위에서 소리와 문자의 배열로 유희하는 시적 언어로 층위로 나누어 살피고 있습니다. 시인의 당대성과 여성성을 담보하면서 여전히 시적 진화 중인 김승희 시인의 시 세계를 ‘말놀이’라는 언어적 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 정밀하면서도 풍요로운 시적 분석이 돋을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으며 여기에서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질의자로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김승희 시인의 1980~90년대 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 시기의 작품에 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분량이 짧은 소논문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 여성주의 시의 흐름이나 시대사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 고통과 희열의 실체가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요청입니다. 이는 시인의 2000년대 이후의 시들에서 더욱 심화 확대된 말놀이 전략과 변별하기 위해서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여성시의 지향점 또한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여성시는 여성의 삶이 어떻게 제한적이고 억압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면, 1990년대 이후의 여성시들은 ‘여성됨’ 혹은 여성 정체성, 남성 시인들의 언어와 변별되는 여성의 언어(말(언어)≥글쓰기≥언술≥텍스트≥목소리)에 대한 탐색과 물음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1980년대 시와 1990년대 시에서는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 논문의 틀을 이루는, 제목과 목차의 핵심어들에 대한 변별적인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장과 3장을 구분하는 사적 공간/공적 공간, 2장과 3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고통의 언어/희열의 언어를 변별하는 기준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다 보면, 고통의 언어가 서사에 가깝다면, 희열의 언어는 시적 유희(말놀이)로서의 시적 언어에 가깝다는 논지로도 읽힙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체로 해석하는 서사적 언어” “병렬체적 시적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로만 야콥슨은 수사학의 용어를 빌려와 계열체로 작동하는 언어의 선택(유사성, 수직적, 시의 원리)을 ‘은유’로, 통합체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배열(인접성, 수평적, 산문의 원리)을 ‘환유’로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통합체가 서사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어적 전략이 여성의 고통-서사적 언어, 여성의 희열-시적 언어로 일반화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서론의 다음 문장과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놀이의 기능을 서사적, 시적 언어의 두 층위로 구분하여 이해한다면, 김승희의 시에서 현실의 논리를 거부하는 두 개의 다른 전략을 살펴보는 데 단서로 참고할 만하다. 문학에서 서사적 언어는 현재와 과거에 일관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잘 짜인 해석

을 구성한다.²⁴⁾ 말놀이의 전략 또한 서사화를 위해 일관된 해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시적 언어는 양행 결침, 운 맞추기, 동음이의어 등 문자와 소리의 배열을 활용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보충하여, 의미의 일관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언어가 있다. 서사적 언어와 시적 언어, 즉 기의 층위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해석적 설명을 제공하며 일관성 있게 구성된 언어와 기표 층위에서 소리와 문자의 배열에 의해 스스로 초과적인 의미를 재생산하며 자유롭게 유희하는 언어이다. 김승희의 시는 사적/공적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의 언어를 재현하는 동시에 음소적, 문자적 연결에 따라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희열의 언어를 생산한다.”



24) 제롬 브루너(Jerome Seymour Bruner), 『이야기 만들기』, 강현석·김경수 옮김, 교육과학사, 2010, 59, 67쪽 참고.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과 애도의 글쓰기

윤인선(한밭대학교)

차례

1. 들어가며
2.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에 대한 글쓰기 양상
3.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상실에 대한 애도의 글쓰기
4. 마치며

1. 들어가며

본고는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인 함양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정경운이 작성한 <고대일록>에 관해 연구한다. 특히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에 대한 다층적 글쓰기 양상을 상실을 매개로 서술하고 있는 모습과, 글쓰기를 통해 상실에 대해 애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의 삶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유로서의 애도’와 ‘윤리로서의 애도’에 관한 이중적 글쓰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경운(鄭景雲, 1556~?)은 경상도 함양 출생 사족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는 18년 동안 자신이 체험한 전란을 일기 형식으로 <고대일록(孤臺日錄)>에 기록하였다. <고대일록>에는 사족 출신 의병이 직접 경험한 전란의 고난과 참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대일록>은 1986년 오이환에 의해 발굴 공개된 이후 정경운의 서술의식²⁵⁾이나 문학적 자질²⁶⁾과 같은 작품이나 작가에 집중된 연구와, 임진왜란 당시의 정치적 상황²⁷⁾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는 <고대일록>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기 형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전란을 기록’ 하고 있는 ‘자전적 서사’라는 글쓰기 양상에 주목한다. <고대일록>에서 정경운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임진왜란의 참상과 감정을 생생하게 서술한다.

25)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157-188쪽.

26) 윤호진, 「고대 정경운의 시문과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4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4, 121-155쪽.

장경남,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5, 325-360쪽.

27) 박병련, 「<고대일록>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235-272쪽.

정해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함양 양반 정경운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63-100쪽.

지부를 만났고, 시장에서 양식을 구걸했다. 두꺼운 얼굴에 부끄러워 마치 시장판에서 매를 맞는 것 같으니, 곤궁함에 마음이 상하는구나

위 인용은 1598년 4월 10일의 기록이다. 그는 인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피난 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구걸을 하는 것은 물론, 소금장수가 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 의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등 전쟁으로 인해 일상이 상실된 삶을 살아갔다. 정경운은 자전적 글쓰기의 맥락에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고대일록>에 서술한다. 하지만 <고대일록>은 전란을 소재로 하는 일반적인 일기와는 다르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혼합된 다층적인 글쓰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대일록>에는 정경운이 직접 경험한 전란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간접 체험한 전란 역시 함께 나타난다.

왕의 행차가 개성부로 갔고 적이 도성에 들어왔다. 경사의 수비에 실패하여 달아나 숨었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여 시체가 들판에 즐비했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했다. 신시에 왕의 행차가 개성을 출발해 금교역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이것은 적들이 장차 개성의 행재소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위 인용은 1592년 5월 3일의 기록이다.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일록>에는 정경운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왕의 이동과 대외적인 전란의 흐름 등에 대한 간접 경험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처럼 <고대일록>은 일기 형식을 통해 ‘자전적 서사’의 맥락 속에서 정경운이 직접 경험한 전란의 모습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도 함께 서술하는 다층적인 글쓰기 양상을 보여준다.

필립 르죈(P. Lejeune)에 따르면 자전적 글쓰기(자서전)은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 이야기”²⁸⁾이다. 이러한 자전적 글쓰기(자서전)의 정의에 따라 개인은 이미 ‘자신의 인성의 역사’ 다시 말해, 어떤 ‘결정된 정체성’을 글쓰기 ‘시작 전에’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²⁹⁾ 자전적 전란 서사로서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다층적 글쓰기 양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정경운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란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결정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건들을 특정한 의미로 구성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전란과 같이 일상을 상실하게 하는 경험의 경우 이러한 모습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임스 페니베이커(J. Pennebaker)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비롯한 고난에 관한 경험과 감정을 글로 써내려갈 때,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건의 많은 국면들이 종합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정제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³⁰⁾ 정경운 역시 <고대일록>을 서술하면서 단순히 삶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전란을 둘러싼 다양한 국면들을 자신이 이해 가능한 것으로 정제해 나가면서 상실된 일상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혼합된 다층적 글쓰기 양상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28)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1998, 17쪽.

29) 배지선, 「자서전: 삶을 위한 삶-글/쓰기 계약」, 『탈경계인문학』 Vol8 No2, 이화인문과학원, 2015, 144쪽.

30) 서길완, 「글쓰기 치료와 실천적 증언으로서 자전적 질병 서사」, 『영미문학교육』 Vol7 No3,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3, 155쪽.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에 대한 다층적 글쓰기 양상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경운의 자전적 서사로서 <고대일록>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전란으로 인해 나타난 상실의 삶에 마주해 나갔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에 대한 글쓰기 양상

정경운은 <고대일록>을 통해 전란을 서사화한다. <고대일록>은 경험 서술의 시작 부분에 낱짜를 붙여 형식적으로는 연대기적 구성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고대일록>은 정경운의 전란 경험을 재현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통문, 설(說) 줄기(卒記)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고대일록>은 정경운이 경험한 전란과 서술된 경험을 지시적 관계가 아니라 ‘관련성’으로 설정하며, 단순한 경험의 재현물이 아닌 새로운 언어적 구성물로 나타나게 한다.³¹⁾ 이러한 모습은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모두에 해당한다.

적의 무리들이 가지 않고 장수현 안에서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행을 이룬 사람들이 비를 무릅쓰고 덕옹의 집을 떠나 전주로 향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산으로 향했다. 점심 때 학두재를 넘어 시냇가의 들판에 도착했다. 길에서 시 한수를 읊었다. 아! 저 하늘이여, 흥적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 다 죽게 하네. 고산을 향해 가는데 종일토록 비 내리고 만겁의 봉우리에 구름은 천겹이구나.

위 인용은 1598년 3월 19일의 기록이다. “적의 무리들이 가지 않고 장수현 안에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경운은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전쟁의 흐름에 관해 <고대일록>에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담은 시를 적으면서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서사를 단순한 사건의 재현물이 아닌, ‘전란에 대한 사실-시를 통한 사실에 대한 감정 표현’의 형태를 지닌 새로운 언어적 구성물로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전쟁의 흐름, 다시 말해 간접 경험이지만 이것을 마치 자신의 감정이 개입된 직접 경험의 대상인 것처럼 변화시킨다.

순보와 헤어져 황혼에 집에 도착하니, 딸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미 관에 들어가 빈소를 차려두고 있었다. 통곡하며 불러 보았지만 유명을 영원히 달리 하였다. 오호라! 이 몸이 다시는 내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내 딸은 타고난 자질이 영오하여 보통 애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책을 읽는 것을 옆에서 듣고 바로 외웠다.

위 인용은 1600년 11월 26일의 기록이다. 정경운은 둘째 딸 단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딸의 살아있을 때 모습에 대해 그리워하며 줄기 형식의 글을 남겼다. 만약 정경운이 <고대일록>에서 전란의 경험을 연대기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위 인용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을 남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죽음을 기억하는 줄기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개입된 경험을 서술하였다.

31)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9, 113쪽.

이처럼 정경운은 <고대일록>을 통해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경운은 전란 중 ‘특정한 행동을 했다’ 혹은 ‘특정한 사건을 전해 들었다’ 라는 사실적 의미를 넘어서, 자전적 전란 서사 안에서 서술된 경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과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해, 정경운은 <고대일록>에서 전란을 마주하는 자신의 활동과 사건들을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통해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함께 드러낸다. 이때 정경운의 글쓰기는 대부분 전란으로 인한 ‘분노나 애통함을 비롯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표현을 매개로 한다.

(1) 점심 때 우사에 도착해서 주복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죽고 싶었다. 오호라! 내가 사십을 넘어 겨우 아들 하나를 두었다. 결국 그의 요절함을 보니, 운명의 기박함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중략) 묻은 곳에 가서 곡하는데, 밥을 떠 놓고서 한 번 곡할 따름이었으니, 참혹하구나!

위 인용은 1598년 6월 27일의 기록이다. 정경운은 자신의 아들 주복의 죽음에 대해 서술하면서 ‘참혹하구나!’ 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그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글을 쓰게 된 맥락은 ‘참혹함’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란 중에 경험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즐기 형식의 글을 작성한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경험한 전란을 재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전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2) 명나라 병사 다섯 명이 또 우리 집에 들어와 병아리를 모두 죽였다. 또한 곡물을 빼앗고, 술과 고기를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데, 성화보다 급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무와 돌을 다루듯이 마음대로 때렸다. 나는 말세에 태어나서 어찌 이다지도 불행한가?

(3) 왜선 32척이 거제현 앞 물가에 와서 정박했다. 나머지 배들은 현내량을 의지해 정박했고, 2척이 진안으로 향했다. (중략) 우리의 장수와 병사들은 소문만 듣고 먼저 무너져버리고 굳게 지킬 뜻이 없어서, 부모와 처자로 하여금 모두 죽음과 욕을 당하도록 만들고 자기 목숨 또한 보장하지 못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위 두 인용은 각각 1595년 11월 5일과 1592년 7월 19일의 기록이다. 전자는 정경운이 전란 중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한다. 그는 명나라 병사가 전란 중에 부린 횡포에 대해 서술하며 ‘어찌 이다지도 불행한가?’ 라고 표현한다. 이는 곧 해당 사건을 통해 느낀 정경운의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정경운이 전해 들은 전란의 흐름에 대한 서술이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전해 들은 전란의 흐름에 대해 ‘애통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다시 말해,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많은 글들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전란 경험을 서술하고, 이후 그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경운이 전란 경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고대일록>의 다양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 분노나 애통함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하는 것, 혹은 사라져야하는 것으

로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 감정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적 감정에서는 분명 파괴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부정적 감정은 사건이나 행위의 부당함 혹은 불의함에 대해 분석한 후 그것에 따른 윤리적 판단이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³²⁾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단순히 자기 파괴적인 분노나 애통함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감정 표현에 앞서 서술된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정경운이 스스로 경험한 전란의 피해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들은 대부분 대상에 대한 상실인 ‘무언가를 잃다’ 혹은 자신의 존재/능력에 대한 상실인 ‘할 수 없다’ 혹은 ‘어찌할 수 없다’와 같은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들은 대부분 ‘삶에 대한 상실’과 ‘자아의 존재감에 대한 상실’과 연결되어 표현된다. 앞서 살펴본 인용(1)의 경우 정경운의 자식에 대한 상실, 즉 삶에 대한 상실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이다. 또한 인용(2)의 경우 ‘곡물을 뺏앗기는 등’ 일상적 삶을 잃는 것과 그것에 대응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각각 삶에 대한 상실과 존재감에 대한 상실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인용(3)의 경우에도 ‘자기 목숨 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력함이 반영된 것으로 전란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습에 바탕을 둔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은 전란 중 정경운이 느낀 혹은 경험한 삶과 자기 존재감에 대한 상실을 매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일록>의 다층적 글쓰기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전란에 대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서술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닭이 두 번째 울 무렵에서야 비로소 도둑맞은 것을 알고 온 집안이 깜짝 놀랐다. 나는 난이를 데리고 곧바로 팔랑원으로 갔는데, 종적이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식후에 옹현으로 종적을 찾으러 갔다. (중략) 이미 말의 종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위 인용은 1595년 1월 15일의 기록이다. 전란은 도둑을 들끓게 했고, 도둑질은 전란 중에 정경운이 직접 경험한 사건 중 하나였다. 위 인용 역시 전란의 피해로서 집에 있던 말을 도둑질 당한 사건에 대해 서술한다. 이때 그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그는 직접 경험한 전란에 대해 기록하면서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삶에 대한 상실을 매개로 나타나는 분노의 감정을 도둑질을 당한 경험과 함께 서술한다.

왕의 행차가 증화현을 지나 평양부로 들어갔다. 왕이 유근을 명나라에 파견해 병사를 요청하게 하였다. 왕이 서행한 이후 인심이 위태롭게 여기고 의심하여 삶을 즐겁게 여기는 뜻이 없었다. (중략) 그러나 북쪽 하늘은 아득히 멀기만 하고, 도로는 막혀서 소식은 들을 수가 없어 날을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 서쪽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만 할 뿐이다.

32)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동녘, 2016, 84쪽.

위 인용은 1592년 5월 7일의 기록이다. 왕의 이동에 대한 사실은 정경운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건이다. 즉 전란에 대한 간접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서술이다. 이때 그는 왕의 서행에 대해 적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길게 탄식만 할 뿐이다’ 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그는 전란이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의 상실을 매개로 탄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간접 경험과 함께 서술한다.

이처럼 <고대일록>에서 정경운이 보여준 전란에 대한 글쓰기 양상은 삶에 대한 상실과 자아의 존재감에 대한 상실을 매개로 형성되는 부정적 감정을 보여주는 표현적 글쓰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상실에 대한 애도의 글쓰기

<고대일록>에서 정경운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전란의 모습을 상실을 매개로 하는 부정적 감정과 함께 서술한다. 그리고 이때 경험을 서술하게 하는 상실은 전란의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 혹은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나 죽음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실과 연결된다. 이러한 상실의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상실과 상실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도가 필요하다. <고대일록>에서 정경운 역시 전란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상실을 매개로 하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해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³³⁾이라는 서사 치료의 기본적인 논의에 따라, <고대일록>에서 보여주는 정경운의 상실에 대한 애도의 글쓰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두가지 유형의 상실에 대해 정경운이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애도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 혹은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매개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사건들에 대한 애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대일록>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상실에 대해 외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상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정경운이 보여준 과거(科擧)에 대한 기록과 의병으로서의 작성한 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대일록>에는 전란 중에도 꾸준히 과거에 응시하는 정경운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서원으로 갔다. 상소를 논의하고 박공간, 노지부, 노경소와 함께 길을 떠나 전주로 향했다. 앞으로 동궁에게 상소를 올리고, 또 정시에 응시하고자 한 것이다. 오늘은 운봉의 부산촌에서 숙박했다.

33) Maggie Schauer · Frank Neuner, · Thomas Elbert, *Narrative Exposure Therapy: a short-term treatment for traumatic stress disorders*, Massachusetts, USA and Göttingen, Germany : Hogrefe Publishing, 2011, p.31.

34) 크리스 바커 · 다리우시 갈라신스키, 『문화연구와 담론분석-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백선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56쪽.

비가 왔다. 나는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유생들이 겨우 100여 명이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고 재물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시험관은 이로, 고상안, 노경록이고, 시제는 조복수종묘부(朝服守宗廟賦)와 애진길료시(哀秦吉了詩)였다.

위 두 인용은 각각 1593년 12월 23일과 1594년 8월 4일의 기록이다. 두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경운 전란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과거에 응시한다. 첫 번째 인용을 살펴보면, 정경운은 상소를 올리는 것과 함께 과거에도 참여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를 통해 양반 사족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인용을 통해 전란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에 응시하는 정경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경운은 <고대일록>을 통해 전란 중에도 과거에 꾸준히 도전하는 모습에 관해 서술하며, 양반 사족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러한 정경운의 모습은 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비가 오다가 개니 바람이 어지럽게 불었다. 병으로 웅크리고 나가지 못하였다. 꿈에 문자선이 나에게 떡 세 개를 주었는데, 무슨 조짐인가? 또한 과거에 급제하는 꿈을 꾸었다. 오늘밤에 진눈깨비가 내렸다.

위 인용은 1601년 12월 16일의 기록이다. <고대일록>에는 정경운의 꿈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타난다. 이 중 1601~2년에는 주로 과거에 대한 꿈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정경운은 과거에 응시하는 경험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통해 전란 중 상실된 자기 존재감에 대해 타인에게 인정받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서술한다.

양반 사족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타인에게 드러내려는 모습은 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음, 거창의 두 고을에 통문을 보내 거의를 의논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닥친 화는 개국한 이래로 없었습니다. (중략)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받아들여 주시리라고 옳드려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

위 인용은 1592년 6월 12일의 기록이다. 정경운은 당시를 기록하며 ‘두 고을에 통문을 보내 거의를 의논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통문의 전문을 <고대일록>에 기록해 두었다. 만약 정경운이 자신이 의병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려 했다면 굳이 통문의 전문을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경운은 <고대일록>에 전란 경험을 서술하면서 자신이 쓴 통문을 인용하며, 의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정경운은 전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주는 상실감을 지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수행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즉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자신의 능력 혹은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에 관해 서술한다.

이러한 글쓰기 양상은 프로이트(S. Freud)가 <애도와 멜랑콜리>에서 언급한 ‘치유로서의

애도’에 관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상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던 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에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자아로 돌리는 정상적인 과정을 애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애도 과정을 통해 주체는 슬픔과 고통을 딛고 기운을 회복하여 다른 대상을 사랑할 준비, 즉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한다.³⁵⁾ 앞서 인용한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정경운의 과거 응시와 통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경운은 전란으로 인해 양반 사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존재감과 그로 인한 상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타인들에게 드러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실의 대상이었던 무기력한 자신을 지우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새로운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자신의 능력 혹은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한 기록이며, 궁극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한 ‘치유로서의 애도’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경운은 자기 삶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즉 전란의 상실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서술한다.

다음으로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죽음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실에 대한 애도 양상을 살펴보겠다. 정경운은 이러한 상실에 대해 ‘망각을 넘어서기 위한 기억’을 매개로 하는 글쓰기를 통해 애도해 나간다. 이는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제사와 관련된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 혹은 즐거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대일록>은 죽음과 제사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전란 중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주는 상실감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흰 이불을 짓고 죽은 딸의 염을 다시 했다. 관을 열고 딸을 보니, 슬픔이 스스로 이기기 어려웠다.

이날 밤 꿈에 죽은 딸을 보고 오랫동안 통곡하다가 잠에서 깨었는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오늘은 바로 막내딸의 초기일이다. 주과를 차려 놓고 통곡하였다.

위 세 인용은 각각 1600년 12월 1일, 1601년 1월 29일, 1601년 11월 22일의 기록이다. 정경운은 딸의 죽음에 대해 즐기 형식의 글을 <고대일록>에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줄곧 염, 꿈, 초기일과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딸의 죽음에 대한 이어지는 기록을 남긴다. 그는 <고대일록>에 딸의 죽음과 이후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며, 비록 죽은 딸이지만 잊지 않고 자신이 계속 기억하고 있는 모습에 관해 서술한다. 이러한 타인의 죽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기억하려는 글쓰기 양상은 딸뿐만 아니라, 정경운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일록>에는 다양한 주변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서술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비가 내렸다. 오늘은 곧 선군의 취일이였다. 하지만 여러 해 계속된 전염병 때문에

35) 박상수, 「애도와 멜랑콜리 연구」, 『상허학보』 Vol49, 상허학회, 2017, 114쪽.

제사에 쓸 물품을 갖추지 못했으니, 변변치 못한 물건으로써 애통한 마음을 한 번 표시할 따름이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죽음 이의 영이 그 자리에 계시는 듯이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되었으니, 슬픔 마음에 종일토록 서글펐다.

어머니의 기제사를 지냈다. 나는 나이가 근 50세가 되었으나 부모의 얼굴을 뵈는 적이 없었다. 다만 이날이 되면 추모하며 서글픈 감정이 복받치기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위 두 인용은 각각 1594년 5월 18일과 1603년 1월 29일의 기록이다.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경운은 부모님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전란으로 인해 선군의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경험을 서술한다. <고대일록>에서 정경운은 전란 중 맞이하게 되는 죽음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실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습은 아래 인용된 1600년 12월 25일의 기록인 그의 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계수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밤 꿈에 할머니와 큰아버지를 뵈었는데, 평상시 모습과 똑같았다. 깨고 보니 슬픔을 이길 수 없었다.

이처럼 정경운은 죽음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실을 마주하면서 그것에 대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애도’ 한다. 이는 데리다(J. Derrida)가 말한 ‘윤리로서의 애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친구였던 레비나스의 죽음에 대한 조사(弔詞)를 통해 죽은 사람이 남은 자의 내면에 영원히 살아 현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남은 자는 그것을 돌려주는 순간까지 책임을 상상하며 대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을 ‘융합(incorporation)’이라고 칭한다.³⁶⁾ 그리고 이 융합을 애도의 본질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는 상실의 대상을 망각하거나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대상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삶을 이어가는 것을 애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이트의 치유적 애도와는 다르게 타자성에 바탕을 둔 ‘윤리로서의 애도’라고 말한다.

<고대일록>에 유독 자주 나타나는 다양한 제사에 관한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 혹은 즐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경운은 전란 중 마주하게 되는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그와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애도한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윤리로서의 애도’를 수행하는 존재로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한다. 그리고 정경운은 자기 삶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 타자들을 애도하며 상실을 넘어서 희망의 삶의 찾아가는 모습을 서술한다.

이처럼 <고대일록>에는 상실을 매개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와 더불어, 그러한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유로서의 애도와 윤리로서의 애도에 대한 글쓰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36)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영어영문학』 Vol58 No4,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92 쪽.

4.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에 관한 글쓰기 양상에 관해 살펴 보았다. 논의를 통해 <고대일록>은 상실을 매개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와 더불어, 그것에 대해 애도하는 글쓰기를 통해 전란 중 정경운이 경험한 고난과 트라우마를 넘어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과 애도의 글쓰기」에 대한 토론문

박 성 혜(서울대학교)

이 발표문은 <고대일록>에 나타나는 전란 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자전적 서사’로 간주하고, 이 글쓰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상실의 양상’과 ‘상실에 대한 애도’로 정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발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1장에서 ‘자전적 서사’로서 <고대일록>을 파악하고, 그 글쓰기 양상에 대해 서술한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고대일록>을 자전적 서사로 간주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논의의 필요성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므로 선행연구의 평가 속에서 현재의 시각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자전적 서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고대일록>의 글쓰기 양상은 단순히 본문에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자전적 서사(자기 서사)’와도 비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 텍스트에 드러난 양상과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2. 2장에서 전란의 글쓰기 양상을 ‘상실’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대일록>에서 정경운이 보여준 전란에 대한 글쓰기 양상은 삶에 대한 상실과 자아의 존재감에 대한 상실을 매개로 형성되는 부정적 감정을 보여주는 표현적 글쓰기로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자식 상실을 사례로 들고 이를 삶에 대한 상실로 지칭하였고, ‘존재/능력에 대한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력함이 반영되었으므로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상실의 양상은 발표자께서 포착하신 텍스트의 흥미로운 지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언급한대로 인용 (37)의 경우 두 가지의 양상이 혼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식의 상실을 굳이 ‘삶에 대한 상실’이라고 추상화/일반화 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란 속에서 향촌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그에 대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상실 혹은 ‘존재감의 상실’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3장에서 지속적인 과거 응시를 자기 존재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고 이해하였는데, 상실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지속적인 과거 응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욕망이 충족되지 않거나, 무엇인가 ‘결핍’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요컨대 상실이라는 어휘가 불러일으키는 의미망과 텍스트에서 나타난 여러 양상들이 잘 결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2장에서 <고대일록>에 대한 장르적 다양성,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서술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서 다룬 ‘상실’과 층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2장을 분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3장은 ‘상실에 대한’ 애도 ‘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상실에 대한 애도라고 한다면

흔히 상실이 먼저 있고, 이에 대한 사후적인 반응으로서 상실에 대한 애도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애도에 대한 설명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진행됩니다(각주 34번, 각주 35번). 그런데 인용된 본문의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배치된 애도가 2장에서 말한 상실보다 더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2장에서 말한 상실이 더욱 상세하게 서술되거나 혹은 '상실-애도'의 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4. 개인적으로 인용해주신 본문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정경운은 전란 중에 꾸준히 글을 기록하였을까. 가족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아픔을 왜 즐기 형식으로 기록하였을까. 그 마음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글쓰기는 정경운에게 어떤 기능을 했을까. 왜 향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임금이 도망가는 전란 상황에서 정경운은 꾸준히 과거에 응시하였을까. 어떤 생각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을까. 정말 과거에 붙으려는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가문이나 향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정체성이 과거 응시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응시한 것일까. 아니면 전란의 장기화되었지만 그 피해가 함양에 와 닿지 않아서였을까. 정경운은 가문의 어른들의 글이 사후에 수집되어 간행되는 당대의 문화적 관습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정말 자신만 읽으려고 이 글을 쓴 것일까. 예상되는 잠재 독자는 누구였을까. 등 다양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과 같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에 더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발표자께서 정경운의 <고대일록>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오독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강호가사가 그리고 있는 유가적 이상세계와 희망

- 趙聖臣의 〈皆巖亭歌〉를 중심으로 -

윤 지 아(안동대학교)

차례

1. 들어가며
2. 조선 후기 지역 학맥의 분화와 유교 공동체의 미시화
3. 조성신의 〈개암정가〉에 나타난 유가적 이상세계
4. 나가며

1. 들어가며

본 발표문에서는 조성신(趙聖臣, 1765~1835)의 〈皆巖亭歌〉를 통해 조선 후기 강호가사에 나타난 유가적 이상세계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 해당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 영역인 조선 후기의 강호가사는 ‘江湖歌道の唱導’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받았던 조선 전기 강호가사에 비한다면,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아주 낯선 영역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강호가사가 그간 연구사에서 소외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전 시기 작품과 비교했을 때 작품 담당층부터 미의식까지 딱히 이렇다 할 변곡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 듯하다. 물론 조선 중·후기를 거치며 강호가사의 주요 작가군인 향촌사족 계층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에 따른 특기할만한 차이가 작품에서 발견되기 보다는, 오히려 재래의 관성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다룰 조성신의 〈개암정가〉와 같은 작품은 조선 전기 강호가사에 나타난 유가적 이상향의 표현을 답습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작품이다.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강호가사는 이상세계를 향한 당대 사대부들의 열망과 맞닿아있다. 범세계적으로 이상세계, 즉 유토피아에 대한 관념은 문학 창작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고방식, 정신적 경향, 철학적 태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학적 유토피아는 단순한 공상일 수도 있고, 바람직한 사회나 못마땅한 사회에 관한 묘사이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 경고, 현실에 대한 대안, 혹은 달성해야 할 모델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문학은 유토피아적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삶이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회적 역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기본적으로 유토피아니즘은 희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³⁷⁾ 강호가사 또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의 문학적 실현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37) 이상 유토피아에 관련한 내용은 라이먼 타워 사전트, 『유토피아니즘』, 교유서가, 2018, 10~21면.

이처럼 현실 세계의 고통이 없는 낙원에 대한 갈망은 동·서양 문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 지향은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내세관에 강하게 견인되어 있는 서양에 비해, 동양의 유토피아는 현세지향적인 면모가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실 동양사유에서 유토피아는 사상에 따라,³⁸⁾ 혹은 그 존재 동인과 형태에 따라³⁹⁾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현실 세계와 조응하였다. 조선의 경우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토대로, 이러한 이상향들은 주로 문학과 예술의 모티프로 기능하였다. 탈속적 이상향의 전범이었던 무릉도원(武陵桃源), 소상팔경(瀟湘八景) 등의 모티프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애호되었고, 문인들은 그 속을 호황히 유영하였던 어부, 초부 등의 ‘심미적 대리인을 조형’⁴⁰⁾하여 시(詩)·화(畫)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또한 시선(詩仙) 이백(李白, 701~762)의 풍류나 소식(蘇軾, 1037~1101)의 적벽유람 등이 문인 풍류의 극치로 찬미되면서, 이들 작품에 나타난 신선 체험을 모방하고자 하는 것이 사대부 일반의 미적 취향이었다. 강호가사 또한 이러한 문화적 욕망 하에 출현한 것으로, 작가들은 자신이 밭 딛고 서 있는 강호자연 속에서 상기한 이상향들과 조우하기를 염원하였다.

이와 같은 욕망이 구체적인 실경 공간으로 표현된 것이 조선 전기의 원림(園林)이다. 여기에서 원림은 누정(樓亭), 정사(精舍) 등을 포함한 것으로, 대개 향촌에 건립되어 문사들의 계획, 시회 등이 열리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원림은 원림을 경영하는 주인만의 독립된 미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정신세계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했으므로,⁴¹⁾ 이들이 문학으로 표현한 강호자연은 문인들의 집단 의식을 반영한다. 후대 강호가사의 전범으로 자리하게 된 조선 전기의 〈면양정가〉, 〈성산별곡〉와 같은 작품들은 각각 면양정, 식영정 원림을 기반으로 하였고, 주지하듯 두 원림은 이 시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창작 산실로 계산풍류(溪山風流)의 시초가 되었다.⁴²⁾ 한편, 서울에서는 은일 문화의 거점으로 한강 유역이 대두되었다. 문인들은 이곳에서 선유(船遊)를 즐기며 고사에 등장하는 강거(江居)의 이상적 양태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마포 서강을 배경으로 한 〈서호별곡〉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대표하는 예시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 강호가사는 이상향에 대한 사대부 보편의 욕구를 투영한 원림 및 선유문화 안에서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강호가사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대로, 조선 후기의 작품들은 조선 전기의 미적 지향, 시적 표현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관습화된 어법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이상세계를 그려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습화된 표현에만 천착하여 작품을 살펴본다면, 작품이 놓인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크게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이상세계 또한 동일한 표현의 차원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해당 작품이 당대의 역사, 사회적 환경과의 조응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전 작품의 세계

38) 사상적으로는 유교의 대동(大同), 도교의 도원(桃園), 불교의 도솔천(兜率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陳正炎,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9.

39) 선행연구에서는 현실불만의 해결방안, 이상사회의 설정위치, 이상사회의 실현주체 등의 항목 등을 고려하여 유토피아의 유형을 ①山海經型 ②武陵桃源型 ③三神山型 ④大同社會型 으로 구분한 바 있다. 李鍾殷·尹錫山·鄭珉·鄭在書·朴永浩·金應煥, 『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 意識 研究』, 『동아시아문화연구』 2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383면.

40)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소명출판, 2002, 12면.

41)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보고서, 2004.

42) 계산풍류(溪山風流)의 개념은 임형택,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람층과 송순의 시세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와 같은 책의 「17세기 전후 六歌形式의 발전과 시조문학」에 자세히 다룬다.

관과 전적으로 균질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조선 후기 강호가사의 창작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성신의 〈개암정가〉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경북 영양의 향촌 사족으로서 조성신은 문재가 뛰어났던 인물로, 안타깝게도 32세(1796)에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인물이다. 이후 그는 주로 향촌 안에서의 교유,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생애를 보냈으며, 〈개암정가〉 뿐 아니라 국문가사 〈도산별곡〉 등을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암정가〉는 작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의 영화로운 모습을 상상해서 썼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로부터 이어져오는 강호가사의 문학적 흐름을 이어받는 동시에, 작가 개인이 소망하고 있었던 이상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장절에서는 조선조 강호가사의 주요 작가층이었던 향촌 사족들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어떠한 역사,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작가 조성신 개인의 생애 및 사회적 위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그의 강호가사 〈개암정가〉를 검토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가늠해볼 것이다.

2. 조선 후기 지역 학맥의 분화와 유교 공동체의 미시화⁴³⁾

조선 중기까지 향촌 사족들의 거향관은 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향촌 사회 내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향권(鄕權)을 수령에게 점차 빼앗기게 된다. 이제 거향의 문제는 관과의 문제보다는 가문 간, 즉 이웃과의 문제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거향에 관한 윤리가 가훈의 일부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향(一鄕) 범위에서의 사족의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거주 촌락을 단위로 한 지배만이 가능했던 것이다.⁴⁴⁾

이처럼 향촌 사족들의 힘이 약화된 것은 이들이 중앙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심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경화 별열이나 외척가문에 권력과 관직이 독점되면서, 향촌에 세거하였던 사족들에게는 출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 분기 현상의 배경에는 과거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과거 응시가 용이하고 기회가 많았던 서울 및 근기지역의 유생들의 관직 진출이 더욱 유리했던 것은 물론, 과거 응시와 관련한 제반 문화에서도 경·향 간의 격차가 나타났다. 조선조의 과거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학(經學)을 시험하는 강경(講經) 과목과 사장(詞章)을 시험하는 제술(製述) 과목의 출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결국 숙종 대 말에는 명경과(明經科)와 제술과(製述科)로 완전히 이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경에 강점이 있었던 향유(鄕儒)들과 제술에 뛰어났던 경유(京儒)들의 수험 전략과 응시 경향 역시 이원화 되면서 이들 간의 문화적인 격차가 생겨나게 된다.⁴⁵⁾

㉠ 영남(嶺南)에 여씨(呂氏)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그는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한 뒤에 호서도사(湖西都事)가 되었다. 어느 날 여러 기생들을 데리

43) 본 절은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13~117면의 내용을 일부 요약·수정함 것이다.

44) 김인걸, 「조선 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居鄕觀) 변화」,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45)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고 뱃놀이를 나갔다. 배가 백마강(白馬江) 중류에 이르렀을 때 여러 기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말한다.“참 아름답구나. 옛 나라의 풍경이여!” 이 말을 듣자 기생 하나가 말한다. “외국 사신들도 이곳에 오면 옛 회포를 느끼고 시를 짓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좋은 놀이에 어찌 시 한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씨는 사실 시에 능숙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생에게 치소를 받을까 걱정하여 시를 지어 보려고 얼마 동안 수염을 비비면서 글 생각에 골몰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여씨는 겨우 글 두 귀밖에 짓지 못했다. 여씨는 하는 수 없이 글 두 귀를 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큰 소리로 읊으면서 기생들을 향하여 그 글 내용을 해석해준다. “생각건대 옛날 놀던 땅에 음탕한 짓으로 나라는 망했건만 이것은 강산 경치 좋은 때문일 뿐 의자왕을 죄 줄 것은 없네[憶昔曾遊地 淫泆國雖亡 江山如此好 無罪義慈王]”이 글 뜻은 말할 것도 없이 옛날에 백제왕이 놀던 곳을 생각해 보니 음탕한 짓으로 인연해서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강산의 풍경이 그림같이 좋았던 때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놀았기 때문일 뿐, 결코 의자왕의 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이 글을 보고 웃지 않는 자가 없다. 아아, 저 명경과에 뽑힌 자로서 소견이 겨우 이것뿐이고 보니, 당시 국가에서 인재를 취한 효과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⁴⁶⁾

홍만중(洪萬鍾, 1643~1725)의 『순오지』에 실린 위 글은 당시 향유(鄕儒)들이 주로 선발되었던 명경과 출신 문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은 명경과 급제 후 호서도사로 부임한 영남 출신 여씨라는 선비의 웃지 못할 사연을 소개한다. 명승을 유람하기 적당하였을 어느 좋은 날을 골라, 여씨는 여러 기생을 데리고 호서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부여 백마강으로 뱃놀이를 나간다. 강 중류에 뱃전이 다다르자, 그 경관의 아름다움에 기생이 시를 칭하였고, 평소 시를 잘 짓지 못하는 여씨는 난감해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배를 띄워 두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겨우 두 귀절을 써낸 것도 애잔하지만, 심지어 그 내용은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망국지경을 만든 혼군(昏君) 의자왕을 뜻밖에 옹호해버리는 의미를 담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낸다. 이 글을 통해 홍만중은 명경과에 뽑힌 자의 소견이 겨우 이것뿐이라며, 경전을 암기하여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의 하잘것없는 교양 수준을 개탄하고 있다. 이처럼 경학에 능했던 향유들은 사장을 어려워하였고, 반대로 사장에 능했던 경유들은 경학에 대한 이해가 얕았다. 위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과거제의 이원화는 ‘경유(京儒)-향유(鄕儒)’ 간의 문화적 차이의 심화와 집단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유들의 눈에 향유는 문제가 없고 그저 경전을 구송할 줄 아는 집단으로, 향유들의 눈에 경유들은 문장으로 벼슬자리를 구걸하러 다니는 집단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격차는 조선 후기 경화 벌열과 세도정권의 대두로 고급 관직에서 경·향간의 현격한 차이로 이어진다. 과거에 합격하여도 고위 관직에 진출하려면 중앙의 문화와 인맥에 친숙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향유가 중앙에서 요직을 역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으며, 더불어 중앙에 기댈 세력이 없는 향촌 사족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향촌 문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향촌 사회 내부에서 찾고자 하였다. 거향을 택하는 문인들이 늘어나면서 당대 대유(大儒)들의 문도(門徒)들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학맥이 발달하였던 영남의 경우, 17~18세기 전반기까지는 한 학자의 문인록에 등재된 선비의 수가 많아야 300명 정도였다면, 18~19세기에 이르러는 700명을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⁴⁷⁾

46) 이민수, 『旬五志』, 乙酉文化社, 1971, 125~126면의 번역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

학맥의 체계 또한 퇴계의 직전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파의 분열 조짐이 있었던 조선 중기에서 심화되어, 이제는 학파뿐 아니라 가학(家學)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㉔ 우리나라에서 莊墅의 아름다움은 오직 영남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당시에 禍厄을 당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으나, 그 존귀하고 부유함은 쇠하지 않았다. 그들의 풍속은 가문마다 각각 한 조상을 추대하여 한 터전을 점유하고서 일가들이 모여 살아 흠어지지 않는데, 이 때문에 조상의 업적을 공고하게 유지하여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가령 眞城 李氏는 퇴계를 추대하여 陶山을 점유하였고, 豊山 柳氏는 西厓를 추대하여 河回를 점유하였고, 義城 金氏는 鶴峯을 추대하여 川前을 점유하였고, 安東 權氏는 沖齋를 추대하여 鷄谷을 점유하였고, 慶州 金氏는 開岳을 추대하여 虎坪을 점유하였고, 豊山 金氏는 鶴沙를 추대하여 五峯을 점유하였고, 禮安 金氏는 柏巖을 추대하여 鶴亭을 점유하였고, 韓山 李氏는 大山을 추대하여 蘇湖를 점유하였고, 廣州 李氏는 石田을 추대하여 石田을 점유하였고, 驪州 李氏는 晦齋 李彦迪을 추대하여 玉山을 점유하였고, 嫡派는 楊子谷을 점유하였다. 仁同 張氏는 旅軒을 추대하여 玉山을 점유하였고, 晉陽 鄭氏는 愚伏을 추대하여 愚山을 점유하였고, 全州 崔氏는 認齋를 추대하여 海平을 점유한 것 등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⁴⁸⁾

위의 인용문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이증환의 『택리지』에 붙인 발문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촌락-가문-학맥이 하나로 결합되었던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 중기에도 가문을 중심으로 한 결집 양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지역적 원근과는 무관하게 ‘부계 종족의 혈연적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성격 자체도 아주 폐쇄적이지는 않았다.⁴⁹⁾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4대봉사와 불천위 제사, 족보 제작, 동성마을 형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중이나 문중의 질서⁵⁰⁾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향촌 사회는 더욱 미시적인 유교 공동체로 분화된다. 위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듯, 퇴계의 가문인 진성 이씨는 도산, 서애의 가문인 풍산 유씨는 하회 등 동일한 안동지역 내에서도 가문-학맥을 기준으로 거주 촌락이 달리 나타났으며, 세거를 통해 촌락을 ‘점유’ 즉, 촌락을 대표하는 문화귀족으로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동성마을은 대개 족보상 소종(小宗)으로서, 저명한 유학자들을 새로운 시조로 선정하여 그로부터 계보화가 이루어진 하위 분파이다. 분파의 출발점 자체가 학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가학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 분파들은 독립된 존재로 발전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대중을 능가하기도 하였고, 이로부터 분파 간 세력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향촌 문인들은 완숙한 유교 문화가 향촌 사회의 미시적인 영역까지 침투하였던 상황에서, 일가(一家)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

47) 남재주, 『조선 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2019, 24~25면의 표 참조.

48) “國中莊墅之美, 唯嶺南爲最, 故士大夫陋於時數百年, 而其尊富不衰. 其俗家各戴一祖占一莊, 族居而不散處, 所以維持鞏固, 而根本不拔也. 如李氏戴退溪占陶山, 柳氏戴西崖占河回, 金氏戴鶴峯占川前, 權氏戴沖齋占鷄谷, 金氏戴開岳占虎坪, 金氏戴鶴沙占五峯, 金氏戴柏巖占鶴亭, 李氏戴存齋占葛山, 李氏戴大山占蘇湖, 李氏戴石田占石田, 李氏戴晦齋占玉山, 適派占楊子谷, 張氏戴旅軒占玉山, 鄭氏戴愚伏占愚山, 崔氏戴認齋占海平之類, 不可勝數.” 丁若鏞, 『跋擇里志』, 『茶山詩文集』 卷14

49)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안동 지역의 유력가였던 광산 김씨의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박종천, 「조선 시대 예안 광산 김씨의 친족활동-계획과 성회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50) 박종천, 앞의 논문.

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출사가 불가능했던 현실적인 이유와 맞물려 이들이 자연스럽게 거향의 길을 걷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 향촌 문인들의 출사에 대한 태도는 조선 중기와는 사뭇 달랐다. 조선 중기의 작가들은 주어진 현실을 난세로 인식하고 자신의 은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촌을 ‘선택’ 하였다. 이때의 향촌 문인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문인 교유에는 여전히 중앙 관직과 친화적인 시선, 즉 문학장을 통한 활동을 발판 삼아 언젠가 중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조금이나마 개재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 중기의 향촌 문인들은 거향 처신에 신경 쓰면서 함께 교유할 만한 인물을 신중히 가렸으며, 유학자로서 덕망이 높은 학자를 종유(從遊)하거나 함께 학문을 이야기할 만한 문인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조선 중기의 향촌 문인들은 재야의 유학자로서 조정에서 거명되거나 혹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치자(治者)로서의 예비적 상황에 대한 기대와,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 사이 어디쯤에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작가들이 ‘세상을 잘못 만난 운명’을 한탄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어졌는데, 이로 보아 중앙 관직 출사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은일의 고상함을 드러냄으로써 가문의식이 심화되어가고 있었던 향촌 내부에서 자신의 가문을 현창 및 연출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생각된다. 즉 문학장의 중심이 당장의 실질적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주 지역, 가문 공동체 등지로 이동하며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문·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문인들은 저명한 학자 내지 미처 추송되지 못하였던 절의지사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자신이 속한 가문과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조선 후기 강호가사는 이와 같은 문학장에서 탄생하였다. 조성신의 〈개암정가〉 또한 작가가 위치해 있었던 역사,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작가 조성신의 개인 생애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미시화된 유교 공동체가 문학적 이상세계의 한 단면으로 나타난 그의 〈개암정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3. 조성신의 〈개암정가〉에 나타난 유가적 이상세계⁵¹⁾

조성신(趙聖臣, 1765~1835)은 한양 조씨로, 자는 종진(宗鎭), 호는 염와(恬窩)이다. 증조부는 조시벽(趙是璧, 1670~1753)이며 조부 조겸규(趙謙圭)는 학덕이 높았다고 전한다. 조성신은 아버지 조상순(趙尙純)과 어머니 고창(高敞) 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대대로 서울에 살며 관료문인을 배출하였던 집안이었지만, 사화로 화를 입고 그의 선조 조원(趙源, 1511~?)대부터 경북 영양에 내려와 살았다. 조성신은 문재가 뛰어났는데, 특히 글씨를 매우 잘 썼다고 한다. 그의 나이 27세가 되던 해(1792) 도산(陶山) 별과가 시행되어 도내의 거자들이 모두 나와 재주를 다투었다. 여기에서 조성신은 가장 젊은 나이로 합격했는데 남들이 모두 탄복하고 부러워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2세(1796)에 양 눈에 백막이 덮여 끝내 시력을 잃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앞을 못보게 된 조성신은 그 울울한 심사를 문학으로 해소하였다. 평소에 지나다니던 산천 경치를 시에 나타내기도 하였고, 도산 별시 때의 광경과 감회를 노래

51) 본 절은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7~136면의 내용을 일부 요약·수정한 것이다.

한 국문가사 〈도산별곡〉을 짓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인과 어린아이들도 다 전해가면서 외웠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평생 향촌의 선비로 살다 71세로 생을 마감한다.⁵²⁾

조성신의 교유 관계는 대부분 한양 조씨 문중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정컨대, 젊은 날에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양한 교분 관계를 쌓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교유하였던 문중 인물들 중 특히 마암(磨岩) 조진도(趙進道, 1724~1788), 만곡(晩谷) 조술도(趙述道, 1729~1803) 형제는 영남에서 한양 조씨의 가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그들의 세거지였던 영양 주실마을의 위상을 높였다. 18세기부터 영양 주실에 세거하였던 한양 조씨는 18세기 중엽 이후 중앙 관직으로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울에 인맥이 있어 종종 서울에 출입하였으며, 향촌 사회 내에서의 영향력도 결코 작지 않았다. 즉, 이들은 정계 진출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무리하여 시도하지 않고 향촌 유학자로서의 명성과 가학을 다지는 일에 힘썼던 성씨 집단으로 이해된다. 영양 주실을 거점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문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자체들을 교육시킬 장소가 절실해지자, 조운도는 1764년에 월록서당(月麓書堂)을 설립하여 가학의 공간으로 삼았다. 이 월록서당은 19세기까지 한양 조씨의 가학의 산실로서 영양을 대표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다.⁵³⁾

조성신의 〈개암정가〉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후기 이후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온 문화코드들로 이루어져 있’⁵⁴⁾다고 언급되었다. 타당한 분석이나,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관습적인 부분 이면에 놓인 작가의 현실, 즉 당대 지역 문학장의 현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암정가〉는 1801년 개암정 중건 시기에 지어졌으며, 중건 당시의 상황이 조술도의 〈개암정중건기〉에 잘 나타난다.

㉔ 일월산의 물이 서남쪽으로 흘러 입암 앞에서 합쳐지는데, 그 위로 천 길 높이의 석벽이 있어 맑은 물이 그 북판으로 쏟아진다. 긴 언덕이 끊어져 있는 곳 시냇가에 정자가 하나 있으니, 내 족형 개암공이 지은 것이다. 개암공은 풍채가 멀쑥하고 흰하며 그릇이 넓고 호탕하였는데, 재주가 있었음에도 세상의 지우(知遇)를 입지 못하였다. 만년에는 입암 푸른 벽의 좋은 경치를 사랑하여 그 가운데에 집을 짓고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서 아침저녁으로 노닐었다. 시내와 산, 구름과 달을 집으로 삼고 산과 들의 노인을 벗으로 삼았는데, 그 모습이 학처럼 여위었다. 지사 홍성(洪晟)이 이곳에 들러 정자에 이름을 짓고 시로써 뜻을 읊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정자가 텅 비어 마침내 주인이 없어졌으니, 새삼과 귀리에 이슬이 내려앉고 연기가 피어오를 뿐이었다. 신유년(1801)에 나이 여든넷인 공의 큰아들 첨추옹 거이(居易)가 여러 아우 및 자손들과 함께 논의하기를, “우리가 불초하여 선인의 헤진 집이 남아 있음을 보고서도 아침저녁으로 간수하지 못하였다. 우리 집과 너희 집은 정자와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다. 다만 아우 한 명이 정자 근처에 살고 있기는 하나, 병으로 인해 집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가 늙어 죽지 않은 이상 어찌 옮길 것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하고, 마침내 살던 땅 탑구(塔丘)에 마주한 부용봉 산기슭에 터를 잡았다.(하략)⁵⁵⁾

52) 이상 생애에 관한 서술은 許薰, 「恬窩趙公行狀」, 『舫山先生文集』 22. 그리고 영양군에서 발행한 디지털 『영양군지』(<https://www.yyg.go.kr/yygunji>) 등을 참고하였다.

5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양 주실 마을』, 예문서원, 2001.

54) 박연호, 「〈개암정가〉의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2.

55) “日月山之水西南流, 合于立巖之前, 其上石壁千丈, 清流瀉其腹, 有長阜斗斷, 臨溪而亭者, 吾族兄皆巖公之所築也. 皆巖公風神蕭朗, 器宇曠蕩, 有才不遇於世. 晚年愛立巖蒼壁之勝, 寘屋於其中, 鳩杖芒鞋, 日夕相羊. 以溪山雲月爲第宅, 山翁野叟爲朋徒, 其形鶴癯如也. 洪知事晟過而名之, 詩以賦志. 公既

위 단락은 개암정 중건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평생 은일처사로 살았던 선조 조일도(趙一道, 1695~1755)를 기리고 그 아름다운 유풍을 보전하고자 하였던 후손들의 의지에 따라 정자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부용봉으로 이건(移建)되었다. 정자가 증건된 1801년은 조일도가 세상을 떠난 후 대략 45년이 지난 시기로, 이때 조성신은 36세였다. 이미 시력을 잃은 지 3년 정도 된 시점이다. 따라서 조성신의 〈개암정가〉는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감각 내지 체험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 조술도가 찬술한 〈개암정중건기〉 등과 같이 문중 어른들의 이야기 및 기억을 참조하여, 정자 주인 조일도를 추모하고 뜻을 모아 정자를 증건한 그의 후손들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이다. 본 작품이 전체적으로 관습적 표현으로 치우친 데에는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그의 가사 〈도산별곡〉은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외워서 불렀을 정도로 동네와 문중에 잘 알려진 작품이다. 조성신은 이미 국문시가의 창작으로 향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성신은 가문 공동체의 뜻깊은 일을 축하하는 국문시가를 짓는 일에 구성원 대표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개암정가〉 원전은 이 작품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한 이동영의 입력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⁵⁶⁾

〈개암정가〉 전체 내용을 단락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15행: 개암정 가는 길의 아름다움과 개암정 주인의 선인(仙人) 품모 칭송
- ② 16~32행: 개암정 주변의 빼어난 산경(山景)
- ③ 33~44행: 개암정 주변의 빼어난 수경(水景)
- ④ 45~60행: 개암정 주변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
- ⑤ 61~75행: 문중회 모임의 풍류를 칭송하며 꿈에서 깬

일견 강호가사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듯한 위 작품은, 작가가 시력을 잃은 이후 창작하였다는 점, 그리고 정자의 주인이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된 상황에서 시·공간뿐 아니라 정자 주인의 풍채까지 모두 다 상상하여 썼다는 점에서 그 표현의 개성 없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이 작품은 조성신 입장에서는 큰아버지꼴 되는 문중 어른들의 기록과 기억을 가사문학으로 재구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개암정가〉는 지금껏 살펴보았던 여타 강호가사와는 변별되는 창작 환경을 갖는다. 구조뿐 아니라 어휘 및 표현의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강호를 형상화하는 관습적인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처럼 독특한 창작 환경을 감안하여 작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청춘(靑春)의 병이 들어 공산(空山)에 누엇더니
 일편(一片) 잔몽(殘夢)에 호접(蝴蝶)의 나래 빌어
 장풍(長風)을 경마 들고 남포(南浦)로 내려가니

沒亭空，而遂無主人矣，兔葵燕麥，露壓煙啼。歲辛酉，公之長子僉樞翁居易，年八十四，與群弟及子孫，謀曰：‘吾等不肖，顧先人之弊廬在，而不能朝夕看守。吾家與而家距亭間，獨一弟雖寓亭傍，病不能出門，迨吾老不死，盍謀所以移之？’乃卜宅於所居地塔丘對面芙蓉峯之趾。”趙述道，「皆巖亭重建記」，《晚谷先生文集》10

56) 이동영, 『歌辭文學論攷』, 형설출판사, 1977, 200~202면.

초선도(招仙島)가 어디메뇨 개암정(皆巖亭) 여기로다
 어쥬(漁舟)를 흠어타고 백구(白鷗)의 길을 물어
 구비 구비 도라드니 슈석(水石)도 명려(明麗)하다
 계변(溪邊)의 누은 돌은 석국(石局)이 버러잇고
 석간(石澗)의 솟은 물에 박잔(朴盞)이 띄여잇다
 등라(藤蘿)를 후려잡고 석국(石局)을 디디 발바
 운창(雲窓)을 빗비 열고 쥬인녕감 배읍(拜揖)하니
 확삭(矍鑠)홀사 선풍도골(仙風道骨) 거록홀사 수고강녕(壽考康寧)
 세 가지 상테화(常棣花)는 춘당(春堂)이 흠씩 놀고
 오색의 영아희(嬰兒戲)는 노래자(老萊子)를 부럴소나



그림 7 초선도(招仙島)
 (영양군 홈페이지 <https://www.yg.go.kr>)

작품의 서두는 ‘꿈’을 통해 개암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못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과는 변별된 창작 환경을 암시한다. 화자는 장자의 호접지몽(蝴蝶之夢) 고사를 활용하여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작품을 시작한다. 이는 지금은 고인이 된 정자 주인의 자취를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상기하는,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인 한편, 앞을 보지 못하는 화자가 취할 수 있는 세계 체험 방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입몽을 통해 개암정으로 향하는 화자의 태도는 주마간산 식의 경관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배를 타고 백구에게 길을 물어 굽이굽이 돌아드는 강을 지나, 등나무를 휘어잡고 강변에 바둑판처럼 놓인 돌들을 하나씩 디디어 밟아 주인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그저 꿈으로 그려본 한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생동감이 있다. 즉 화자는 꿈이라는 상상적 상황을 통해 마음껏 소요하고 음영할 수 있는 체험의 영역으로서의 강호 공간을 그리고 있다. 시력은 잃은 후 울울한 심사를 문학으로 풀어내었던 작가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개인적 욕망의 투영은 당연한 것이다.

초선도(招仙島)는 현재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에 있는 하중도로, 세 하천이 만나 유수의 작용으로 산지가 절개되어 섬처럼 남아 있게 된 곳이다. 이곳에 위치하였던 개암정은 1801년 바로 맞은편 부용봉으로 옮겨진다. 작품은 우선 개암정이 원래 위치하고 있던 탐구, 초선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오래 전 세상을 뜬 정자 주인 조일도가 평생을 거하였던 곳이 바로 초선도였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가 개암정에 도착하여 마주한 주인 영감 조일도의 모습은 〈개암정중건기〉에 묘사된 것과 같이 신선의 풍모에 가깝다. 수고강령(壽考康寧)이라는 표현은 장수와 건강을 비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우애가 좋은 형제를 비유하는 상체화(常棣花) 그리고 노래자(老萊子) 고사는 조일도의 자손들이 화목하고 효성스러움을 의미한다. 위 대목에서는 개암정 주인의 풍류 뿐 아니라 자녀들의 효심까지 같이 칭찬하면서, 개암정을 중수하고 또 이를 기념하여 한 데 모인 자녀들의 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금슬(琴瑟) 시서(詩書)는 안상(案上)의 둘러잇고
 옥슈(玉樹) 방난(芳蘭)은 정전(庭前)의 버러잇다
 한현(寒暄)을 맞친 후에 헌힘(軒檻)의 비겨 안즈
 원근(遠近) 산천(山川)을 일안(一眼)의 구버보니
 동취병(東翠屏) 서취병(西翠屏)은 봉만(峰巒)도 슈려(秀麗)하고
 기암(奇巖) 괴석(怪石)은 천학(千壑)도 괴절(奇絶)하다

일월산(日月山) 일지맥(一支脈)은 남록(南鹿)으로 뛰어나려
 곡곡(曲曲) 룡반(龍盤)하고 준준(蹲蹲) 호거(虎踞)하여
 청산벽계(靑山碧溪) 구비 구비 백리(百里)의 연했거늘
 외로이 부용봉(芙蓉峰)만 무산 닐로 독립(獨立)하여
 버러 훗터 잘나져서 학(鶴)의 나래 솟았는 듯
 슈충대(輸忠臺) 내려안주 요조동락(窈窕童濯) 터이 되니
 좌우제산(左右諸山) 모든 봉(峰)이 너를 위해 삼겼던가

위 인용문 또한 마찬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거문고와 비파, 그리고 서책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책상은 생전 학덕을 쌓는 데 골몰했던 조일도의 유학자적 풍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뜰에 늘어서 있는 영민한 자녀들의 모습을 표현하여, 중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손들의 아름다운 모임을 나타내었다. 정답게 안부 인사를 건넨 후, 정자 위 난간에 걸터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동, 서로 병풍처럼 둘러 쳐 있는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빛어내는 절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강호가사에 활용되는 전형적인 풍수지리적 묘사이다. 이처럼 눈앞에 펼쳐진 일월산(日月山)은 마치 구불구불한 용이 도사리고 있는 듯, 위풍당당한 범이 웅크리고 있는 듯, 그 산세의 비범함을 비할 데 없다. 이와 같은 산맥에서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용봉(芙蓉峰)은 펼쳐져 있던 산맥의 흐름을 잘라, 마치 학의 날개가 우뚝 솟은 것과 같이 서 있는데, 산 주위에 트여있는 평지가 있어 정자를 지을 만한 터가 되어있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에 관한 진술은 〈개암정중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정자를 옮기게 된 경위와 건축 과정, 그리고 주변의 구체적인 품물의 나열이 주를 이룰 뿐이다. 즉, 위 부분은 새로 지은 정자의 위치가 풍수지리적 명당임을 가사의 창작 관습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개암정중건기〉에서 미진하게 표현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창작은 강호가사의 전범인 〈면양정가〉로부터 이어져 온 창작 관습을 계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3] 산경(山景)은 이러하니 슈세(水勢)난 엇더턴고
 약산당(葯山堂) 동변슈(東邊水)와 서석정(瑞石亭) 서변슈(西邊水)와
 남북(南北)의 흐른 물이 함께 모여 드는지라
 황시 여흘 우러오고 병풍(屏風) 바위 도라들어
 만장창벽(萬丈蒼壁) 세트리고 양슈합금(兩水合襟) 쏘이되니
 은홍(銀虹)이 들었는듯
 석판(石板)의 흐른 물은 들오는 곳 보건만는
 징담(澄潭)의 갇힌 물은 나가는 곳 못볼너라
 람경대(攬景臺)와 화개산(華蓋山)은 팔경(八景)을 도와 잇고
 서호암(西湖岩) 봉람호(鳳覽湖)는 슈문(水門)을 잠과스니
 식식(色色) 풍경과 층층(層層) 슈석은
 말로다 뉘 전하며 아니 보아 어이아리

산경의 서술 이후 수세를 서술하고 있다. 약산당(葯山堂) 서석정(瑞石亭)은 모두 한양 조씨 인물들이 지은 것으로. 이 동네가 한양 조씨들의 세거지임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동서남북

으로 흐르는 물이 마치 옷깃을 한 데 여민 것과 같이 모여 연못이 되고, 이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은무지개로 표현하였다. 흐른 물이 들어오는 곳은 보이지만, 갇힌 물이 나아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풍수의 관점에서 좋은 입지에 해당한다. 남경대(攬景臺), 화개산(華蓋山), 서호암(西湖岩), 봉람호(鳳覽湖) 등은 모두 개암정 주변의 풍광에 나름대로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산과 호수에 관습적으로 붙는 명명이다. 이처럼 말로 다 전하기 어려울 만큼 개암정 주변의 풍경은 이법과 조화가 잘 구현된 풍수지리적 요지이며, 이상세계의 기본적 조건을 갖춘 곳이다.

[4] 금파(金波)의 야정(夜靜)하니 쥐노나니 금잉어오
 경사(鏡沙)의 계월(掛月)하니 잠조는게 백구(白鷗)로다
 남북촌(南北村) 모든 집과 상하촌(上下村) 너른 들은
 벽전(壁前)의 암암하니 가지가지 괴경(奇景)일다
 몽글몽글 저녁 연기(烟氣) 동정호(洞庭湖)의 피어나고
 아른아른 시벽 별은 은하열슈(銀河列宿) 썩 듯앗다
 계명구폐(鷄鳴狗吠) 자자스니 태평성대(太平盛代) 기상(氣象)이오
 어가목적(漁歌牧笛) 화답(和答)하니 여강구(如康衢) 풍화(風化)로다
 연적봉(硯滴峰)의 날이 지니 도로행인(道路行人) 도르가고
 비파담(琵琶潭)의 달이 뜨니 강촌어화(江村漁火) 내려간다
 무심출슈(無心出岵) 저 구름은 너는 어이 썩이시며
 천비지환(天飛地環) 이 새들아 너는 어이 나뉘든고
 조운모우(朝雲春雨) 만만상(萬萬象)과 춘화추엽(春花秋葉) 물물흥(物物興)은
 어나 아니 뉘 츄지며 아니 아니 뉘 무를고
 천간지비(天慳地秘) 이런 곳에 선인페려(先人蔽廬) 옮겨두고
 효조효손(孝子孝孫) 그 아니며 긍구궁당(肯構肯堂) 비치렀다
 층층물식(層層物色) 다 던지고 일당성회(一堂盛會) 더욱 도타
 십팔군선(十八群仙) 모힌 곳에 남극성(南極星) 비취엿다

이어지는 내용은 개암정에서 본 저녁 풍경이다. 어두운 강가에 금잉어가 뛰노는 모습과, 백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저녁이 주는 고즈넉한 분위기 가운데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그리고 황혼 무렵 해가 누엿누엿 지는 광경은 유가에서 그려낸 전형적인 태평성대 이미지이다. 이는 이어지는 심상에서 더욱 심화된다. 밤이 다가오자 은하수와 이십팔수(二十八宿)의 별자리가 떠오른다. 닭의 울음소리와 개 짓는 소리는 평화로움을 더하고, 이에 화답하는 목적의 은은함은 더더욱 태평성대의 풍류를 고양시킨다. 이처럼 개암정을 둘러싼 풍경은 아름다운 명승일 뿐 아니라, 이미 잘 다스려진 이상적인 마을이다. 이는 시적 화자인 조성신을 비롯한 한양 조씨 일가의 관점에서 그려낸 영양 지역의 모습으로, 영양을 대표하는 성씨 집단으로서 자기 지역과 문중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개암정 주변 경관을 연적봉(硯滴峰), 비파담(琵琶潭) 등으로 명명하여 선비의 정기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묘사한 것과, 기심(機心)을 잊고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할 뿐인 구름과 새를 작품 속에 그린 것은 유학적 이상향의 가장 모범적 형태를 언어로 읊긴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이상적인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문 대대로 학덕과 효행을 실천해왔던

주실 조씨의 미풍에 있다. ‘효자효손 그 누가 아니며, 궁구궁당에 비친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에 합당하다.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이견하고 가문의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모임은 밤늦도록 이어진다. 화자는 모임의 구성원들을 18명의 신선으로 묘사하였다.

[5] 거룩할사 우리 일문(一門) 고년대질(高年大耋) 하고 할사
 개개히 백발(白髮)이오 면면히 황구(黃耇)로다
 향산구로(香山九老) 못 보거든 낙중기영(洛中耆英) 예 왔도다
 단청(丹青)을 그려니야 이 씨를 밝히코져
 석벽에 삭여니야 고사를 유전(遺傳)코져
 임출(壬戌) 추(秋) 명년이라 이날의 다시 노새
 소학사(蘇學士) 옛 풍류를 손을 옮겨 부쳐두고
 일배주(一盃酒) 가득 부어 만년축수(萬年祝壽) 다시 하니
 남산송백(南山松栢) 푸르렀다 축수(祝壽)를 마친 후에
 군선(群仙)의 손을 잡고 초선도(招仙島)로 가졌더니
 청청한 학(鶴)의 소리 세다르니 꿈이로다.

〈개암정중건기〉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때는 조일도의 아들 첨추옹 조거이의 나이가 무려 84세가 되던 해로, 문중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7-80대에 접어든 백발의 노인들이었다. 화자는 이들의 모임을 당나라 백거이를 비롯한 노인 아홉 명의 모임인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와 송나라 낙양 땅에서 부필(富弼), 사마광(司馬光) 등 13인의 노인들이 함께한 낙양기로회(洛陽耆老會)에 빗대었다. 보통 강호가사에서 신선 집단은 탈속의 경지를 표현하는 상산사호(商山四皓) 혹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이미지로 표상되지만, 본 작품에서는 고사 속 기로회로 나타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바, 오래 장수하면서 번창한 자손들의 효도를 받고자 하는 당대의 통속적 욕망이 투영된 것이며,⁵⁷⁾ 이를 통해 가문의 번성과 영속을 염원한 것이다. 이처럼 〈개암정가〉 속에는 종래 강호가사에 미적 대리인으로 종종 등장하였던 은자군상(群像)들이, 가문 원로들의 모임을 품위 있게 표현하기 위한 대표적 기로 모임의 형상으로 전환된 양상을 보인다. 세속과 단절되어 이념의 순수성을 지켜나갔던 종래의 처사적 지향을 아주 상실하고, 가문이라는 현실 집단의 결속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수사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개암정에서의 문중 모임은 다음과 같은 한시에도 잘 나타난다.

㉔ 칠석날 개암정에서 모이다 <七夕會皆巖亭>
 沽酒來村火 술을 사서 마을에 오니
 湖心落遠星 호수 가운데에 아득한 별이 떨어지네
 夜深沙渚白 밤 깊어도 백사장은 하얗고
 秋早石蘂靑 가을 일러도 마름은 푸르네
 牛女相逢夕 견우직녀가 만나는 칠석날
 江山快雨亭 강산 앞의 시원한 비 내리는 정자
 憑軒仍有夢 난간에 기대자 이내 잠이 들었는데
 孤鶴過前汀 한 마리 학이 정자 앞 물가를 지나가네

57) 박연호(2012), 앞의 논문, 378면.

寥落亭中夜	적막한 정자 속 밤
空明水底天	투명하고 밝은 수면 속 하늘
親朋皆白首	친한 벗들 모두 머리 센 노인이니
杯酒話青年	술잔 기울이며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네
歌細魚潛聽	간드러지는 노랫소리 물고기 몰래 듣고
燈明鶴不眠	밝은 등불에 학이 잠 못 이루네
雨聲沈月色	빗소리에 달빛 흐려지고
搖曳碧峰烟	푸른 산봉우리 안개 속에 일렁이네 ⁵⁸⁾

위의 한시와 작품의 결사에서 보이듯, 이들의 호젓한 풍류는 문중 구성원들 간의 취흥과 젊
은 날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진다. 결사 부분에서 이러한 문중 모임을 석벽에 새겨 유전(遺傳)
하고 싶다는 것은 후손들이 보고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처사로 사는 삶
이면에 놓인 불우함은 이 작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화자는 소식의 적벽 선유가 임술년
추칠월이었음을 상기하여, 내년인 임술년 이날에 다시 한 번 모이자는 약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양된 모임의 취흥은 고인의 자취가 담긴 초선도로 향하는 시선을 끝으로 꿈에서 깨며 마무
리된다. 결론적으로 〈개암정가〉는 세거지인 영양 지역에서 가학을 계승하여 평생 처사로 살
았던 조상의 삶을 이상화하고, 이로부터 가문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가문의 입지를 드높이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라 정리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강호가사의 표현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지만, 그 의미 지향은 가문 중심으로 변화된 역사,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진 것
이다.

4. 나가며

이처럼 조성신의 〈개암정가〉는 당대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어 그 유가적 이상세계의 모습
또한 변모한 양상을 보인다. 이전과는 달리 마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유교 공동체
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세계상을 〈개암정가〉는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강호가사들의 어휘나 표현은 공히 관습적이고 이념지향적인 모습을 보이
고 있지만, 시대에 조응하여 변모하는 양상 또한 나타낸다. 이는 그 지배 단위가 가문 및 촌
락으로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향촌 문인들이 여전히 유학자로서 자긍심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암정가〉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시기 창작되었던 이귀
서의 〈하명동가〉와 같은 작품의 경우, 생활에서 얻는 소소한 재미와 자족적인 정감을 표출
하기도 하여 조선 중기 신계영의 〈월선헌십육경가〉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자기 고백적
생활시의 면모 또한 계승하고 있다. 즉, 조선 후기 강호가사는 전대 강호가사의 구조 및 표현
을 대개 계승하는 한편, 유학자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단면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지향이 변화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58) 趙星臣, 「七夕會皆巖亭」, 『恬窩遺稿』.

<참고 문헌>

- 丁若鏞, 「跋擇里志」, 『茶山詩文集』 卷14.
- 趙述道, 「皆巖亭重建記」, 『晚谷先生文集』 10.
- 許薰, 「恬窩趙公行狀」, 『舫山先生文集』 22.
- 『디지털 영양군지』(<https://www.yyg.go.kr/yygunji>)
- 김인걸,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居鄉觀) 변화」,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보고서, 2004.
- 남재주, 『조선 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2019, 24~25면의 표 참조.
- 라이먼 타워 사전트, 『유토피아니즘』, 교유서가, 2018.
- 박연호, 「〈개암정가〉의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2.
- 박종천, 「조선 시대 예안 광산 김씨의 친족활동-계획과 성회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양 주실 마을』, 예문서원, 2001.
-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동영, 『歌辭文學論攷』, 형설출판사, 1977.
- 이민수, 『旬五志』, 乙酉文化社, 1971.
- 李鍾殷·尹錫山·鄭珉·鄭在書·朴永浩·金應煥, 「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 意識 研究」, 『동아시아문화연구』 2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소명출판, 2002.
- 임형택,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 陳正炎,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9.



「조선 후기 강호가사가 그리고 있는 유가적 이상세계와 희망 -趙聖臣의 〈皆巖亭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 승 우(이화여자대학교)

윤지아 선생님은 근간의 박사학위논문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을 통해서 강호가사의 사적 전개 양상을 각 시기 작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탐색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영남, 호남, 호서 각 지역의 특색이 강호가사 창작과 연계되는 지점들을 밝혀냄으로써 ‘지역 문학장’의 저변을 도출해 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역시 박사학위논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 전체의 내용에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의 구도나 작품 해석의 가능성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 오늘 발표의 핵심은 ‘유가적 이상세계와 희망’입니다. ‘구원과 희망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와 잘 부합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세계를 작품에 그려내는 이유와 의도에 대해서도 2장에서 논의해 주셔서 발표의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유가적’ 또는 ‘유교적’이라는 수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화사족이든 향촌사족이든 사족은 기본적으로 유가적 이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작품에도 어떤 식으로든 유자의 시각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암정가>에 유가적 이상이 담겨 있다는 선생님의 규정을 딱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유가적’이라는 말이 포괄하는 범주가 워낙 넓다 보니 이 말을 굳이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작품에서 영양 개암정 일대의 평온한 일상은 관습적 어구로 표현되었고, 개암정 주변의 산세는 풍수지리적 안목으로 개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까지도 ‘유가적’이라는 규정으로 포괄하는 것이 합당할지요? 이 말을 전면에 내세운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요? ‘가문 의식’이나 ‘가문의 자긍심’ 등과 같은 말이 보다 적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오늘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암정가>는 조선후기 강호가사의 변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강호가사’라 지칭하는 것은 역시 조선전기 작품의 구도나 주요 특징이 <개암정가>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님도 <개암정가>를 평하시면서 “조선 전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강호가사의 표현을 상당부분 계승하였지만, 그 의미 지향은 가문 중심으로 변화된 역사,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진 것이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암정가>가 지니고 있는 표현 방식은 전대의 어떤 작품과 연결될 수 있을지요? 달리 말하면, 어떤 작품들의 영향력 속에서 <개암정가>가 산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요? 발표문에서는 <면암정가>와 유사한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밖에 또 다른 연계성을 진단해 볼 수 있을지요? 예컨대 지역적으로 같은 영남권 인사인 박인로나 조우인 등과의 관련성도 궁금합니다.

3. 발표문 앞부분에서 언급하신 ‘지역 문학장’의 개념과 효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문학장’은 선생님의 박사학위논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발표문에서는 간략하게만 언급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실상 18세기 향촌사족의 가사 작품이 조선전기의 작품이나 동시기 경화사족의 작품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은 선행 논의에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축소된 배경, 가문과 지역에 대한 강조, 사족으로서의 자의식 등이 이들 작품의 주요한 특질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경화사족과 변별되는 향촌사족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학장’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향촌사족 내부의 지역적 변별성에 대해서도 유효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암정가>의 사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은 후의 단상을 위주로 토론문을 작성한지라 선생님의 의도를 혹시 잘못 짚어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 기사 속 ‘희망’의 개념적 은유

조 정 민(평택대학교)

차례

1. 서론
2. 은유와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
3.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적 은유
4. 결론

1. 서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난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멈춰 서게 되었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억제되고 앞으로는 좀 더 삶의 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나 예측도 현재 상황에서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한다.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면서 겪게 되는 우울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복이나 희망을 쉽게 꿈꾸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대유행의 끝이 보일 것이고 행복과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된다.⁵⁹⁾ 지금도 주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누렸던 일상의 행복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희망’이 결합한 형태의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1) 희망키움통장, 희망플랜센터, 새희망홀씨대출, 청년희망임대주택, 희망근로상품권, 신혼희망타운, 청년희망도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2) 희망 고문, 희망퇴직, 희망 사다리, 희망 캠페인

(1)은 최근 정부 또는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위의 예들에서 정책이나 상품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 ‘희망’이 선호되고 있음

59) ‘행복’과 관련된 언어표현은 신문 기사에서 출현 빈도가 높지 않았다. ‘올로죽, 올 테크, 소확행’ 등 행복과 관련된 신어들이 간혹 눈에 띄기는 하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행복’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규태(2009)는 한국인의 겸양하는 습성과 행복이라는 상태를 허무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사고 때문에 한국어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볼 수 있다. ‘명사+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2)의 예들은 신문 기사 검색 시 자주 눈에 띈다. 언뜻 보면 (2)의 ‘희망 고문’과 ‘희망퇴직’은 의미 관계를 고려하면 후행 요소인 ‘고문’과 ‘퇴직’이 선행 요소인 ‘희망’과 어울리지 않는다. ‘희망 고문’에서 ‘희망’은 ‘고문’이라는 부정적인 행위의 수단이고, ‘희망퇴직’에서 ‘희망’은 입 밖으로 꺼내기 망설여지는 ‘퇴직’을 불쾌함이 덜한 말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희망 사다리’와 ‘희망 캠페인’은 ‘희망’의 특징이 후행 요소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기술하는 다양한 언어표현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희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화 양상을 통해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을 고찰하기 위해 신문 기사에 사용된 ‘희망’ 표현을 검색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희망’을 입력한 후 140개의 용례를 추출하였다.⁶⁰⁾

‘희망’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램,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표준국어대사전)”이다. 언어 사용자의 바람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희망’은 실체가 없어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을 동원해 표현하는 은유가 있어 이해하기도 표현하기도 쉬워진다고 보고⁶¹⁾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적 은유를 근원영역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개념적 은유의 개념과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한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원영역에 따라 ‘희망’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각 유형의 개념적 은유가 ‘희망’의 어떤 요소를 부각시키며, 목표영역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 근원영역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논의해 본다.

2. 은유와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은유는 미적, 수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이를 다루는 것을 문학의 소관이라고 이해되어 왔으나 인지미론의 등장 이후 은유는 “일상 언어에 퍼져 있는 개념 구조로서 중요한 역할(권연진, 2018:294)”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Lakoff & Johnson(1980)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우리의 사회문화적, 신체적 경험은 개념적 은유의 토대가 되고 이 은유적 개념화 과정은 사고나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10)에 의하면 개념적 은유란 “하나의 개념영역을 또 다른 하나의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3p)”된다. 개념적 은유에 참여하는 두 영역은 은유적 표현을 끌어들이는 근원영역(source domain)과 그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다. 추상적이고 심리적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되는 영역인 근원영역은 일상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구조화된 것이다(이지용, 2021:76-7). 근원영역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은 목표영역을 이해하는 데

60) 빅카인즈(BIGKinds)에서 최근 3개월간(2021. 9. 21~2021. 12. 21) 기사에서 ‘희망’을 검색하였으며 7,787개의 기사문에 나타난 ‘희망’의 개념적 은유를 추출하였고 동사 ‘희망하다’를 포함하여 은유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예들은 분석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61) 나익주·백미현(2014:26)는 “추상적인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밝혀내는 데 개념적 은유 이론이 아주 유용하다”고 하였다.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원영역으로는 ‘인간의 신체, 식물, 건물과 건설, 게임과 스포츠, 요리와 음식, 열과 차가움’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근원영역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감정, 시간’ 등의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된다. 아래 예 (3)과 (4)에서는 ‘식물’이라는 근원영역이 각각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성을 지닌 ‘아름다움’과 ‘희망’과 사상(mapping)을 이루어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은 식물], [희망은 식물]이라는 은유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근원영역인 식물에 대한 일상적 지식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3) a budding beauty(싹트는 아름다움) (Kövecses, 2002)

(4) 정형용 반장은 “먼저 미나리 재배에 많은 도움을 준 하동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마음을 모아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작으나마 하동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싹틔우고 꿈을 이루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15일, 경남도민신문)

그렇다면 위의 예와 같이, 개념적 은유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많은 연구자들이 개념적 은유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예들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문화들에서 어떤 보편적인 동기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화’, ‘행복’ 등의 감정 은유 표현들이 영어의 감정 은유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한다(Türker, 2013).⁶²⁾ 그런데 일상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근원영역에 대한 지식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개념적 은유는 문화 간 변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개념적 은유의 문화적 특수성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연구주제이다. 다른 언어에서 특정 개념적 은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한 문화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Kövecses, 2002, 이정화 외 옮김, 2010:337).⁶³⁾

(5) 그들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산다. (표준국어대사전)

(6) 말을 놓다

예문 (5)는 한국어에서 [슬픔은 나누는 것(SADNESS IS SHARING)] 은유가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지룡·임수진(2017:49)에 의하면 [슬픔은 아래(SADNESS IS DOWN)]와 같은 은유가 보편적인데 반해 한국어에서 ‘슬픔’은 보편적 은유가 아닌 문화에 기반한 은유를 보여준다. 한편, 한국어에서 ‘말’이 예문 (6)에서와 같이 ‘물건을 놓다’의 ‘놓다’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어와 관련된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한다(임춘매, 2019:312).

62) [행복은 위(HAPPINESS IS UP)], [행복은 빛(HAPPINESS IS LIGHT)], [행복은 그릇 안의 액체(HAPPINESS IS A FLUID IN A CONTAINER)] 등은 보편적 은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63) 개인의 경험과 내력으로 인한 변이의 예로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10:346)에서는 1996년 미국 선거운동에서 사용된 ‘스포츠 은유’를 들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다. 여러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스포츠] 하는 근원영역으로 다양한 문제를 개념화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른 스포츠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화 양상도 지닌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한국인 모어 화자가 ‘희망’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문 기사문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적 은유 양상은 주로 함께 사용되는 동사의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이 넘치다’, ‘사랑을 쏟다’, ‘사랑에 빠지다’ 등의 표현에서 각각의 동사들의 기본적인 용법이 그릇 속의 액체에 대한 경험에 기초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임지룡, 2002:137).

지금까지 개념적 은유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면서 은유 표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신문 기사문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적 은유를 근원영역에 따라 유형화하고 분석함으로써⁶⁴⁾ 은유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인이 ‘희망’에 대해 사고하고 발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어에 나타나는 ‘희망’ 은유 표현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 체계와 문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희망’의 개념적 은유

3장에서는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희망’ 은유 표현을 통해 ‘희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체험적 상관성에 기반을 둔 은유들은 우리가 ‘희망’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희망’ 관련 은유 표현에서 추출된 근원영역의 목록을 정리하여 각각의 근원영역이 목표영역 개념이 되는 ‘희망’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

은유적 개념은 목표영역이 가진 다양한 속성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해당되는 은유에는 드러나지 않는 목표영역의 다른 측면은 은폐(hiding)하고 초점이 맞춰진 측면만 부각(highlighting)시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표현은 [시간은 돈]이라는 은유를 촉발하면서 시간이 지니고 있는 다른 측면의 가치를 은폐한다(제민경·구본관, 2014:9).⁶⁵⁾ 또 [논쟁은 전쟁]이라는 은유는 논쟁의 참여자 간의 협력은 은폐하는 대신, 논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적인 양상’, ‘아군과 적군’의 개념을 활성화시켜 보여준다. ‘희망’의 개념적 은유 구조에서 초점화되는 측면 또는 숨겨지는 측면은 무엇인지 분석하면, 은유를 사용하는 화자가 의도한 개념 이해의 방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 기사에 나타난 ‘희망’을 기술하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분석한 결과, ‘희망’을 개념화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원영역으로는 ‘식물’, ‘물건’, ‘그릇 속 액체’, ‘빛’ 등과 같이 일상적인 삶과 경험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64) ‘희망’을 비롯한 여러 추상적인 개념(목표영역)들은 여러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화자들은 여러 근원영역을 동원하게 된다.

65) 신선경(2006)은 화자의 의도 또는 발화 목적에 따라 은유가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은폐시키는데, 이를 통해 원 개념의 부분적 속성이 전체적인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청자도 화자의 시각으로 원 개념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은유가 설득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66)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이의 관점이나, 혹은 인용 발화 속에 등장하는 은유 표현의 경우 화자의 발화 목적에 따라 독자가 사태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frame)이 형성될 것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형성된 프레임이 독자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희망’ 은유가 신문 기사의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신문 기사 작성자가 사태를 판단하는 관점, 담화에서 은유 표현이 갖는 역할 등도 논의할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3.1. [희망은 식물]

‘희망’을 씨앗에서 발아하며 인간이 정성을 다해 가꾸면 물리적으로 커지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작아질 수도 있는 ‘식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이 있는 실체로 표현하는 것인데 [식물]은유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에서 선호되어 사용 빈도가 높은 근원영역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영역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희망’이라는 목표영역을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Kövecses, 2002, 이정화 외 옮김, 2010:171).

- (7) ㄱ. 폐암의 5년 생존율은 30%대다. 그런데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이상(말기)이라면 8.9%로 뚝 떨어진다. 다행히 최근 폐암 치료에도 서서히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11월 30일, 한국일보)
- ㄴ. 고통스러운 텐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그는 다시 집에서 싸 온 짐을 주섬주섬 챙겼다.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면 가장 먼저 가족들과 일상의 평화를 되찾고 새로운 삶의 희망도 싹틔우고 싶다” 고 말했다. (10월 20일, 동아일보)
- ㄷ.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3곳을 신축했다. 또 80여 명의 빈민가 청소년들을 후원하며, 이들이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월 15일, 세계일보)
- ㄹ. 충남 아산경찰서가 16일 불우 청소년들에게 1,7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12월 16일, 아시아투데이)
- ㄹ. 군 복무 기간 몸무게가 40kg 불어난 서재덕은 혹독한 감량 끝에 다시 코트에 설 수 있는 몸을 만들었고, 첫 경기에서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다. 한국전력은 서재덕의 복귀와 함께 봄배구 진출의 희망을 다시 키우고 있다. (10월 20일, 경향신문)
- ㅂ. 구미 해평취수원을 대구와 함께 쓰자'고 동의하는 구미 시민들이 늘어나, 두 지역 간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 해결 희망이 커지고 있다. (12월 21일, 매일신문)
- ㅅ. 할리우드는 언제나 꿈과 환상으로 가득찬 곳이었고, 그런 할리우드에서 꽃 피운 구찌의 쇼는 팬데믹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피어난 희망 같았다. (12월 18일, 조선일보)
- ㅇ. 이날 최군을 만나러 전주를 찾아간 이는 2006년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최군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린 당사자, 김훈영 부장검사였다. (12월 13일, 한국일보)
- ㅈ. 이번 조치는 위드 코로나와 연말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꺾은 것” 이라고 말했다. (12월 16일, 문화일보)
- ㅊ. 현재 2030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인 상태다. 올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르며 평균 12억 원대를 넘어섰다. (11월 3일, 동아일보)

(7ㄱ)의 암 치료 상황이나 (7ㄴ)의 극심한 생활고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엿보이는 경우, ‘희망의 싹이 움트다’와 ‘희망을 싹틔우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 희망이 생겨남을 표현한다.

‘희망의 싹’이나 ‘희망의 씨앗’ 등과 같은 표현은 ‘미래 상황의 잠재력’은 부각시키면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은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독자로 하여금 희망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은유라고 할 수 있겠다.

(7ㄷ)과 (7ㄹ)에서는 각각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희망을 심어준다’로 기술하였다. 식물의 싹이 트는 것을 관찰하는 (7ㄱ)과 (7ㄴ)의 경우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소 수동적인 반면, ‘희망을 심어주는’ 행위는 보다 능동적으로 사태의 변화를 꾀하려는 행위 주체의 의지를 보여준다.⁶⁷⁾ (7ㄹ)의 운동선수는 ‘정원사’로서 운동 경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선수 활동은 식물을 키우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행위 주체의 노력이나 훌륭한 외부 환경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희망이 커지다’나 ‘희망이 피어나다’ 등의 표현으로 사태를 기술한다. (7ㄴ)과 (7ㄷ)의 예에서는 식물의 성장 과정이 부각되어 개념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성껏 키우던 식물도 곳은 날씨가 인간의 손길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꺾여 버릴 수 있듯이, ‘희망’도 외부 요인에 따라 계속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예 (7ㄴ~7ㄷ)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정책, 경제 상황 등에 의해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없음을 ‘희망이 꺾이다’, ‘희망을 꺾어 버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함께 사용된 표현 ‘마지막 희망’과 ‘완전히’ 등은 수신자인 독자가 부정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3.2. [희망은 귀중한 물건]

‘희망’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은유 형태는 ‘물건’을 통한 이해 방식이다. 추상적인 ‘희망’을 실체가 있는 대상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없어졌을 경우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 (8) ㄱ. 사창훈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언제나 묵묵히 우리 곁에 있었던 광화문광장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곧 맞이하게 될 새로운 광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2일, 경향신문)
- ㄴ. 한 자활센터 관계자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청년들이 각종 지원이 끊기는 탈 수급에 일단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12월 12일, 중앙일보)
- ㄷ.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을 안고 기획된 대전 동구 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12월 14일, 금강일보)
- ㄹ. 다른 변이 출현 가능성을 언급한 불라 CEO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계절성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취급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남겨뒀다. (12월 8일, 세계일보)
- ㄹ. 그렇지만 탄탄한 세계 경제와 수출 호조세는 우리 증시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12월 5일, 한계레)
- ㄹ. 그러나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그런 희망은 거두는 편이 나올 듯하

67) 나익주·백미현(2014:27-8)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교육의 다양한 속성을 동물 사육 과정보다 식물 재배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 (12월 8일, 한국일보)

동일한 [물건] 은유를 선택하더라도 화자가 부각하고자 하는 근원영역의 속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실함을 사다’ 나 ‘의심을 사다’ 등과 같이 사람의 태도나 감정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명품 수업’ 과 같이 수업을 상거래의 상품으로 개념화하는 경우가 있다. 추상적인 활동을 구체적인 물건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희망’ 에 대한 은유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값을 매길 수 있어 사고 파는 물건’ 은 아니지만 [귀중한 물건]이다.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는 ‘안거나 품는 행위’ 로 ‘희망’ 을 조심스럽게 대한다(8ㄱ과 8ㄴ). 또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좋아질 가능성은 적지만 ‘희망’ 은 소중하게 ‘남겨둬’ 으로서 일상 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한다(8ㄷ). (8ㄹ)에서 화자는 희망을 모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 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런데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8ㄹ)과 같이 화자가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할 경우, 가지고 있던 ‘희망을 거둬’ 수도 있다.

- (9) ㄱ. 내년 대선이 불과 두 달 반 정도 남았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참담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지는 자영업 생태계,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 심화되는 양극화, 미·중 갈등에 우왕좌왕하는 우리 외교 등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12월 21일, 전북일보)
- ㄴ. 축제 줄취소...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10월 6일, 경기일보)
- ㄷ. ‘농민공’ 이었던 부모 세대를 이어 도시로 향한 이 청년들은 꿈과 희망 모두를 빼앗긴 채 폭스콘에서 말라갔다. (10월 22일, 한국일보)
- ㄹ. 26일 강원 고성군에 따르면 2018년 3월 죽왕면 산불, 2019년 4월과 2020년 5월 도성면 산불 등 3년 연속 발생한 대형 산불로 모두 1707ha의 산림이 사라졌다. 울창했던 산림은 화마(火魔)로 인해 검은 ‘숯 더미’ 로 변했지만,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10월 26일, 문화일보)
- ㄱ. 견고하다 믿었던 일상과 희망이 박살 났고, 다시 살아가게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장 마크 발레는 재생을 위해 필요한 혼돈과 슬픔, 고통의 순간을 처벌하지만 황홀하게 보여준다. (10월 30일, 한국일보)
- ㄴ. 문 대통령은 ‘성과 부정’ 에 대해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 이라며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12월 7일, 조선일보)
- ㄷ. 결과적으로 2~3차전서 불펜으로 변신한 국대 사이드암이 두산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은 썸이었다. 두산은 투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자들도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치르느라 경기를 거듭할수록 스윙이 무더지는 게 눈에 보인다. (11월 17일, 마이데일리)

“사건이나 행위 등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은유적 이해 방식(임혜원, 2020:983)” 이다. 위의 예문 (9ㄱ~ㄷ)에서 ‘희망’ 과 함께 사용된 동사들은 ‘잃다, 빼앗다, 빼앗기다’ 이다. 이 은유 표현에서 ‘희망’ 은 소유자가 잃어버리

거나 빼앗길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희망은 물건] 은유에서 이 예들은 [놓치기 쉬운 물건]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놓치기 쉬운 ‘희망’을 잃어버렸을 경우, 행위 주체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건]은유의 하위 은유로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자리잡고 있어 (90~8)에서처럼 ‘무너뜨리거나 짓밟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희망’의 강도가 세지 않아서 외부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희망은 물건] 은유에서 또 발견되는 다른 은유적 함의는 [귀중한 희망은 나누는 것]이다. 다음의 예 (10)에서 화자들은 ‘희망’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로 인식하고 있다.⁶⁸⁾ ‘나눠주다, 주다, 건네다, 전달하다, 전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희망’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을 물건으로 개념화되었다. 때로는 ‘큰 희망’이나 ‘작은 희망’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크기를 켈 수 있는 물건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⁶⁹⁾

- (10) ㄱ. 엄 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자는 취지로 휴먼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중점 사업이 네팔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이다. (12월 18일, 동아일보)
- ㄴ.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시대와 민심을 제대로 읽고 희망을 줄 수 있느냐이다. (12월 17일, 조선일보)
- ㄷ. 이번 집회에서는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의 미얀마 상황 보고에 이어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발언을 할 예정이다. (12월 17일, 한겨레)
- ㄹ.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04가 전해주는 황금도시락’ 캠페인에 참여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12월 9일, 문화일보)

3.3. [희망은 그릇 속 액체]

다음으로 논의할 ‘희망’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은유 형태는 ‘그릇 속 내용물’을 통한 이해 방식이다. ‘희망’을 경계가 있는 그릇 속에 들어 있는 액체로 보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을 담는 그릇], [감정은 그릇 속의 액체]는 보편적 개념화 방식이다.

- (11) ㄱ. 필리핀 선거는 사회구조 선거제도 정치문화의 산물이며 후보의 인기도와 당선에도 국민들의 요구와 명령,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 (12월 2일, 내일신문)
- ㄴ. 전쟁이 끝나자, 이중섭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 돈을 번 후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나리라는 부푼 희망으로 가득 찼다. (11월 20일, 조선일보)
- ㄷ. 이 청장은 “추진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새롭게 바뀐, 꿈과

68) 임지룡·임수진(2017:49)에서는 ‘행복’과 ‘슬픔’을 [나누는 것]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 기반한 은유라고 설명하였다. 그것이 “한국의 집단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감정을 [나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개념화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We are family: the Israelis sharing life and hope with Palestinians, 19 Dec 2021, *The Guardians*”의 예와 같이 영어권에서도 [희망은 나누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9) 이밖에도 [희망은 이동 가능한 물체]로 개념화되어 ‘희망을 쏘다, 희망이 사라지다, 희망이 솟아오르다’ 등처럼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희망이 넘치는 문화의 거리 구천면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12월 17일, 서울신문)

- ㄹ.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 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11월 11일, 서울신문)

예 (11)을 살펴보면, 희망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릇 속 액체는 가득 차거나 넘쳐 흐르는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희망의 정도가 그릇 속 액체의 양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개념화 방식에서 행위 주체는 액체에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릇 속 ‘액체’ 인 ‘희망’ 은 다른 추상적 개념과 섞여서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11ㄷ). 신문 기사에서 추출된 표현 중에는 ‘희망 섞인 전망’ 외에도 ‘희망 섞인 각오’, ‘희망 섞인 낙관’ 등이 있었다.

- (12)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퍼미션 투 댄스’ 는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담았고, ‘즐겁다’ ‘춤추다’ 와 ‘평화’ 를 뜻하는 수어(手語) 안무를 선보였다. (12월 9일, 서울신문)

그릇 도식 은유 기제가 작용하는 (11)의 예에서는 ‘희망’ 의 상태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위의 예 (12)에서는 ‘희망’ 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가 ‘답다’ 라는 동사 사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도 ‘희망의 내용’ 의 측면에 초점을 둔 ‘희망이 물거품이 되다’ 라는 은유 표현도 있었다.

3.4. [희망은 끈]

다음의 예에서는 ‘희망’ 을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끈을 붙잡았다가 놓치기도 하는 행위를 ‘희망’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활용하였다.⁷⁰⁾ ‘희망’ 이 있는 상황도 확실하게 희망을 소유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끈’ 을 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다. ‘희망의 끈을 놓다’ 의 경우 부정 보조 용언 ‘-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행위 주체의 간절한 희망을 강조하는 예가 많았다.

- (13) ㄱ. 가족들은 사고 닷새째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후 포읍 후포수협 2층 대기실에 머물며 관련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해경은 22일 실종자 가족들을 항공기로 태워 수색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10월 24일, 한국일보)

- ㄴ. 이어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을 발표했다”며 “연말을 앞두고 다시 일상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간신히 희망의 끈을 붙잡고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의 절망이 교차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7일, 이투데이)

- ㄷ. 첫판을 따내며 6년 만의 승격에 희망을 이어갔던 대전은 문턱에서 좌절했다.

70) 한국어에서 ‘끈’ 을 근원영역으로 삼는 감정의 개념화 방식은 여러 예에서 발견된다. ‘긴장’, ‘화’ 와 같은 감정은 물론이고 ‘연대의 끈, 생명의 끈, 인연의 끈’ 과 같이 [끈] 은유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12월 12일, 한국일보)

- ㄹ. 부상과 부진으로 시련을 겪은 베테랑 투수들이 모처럼의 완봉승으로 팀의 5강 싸움 희망을 이었다. 선두를 쫓던 팀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순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10월 15일, 경향신문)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시키려는 행위 주체의 노력은 ‘희망의 끈을 붙잡다’, ‘희망을 이어가다’, ‘희망을 잇다’ 등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희망의 끈]은 ‘실낱같다’ 라는 말로 수식을 받는 예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희망’의 강도가 강하지 않음을 함의한다. ‘실낱같다’는 것은 ‘목숨이나 희망 따위가 가는 실같이 미미하여 끊어지거나 사라질 듯하다(표준국어대사전)’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희망’의 강도에 초점을 둔 은유의 예에서 ‘희망’은 매우 약하여 행위의 주체가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14).

- (14) ㄱ.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가용 병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뽀족한 수가 없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월 17일, 한국일보)

- ㄴ. 카다시안은 “실낱같은 희망만 붙잡고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해내라. 이뤄내면 정말 기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4일, 서울신문)

3.5. [희망은 빛]

빛과 어둠 또한 인간의 기본적 경험이다. 흔히 빛은 긍정적으로, 어둠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희망’이라는 목표영역은 ‘빛’이라는 근원영역의 경험에 기초하여 개념화하게 된다. ‘빛’을 근원영역으로 삼는 개념적 은유의 예는 다음 예 (15)와 같다. 어둠을 뚫고 들어온 빛은 생명체를 살리고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적 인식은 ‘희망의 빛을 (엿)보다,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다, 희망의 빛이 되다’ 등과 같이 언어적으로 나타난다.

- (15) ㄱ. 성북구 관계자는 “종암동에 거주했던 이육사의 시와 시적 배경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감상과 휴식의 기회를 전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라며 “숲을 배경으로 시를 감상하고 힘든 기간을 이겨낸 희망의 빛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3일, 내일신문)

- ㄴ. 1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내전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드는 한편, 아직 ‘내전 종식’이라는 중착점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11월 10일, 한국일보)

- ㄷ. 그러던 차에 걸려온 대부업자의 전화는 A 씨에게 한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혹독한 조건이 붙었다. (11월 2일, 동아일보)

- ㄹ. 임세원법은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고 (11월 20일, 한겨레)

- ㅁ. 이낙연 전 대표는 실낱같지만 희망의 빛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야말로 “비운 뒤 햇살이 비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 이 전 대표 캠프의 자평이다. (9월 21일, 경향신문)

예 (15)에서 목표영역 ‘희망’의 부각된 요소는 ‘희망’의 가치와 생명력이다. 생명을 주는 밝은 ‘빛’처럼 ‘희망’은 내전의 상황이나 생활고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희망은 빛] 은유에서 화자는 ‘희망’의 정도를 빛의 양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줄기 희망’, ‘실낱같다’ 등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희망’을 개념화하는 근원영역으로는 ‘식물’, ‘물건’, ‘그릇 속 액체’, ‘끈’, ‘빛’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어인 모어 화자들은 ‘불(씨)’, ‘힘’ 등을 근원영역으로 ‘희망’을 개념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다른 관습적인 근원영역이 아닌 덜 관습적인 근원영역을 채택할 경우, 수신자인 독자에게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희망’을 기술하는 다양한 언어표현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추상적인 ‘희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희망’의 은유 표현의 용례를 검색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였으며 추출한 용례들을 통해 한국어인 모어 화자들이 ‘희망’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희망’을 개념화하는 방법은 주로 추상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희망’을 실체화하여 눈으로 볼 수 있고 소유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희망’의 상태, 그리고 ‘희망’을 위해 행위 주체가 하는 활동을 표현하기 위한 은유의 근원영역을 선택하였다. ‘희망’을 개념화하는 근원영역으로는 ‘식물’, ‘물건’, ‘그릇 속 액체’, ‘끈’, ‘빛’ 등이 있었으며 선택된 근원영역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희망’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문 기사에 나타난 140여 개의 예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근원영역이 전체 ‘희망’에 대한 은유 표현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희망’의 개념적 은유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화 과정에 활용된 근원영역을 유형화하고 한국어인 모어 화자들이 ‘희망’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 ‘희망’의 개념 양상이 언어권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연진(2018),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에 관한 연구, *코기토* 8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91-318쪽.
- 나익주·백미현(2014),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교육 은유, *담화와 인지*, 제21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5-53쪽.
- 신선경(2006),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은유: 은유의 생성과 수용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139-159쪽.
- 이규태(2009),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힘 1, *신원문화사*
- 이유미(2006), 한국어 은유의 근원영역 특징: ‘불’, ‘물’, ‘온도’ 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187-203쪽.
- 이지용(2021), 인지의미론의 ‘개념적 은유’ 에 관한 연구 현황 분석, *어문론집* 85, *중앙어문학회*, 73-102쪽.
- 임지룡(2002),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제17집, *한국어학회*, 135-162쪽.
- 임지룡·임수진(2017), Türker(2013)의 한국어 감정은유 연구의 의의와 문제점 분석, *현대문법연구* 93, *현대문법학회*, 43-65쪽.
- 임춘매(2019), 개념적 은유와 영상도식을 활용한 언어의 의미교육 지침 방안, *한국어교육* 제3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1-332쪽.
- 임혜원(2020), ‘위기’ 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한글* 제81권 4호, *한글학회*, 977-1006쪽.
- 제민경·구본관(2014), 경제 현상의 언어화를 통해 본 은유의 담화 구성력, *한국어 의미학* 43, 1-31쪽.
-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002.(『은유』, 이정화 외 옮김, 한국문화사, 2003.)
- Lakoff, George-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Türker, E. 2013. A Corpus-Based Approach to Emotion Metaphors in Korean: A Case Study of Anger, Happiness, and Sadness. *Review of Cognitive Linguistics* 11, 73-177.



「신문 기사 속 ‘희망’의 개념적 은유」에 대한 토론문

이 한 민(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희망’을 기술하는 다양한 언어표현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희망’이라는 추상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희망’의 목표영역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근원영역 개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본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라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각주 8번에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러한 자료의 성격이 연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더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혹시 해당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희망’의 은유화 양상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유적 개념은 목표영역이 가진 다양한 속성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해당되는 은유에는 드러나지 않는 목표영역의 다른 측면은 은폐(hiding)하고 초점이 맞춰진 측면만 부각(highlighting)시키는 특징이 있다.’(p.4)라는 기술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개념을 [식물], [물건], [그릇 속 액체], [끈], [빛] 등의 근원영역에 사상했을 경우에 각각의 영역에서 초점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주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2. 3.2절의 제목에서 ‘희망’은 ‘귀중한 물건’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의 본문에서는 동일한 근원영역을 수식어를 제외한 형태인 ‘물건’으로만 지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결합하는 서술어의 특성이 주로 ‘귀중한’, ‘소중한’ 대상을 대하는 자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중립적인 관점의 예문들도 더러 보입니다. 따라서 3.2절의 제목을 [희망은 물건]으로 하고 물건 중에서도 ‘소유하고 싶고’, ‘놓치기 싫은’ 귀중한 대상으로 표현하는 빈도가 높다는 지적을 하는 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은 귀중한 물건]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제가 발표자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은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양상’ 혹은 ‘개념화에 관여하는 의미 속성’ 중 하나의 방향에 집중해서 서술이 이루어진다면, 논점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소견이지만 논문을 완성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서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연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박 정 아(경희대학교)

차례

1. 서론
2. 에듀테크(Edu-Tech)
3. 한국어 학습자의 ICT 기기 사용 실태
4.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수업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인식
5. 에듀테크로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6. 결론

1. 서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례없던 온라인 수업으로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문제점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진행되어 여러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기도 한 개별화와 익명성은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대면 수업의 방식이나 학습 도구만으로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및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에듀테크 기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⁷¹⁾ 도구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실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어 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은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자는 물론이거니와 교사와 교육 기관 모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또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강소산, 2020; 손성희, 2021; 김형민·이선영, 2021 등), 피드백이나 과제 수행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또 수업 시간 내 학생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는 점(강소산, 2020; 손성희, 2021 등), 인터넷 환경, 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 수업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수업 진행의 어려움(조인욱, 2020;

71)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는데 ICT는 기존 IT의 개념에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정을 강조하는 'communication'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배대권 외, 2014).

강소산, 2020), 학습자와 교사 모두 수업에서의 집중력 유지의 어려움(손성희, 2021) 등이 최근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확실해져 가는 가운데 한국어 수업 역시 각 기관마다 정부의 단계적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 일부 제한적 대면 수업,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수업을 준비하는 시작점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수업용으로 준비하였던 수업용 자료를 복사하여 단순히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공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거나 학업의 성취도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즉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장치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2년여 년 간의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에서의 한계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의 구원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에듀테크(Edu-Tech)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펜데믹 선언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해 온 연구들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대면 수업의 특징상 집중력이 저하되고 참여성이 낮아질 수 있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의 ICT 기술을 결합한 학습 도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에듀테크는 그동안의 대면 수업에서 교수자 주도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습자 주도의 수업 전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에듀테크의 ICT 기술을 결합한 학습을 통해 경험 학습⁷²⁾과 액티브러닝(Active-learning)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ICT 도구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자나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디지털 협업 기술은 학생과 교수진, 그룹 내의 구성원 및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과 연결하여 학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따라 수업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IT 기기 및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비대면 수업에서의 적절한 IT 기기 이용 및 프로그램의 사용은 수업 내에서 아이디어 및 과제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공유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수업에서 수업 도구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대면-비대면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활동에 제약을 줄일 수 있다.

72) 경험 학습이란 학습에서 단순히 듣고 말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맥락에 직접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활동하거나 체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learn by doing)을 의미한다. 경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오감을 사용한 능동적인 참여, 활동, 의미 파악과 정리를 위한 사고 작용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에듀테크(Edu-Tech)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 분야에서 ICT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흐름을 지칭한다. 에듀테크는 쉽게 대용량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의 사용이나 빅데이터의 신기술을 콘텐츠나 솔루션으로 사용하거나 하드웨어 시스템 등 ICT 기술과 접목하여 기존과 다른 차원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듀테크는 기존의 이러닝(e-learning), 모바일러닝(mobile-learning)을 넘어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 학습을 이뤄내는 특성이 강한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능을 갖춘 AI 선생님,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대규모 공개 수업인 MOOC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채로우며 신기술을 접목하여 무한히 발전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세계적 교육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반영한 교육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³⁾

전 세계적인 동향이 그러하듯이 이미 펜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되어 버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에듀테크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아직은 에듀테크 적용 단계가 낮기는 하지만 펜데믹 이후 한 번이라도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이라면 가상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ZOOM이나 웹엑스 웨비나(Webex), 구글미트(Google meet), Skype 등의 화상 회의 플랫폼을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안에서 학습자의 출결이나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형태의 에듀테크 사용만으로는 원격 수업의 효용성을 높이는 어려울 것이다.

일방향이 아니고,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비대면 수업에서 에듀테크, 즉 기술과 교육의 융합의 산실인 에듀테크 기술을 적절히 교수학습 설계 안에 적용한다면 현재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나은 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어 학습자의 ICT 기기 사용 실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염두하고 있다면 학습자가 소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ICT 도구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ICT 기기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수자가 학습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등의 ICT 프로그램이 학습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⁴⁾

다음 내용은 연구자가 2019년 2학기~2021년 1학기까지 진행하였던 7개의 한국어 교양 수업⁷⁵⁾에서 10대~20대의 한국어 학습자⁷⁶⁾ 194명에게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 설문조사를

73)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에듀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며, 기존의 E-learning을 대체해나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에듀테크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에듀테크를 포함하여 실시한 ‘2017년 e-learning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E-learning 공급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4,876억 원 대비 2017년에는 3조 6,992억 원으로 집계되어 6.1% 증가하였고, E-learning 수요시장 규모도 2016년 3조 4,287억 원 대비 2017년에는 3조 6,300억 원으로 5.9% 증가하였으며, 2004년 실태조사 실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74)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업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문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였다.

75) 설문 참여자는 K 대학교 경영대학원, S 대학교, G 대학교, H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한국어 강

진행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설문 참여자의 국적은 과반수 이상(82.4%)이 중국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5% 또한 대부분 아시아권 학습자들이었다.

〈표 1〉 설문 참여자의 국적

국적	참여자 수(명)
중국	160
베트남	22
러시아	4
몽골	4
터키	2
홍콩	1
대만	1
총합	194

이어서 설문 대상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과반수의 이상(91.75%)이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학습 기간으로는 1년~2년 사이의 학습자가 92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표 2〉 설문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 및 한국어 학습 기간

성별	한국어 학습 경험	참여자 수(명)
남자	없다	2
	있다	23
여자	없다	14
	있다	155
총합		194

한국어 학습 기간	참여자 수(명)
학습 경험 없음	10
1년 미만	70
1년~3년 미만	95
3~5년 미만	12
5년 이상	7
총합	194

전체 설문 참여자 194명 중 TOPIK 3급-4급을 소지하고 있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가 131명으로 전체 67.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TOPIK 급수가 없는 학습자들은 12명에 불과하였다.

〈표 3〉 설문 참여자의 TOPIK 급수

TOPIK 급수	참여자 수(명)
없음	12
1~2급	31
3급	71
4급	60

의를 듣는 외국인 학습자들이며 매 학기 수업 시작 전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동의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76) 나이대는 10대가 17명, 20대가 177명이었고 성별로는 여자가 169명 남자는 25명이다.

5급	14
6급	6
총합	194

다음으로 학습자가 (대학의)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영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말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그 외의 한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 발음 등의 말하기와 관련한 영역 모두를 합치면 결국 말하기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⁷⁾

〈표 4〉 학습자가 한국어 수업에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은 영역

영역	응답자 수(명)
말하기	26
쓰기	21
읽기	21
한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	18
듣기	15
어휘·문법	14
발음	10
총합	125

이에 계속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대해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가 전체 51%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화웨이, 갤럭시, 샤오미 등 안드로이드⁷⁸⁾ 기반의 운영체제를 가진 모바일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requencies of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可重复选择))

Levels	Counts	% of Total	Cumulative %
아이폰(iphone) IOS 휴대전화	310	51.0 %	51.0 %
화웨이(huawei)	36	5.9 %	56.9 %
갤럭시(galaxy)	35	5.8 %	62.7 %
그 외 Android 휴대전화	26	4.3 %	66.9 %
MS Surface (window)	12	2.0 %	68.9 %
노트북(laptop)	83	13.7 %	82.6 %
macbook (IOS)	6	1.0 %	83.6 %
iPAD (IOS)	47	7.7 %	91.3 %
샤오미(xiaomi) 등 Android 중국 휴대전화	21	3.5 %	94.7 %
LG 등 Android 한국 휴대전화	20	3.3 %	98.0 %
샤오미 스마트폰	1	0.2 %	98.2 %
I MAC (IOS)	2	0.3 %	98.5 %
Galaxy Tab	3	0.5 %	99.0 %
Mi Pad 등의 Tablet computer (Android)	4	0.7 %	99.7 %
Galaxy Tab (Android)	1	0.2 %	99.8 %
OnePlus (Android)	1	0.2 %	100.0 %

〈그림 1〉 현재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77) 최선아·이화민(2011)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소프트웨어 연구는 대부분 발음 교육, 즉 음절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78)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한 구글에서 개발한 모바일, 태블릿 전용 운영체제이다. 현재 모바일 OS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방된 안드로이드마켓을 이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 시스템으로는 IOS⁷⁹⁾가 71.2%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처럼 어느 한 수업에서 과반수가 넘는 학습자들이 IOS 기반의 모바일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소수의 학습자가 있다면 IOS 기반에서만 작동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을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한 수업에서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을 계획하고 있다면 교수자는 IOS에서도 작동이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모두 작동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상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 ‘재미있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이 31.7%로 그 뒤를 이었다.

Frequencies of A

Levels	Counts	% of Total	Cumulative %
11. 스마트폰, 태블릿PC(PAD, Galaxy Tab 등)를 사용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선택 가능 可重复选择)	1	1.2 %	1.2 %
잘 모르겠다	15	18.3 %	19.5 %
재미있겠다	39	47.6 %	67.1 %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6	31.7 %	98.8 %
재미없겠다	1	1.2 %	100.0 %

〈그림 2〉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상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에듀테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재미와 흥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수업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현직에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수업에서 ICT 활용에 대한 인식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2월 15일 온라인 워크숍⁸⁰⁾ 후 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⁸¹⁾ 설문 대상자들은 당일에 워크숍에 참여한 현재 K대학교 어학당 및 학부에

79) 애플이 개발 및 제공하는 임베디드 운영체제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애플 TV 등에 탑재되어 있다. iOS는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로, 주로 모바일 기기와 애플 TV 등에 탑재된다. 대략 1년에 한 번 새로운 버전이 제공되며, 앱스토어에는 140만 개 이상의 iOS 앱과 73만 개 정도의 아이패드 전용 앱이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모바일 앱들은 총 1천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의 총 판매량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PC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네이버 지식백과] IOS (두산백과)

80) K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온,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도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14:00-16:30분까지 실시한 온라인 워크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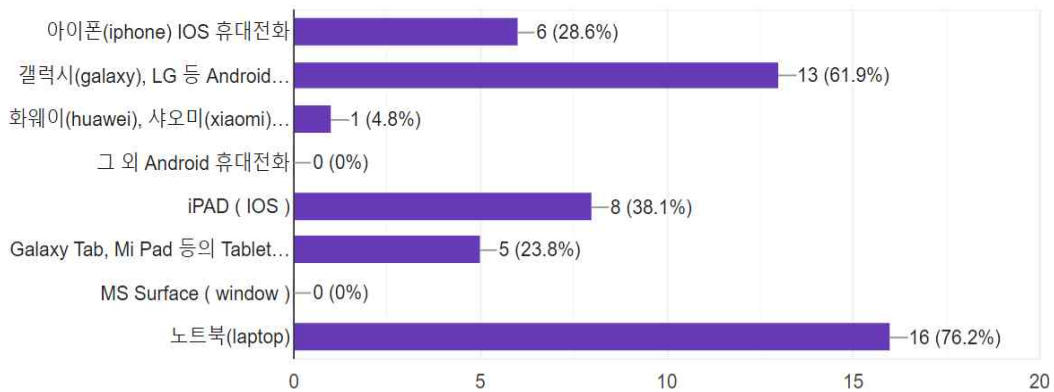
81) 본 설문 조사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집중하여 질문하였다. 연구자는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 모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ICT 도구가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이며, 이러한 기기에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가 애플리케이션이라 생각하였

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21명이다.⁸²⁾

성별	여성(21명, 100%)	한국어 교원 자격 급수	1급(14명, 66.7%) 2급(6명, 28.6%) 3급(1명, 4.8%)
연령	40대(11명, 52.4%) 30대(5명, 23.8%) 50대(4명, 19%) 60대(1명, 4.8%)	한국어 교육 경력	10년-20년 미만(15명, 71.4%) 5년-10년 이하(3명, 14.3%) 20년 이상(2명, 9.5%) 3년-5년 이하(1명, 4.8%)
학력	석사 졸업(14명, 66.7%) 박사 수료(4명, 19%) 박사 졸업(3명, 14.3%)	비대면 수업 경력	있음(21명, 100%)

〈표 5〉 설문에 참여한 한국어 교사 정보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교사는 모두 비대면 수업 경력이 있는 한국어 교사였으며 여성이었다. 연령대로는 40대(52.4%)가 가장 많았으며 30대(23.8%), 50대(19%)순이었다. 또한 학력은 석사 졸업 이상이 14명(6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박사 수료 및 박사 졸업자로 대부분이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14명, 66.7%)이 한국어 교원 자격 1급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어 교육 경력은 10년-20년 미만의 교원들이 가장 많아(15명, 71.4%) 매우 베테랑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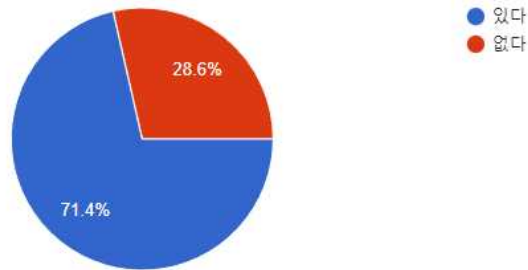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어 교사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ICT 기기

계속해서 한국어 교사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ICT 스마트 기기에 대해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Android 운영체제 기반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교사가 12명(5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IOS 운영체제 기반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6명(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가 전체 51%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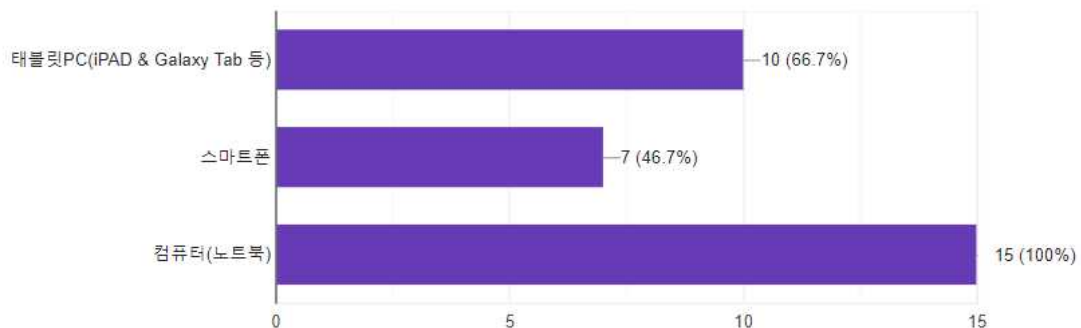
다.
82) 한국어 교사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는 학습자 집단에 비해 표본이 적는데, 이는 본 연구에 앞서 실험 문항이기 때문이다. 전체 학습자 수에 대비하여 수가 적지만 각 질문에 대략적인 비율만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의의를 삼기로 한다.

한편, ICT 도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3-5점 정도의 분포도가 높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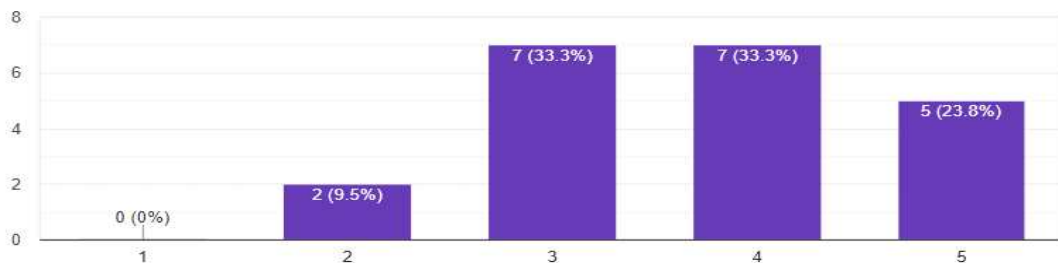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어 수업에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

또한 한국어 수업에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다수(71.4%)의 응답자들이 ICT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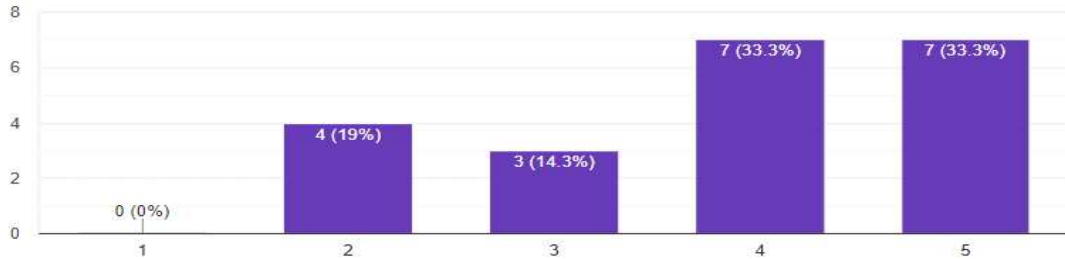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해 본 ICT 도구

그러나 한국어 수업에서 ICT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사용해 본 ICT 도구는 그리 다양하지는 않았는데 컴퓨터(노트북)가 100%로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태블릿 PC가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나 교수자 대부분이 개인 태블릿 PC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점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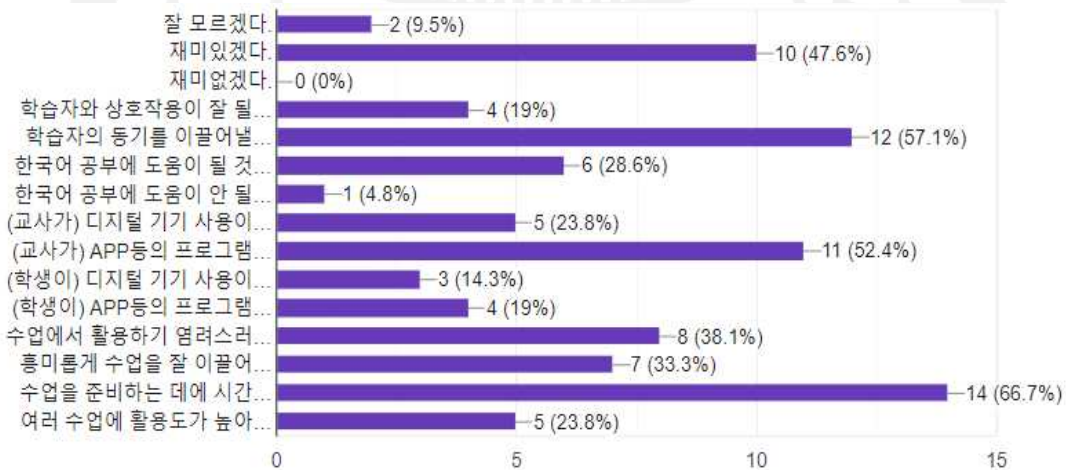
〈그림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교사 호감도

계속해서 앞으로 CT 도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그림 7〉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까?’에 대한 교사 응답

그 결과 교사 응답은 2~5까지의 분포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4~5점에 응답한 교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이유에서 주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계속 이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때 예상되는 점들에 대해 중복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고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 모두를 예상하여 적절한 비율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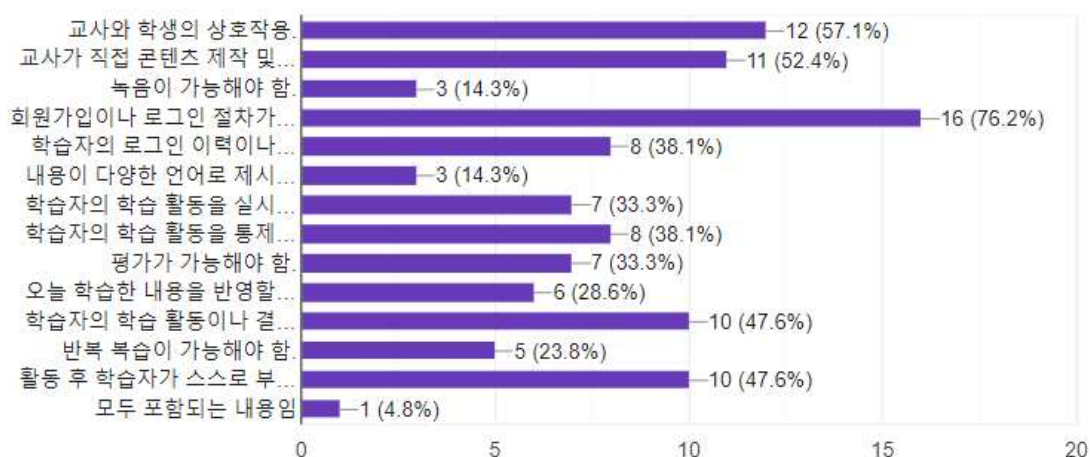


〈그림 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교사 응답

계속해서 ICT 도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상을 알아보기 위해 중복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 것 같다’ (66.7%)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하였다. 학습자들의 경우 ‘재미있겠다’ 라고 응답한 학습자들이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교사들의 경우 수업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선희·이예나(2020)에서도 이미 조사된 결과⁸³⁾와 같이 교사 경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업의 준비나 운영에 드는 교사의

83) 이 연구에서는 ZOOM을 사용하여 실시간 원격 화상 강의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20대~60대(평균 37.59세)의 경력 교사 60명에게 설문을 하였다.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57.1%)와 같이 학습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기도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교사가) App 등의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울 것 같다’ (52.4%)는 염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재미있겠다’ (47.6%)라고 예상하는 응답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음으로 교사들에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계획한다면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교사가 비대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회원이거나 로그인 절차가 간편해야 함’ 이 76.2%로 가장 높았다. 즉, 이는 수업 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이 57.1%, ‘교사가 직접 콘텐츠 제작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함’ 이 52.4%,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나 결과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함’ (47.6%), ‘활동 후 학습자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7.6%) 순으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에듀테크로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본격적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에듀테크의 실현 방안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 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미루어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온라인 학습 도구로써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때 염두해야 하는 점들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다. 먼저 1) 사용하고자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학습자의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모두 작동이 되어야 하며 2) 비대면 수업에서 사용할 때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3)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가 간편해야 하며 4) 학습자의 수준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사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수업 콘텐츠의 제작과 수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 학습자 활동 후의 결과나

학습 이력에 대한 기록이나 통계가 있으면 더욱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강소산, 2020; 손성희, 2021; 김형민·이선영, 2021 등)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또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소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서 교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통계가 가능하며,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5.1. ICT 활용 기반 한국어 어휘 수업

1) 퀴즐렛

퀴즐렛은 2005년에 앤드류 써더랜드(Andrew Sutherland)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오늘날 5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⁸⁴⁾ 퀴즐렛은 웹과 앱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콘텐츠 제작이 매우 간편하다. 특히 웹 - 앱에 학습자와 교수가 동시에 접속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퀴즐렛에서는 7개의 학습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웹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모드에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다.

〈표 6〉 퀴즐렛이 제공하는 학습 모드

	앱 사용	웹 전용	앱 - 웹 동시 호환
날말카드	○		○
학습하기	○		○
주관식	○(필기모드)		○
받아쓰기		○	
테스트	○		○
카드맞추기	○		○
그래비티		○	
liv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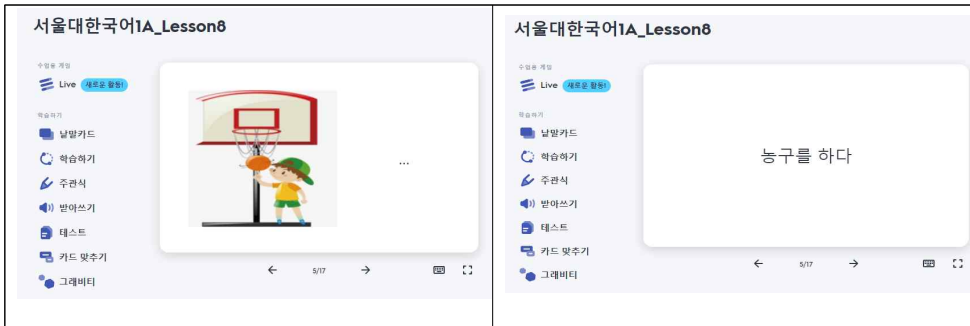
① 날말카드

교사가 단어를 입력해놓은 방식대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데 학습자는 앱이나 웹에서 날말카드를 클릭하여 카드의 앞, 뒷면을 확인해가며 단어를 공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 - 그림을 짝으로 입력해두었다면 학습자는 앞면의 단어를 보고 클릭한 후 단어 뒷면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어휘 - 의미를 짝으로 입력해 두었다면 카드의 앞면에는 어휘가 제시되고 어휘 카드를 클릭하면 뒷면에 있는 어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 음성으로도 단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한 번의 어휘 세트 완성 후 PC로 퀴즐렛 웹에 접속하여 날말카드 기능을 사용하여 수업 시간에 새 어휘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퀴즐렛 앱에 접속하여 그날 학습한 단어를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복습하면서 암기할 수

84) 퀴즐렛 활용한 어휘 학습의 효과성은 국외의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어휘 학습에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Dizon, 2016; Jackson III, 2015, Chien, 2015; 안한나(20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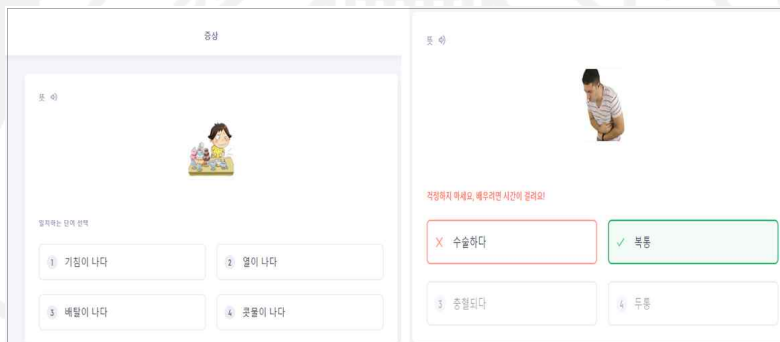
있다.



〈그림 10〉 퀴즐렛 낱말 카드 모드

② 학습하기

‘학습하기’ 모드에 접속하게 되면 해당 세트에 있는 단어들에 퀴즈로 제시된다. 학습자들은 단어의 의미를 맞추거나 단어의 그림을 보면서 퀴즈를 풀 듯 어휘를 공부할 수 있다.⁸⁵⁾ 교사는 학습하기 옵션에서 문제 유형⁸⁶⁾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1〉 퀴즐렛 학습하기

객관식 문제의 보기는 동일한 세트 내의 단어로 출제가 된다. 학습하기 모드를 시작하게 되면 연속으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의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한 번 틀린 단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마지막까지 내가 모든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③ 주관식

주관식 모드에서는 학습해야 하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써 보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에서도 정확하게 형태를 쓸 줄 알아야 하는 학습을 마쳤을 때 주관식 모드가 매우 유용하다고 할

85) 안한나(2018)에서는 퀴즐렛 어휘 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퀴즐렛의 학습 모드 중 응답자들의 57%가 ‘학습하기’ 기능이 가장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학습자들의 취향에 맞게 낱말카드, 받아쓰기, 테스트, 주관식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하기’ 기능에서 가장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는 모드는 ‘카드 맞추기’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56%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그래비티’, 마지막으로 ‘라이브 게임’ 학습이라고 응답하였음을 밝히었다.

86) 낱말카드를 표시할 것인지, 복수 정답 문제를 표시할 것인지, 주관식 문제를 표시할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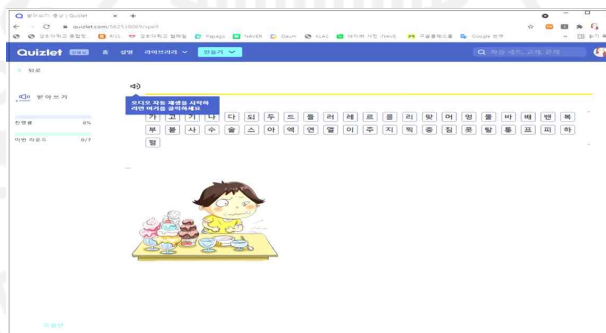
수 있다. 또한 앱으로 접속이 가능하므로 학습자가 한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교사가 주관식의 답으로 설정해둔 답과 모두 일치하여야만 정답으로 인식⁸⁷⁾이 되기 때문에 퀴즈 결과에 점수를 부여할 시에는 교사의 2차 점검이 필요하다.



〈그림 12〉 퀴즐렛 주관식

④ 받아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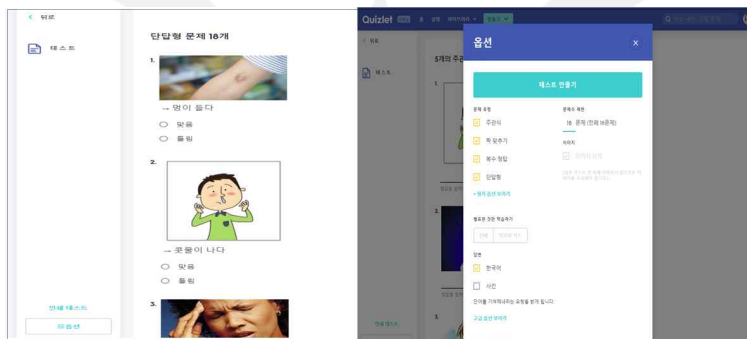
받아쓰기 모드에서는 단어를 듣고 그대로 적어서 답을 제출한다. 세트에서 교사가 음성을 지정해놓지 않아도 기계 음성으로 모두 변환한 어휘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단, 받아쓰기는 웹에서만 제공하는 학습 모드이다.



〈그림 13〉 퀴즐렛 받아쓰기

⑤ 테스트

테스트 모드에서는 위에서 학습한 내용을 주관식, 짝 맞추기, 복수 정답, 단답형과 같이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14〉 퀴즐렛 테스트

87) 띄어쓰기, 쉼표, 부호, 괄호 내용 등까지 모두 미리 설정해둔 답과 똑같이 써야만 답으로 인식한다.

다만, 교사가 테스트의 옵션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에게는 그 옵션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다시 테스트 옵션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이번 테스트를 모두 객관식으로 설정해 두어도 학습자가 접속하는 기기마다 다시 초기화가 되어 버려 학습자의 기기에서는 주관식, 객관식, 짝 맞추기 등등의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열리게 된다.

이어서 퀴즐렛에서는 이 테스트 면을 인쇄하여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지필 평가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⑥ 카드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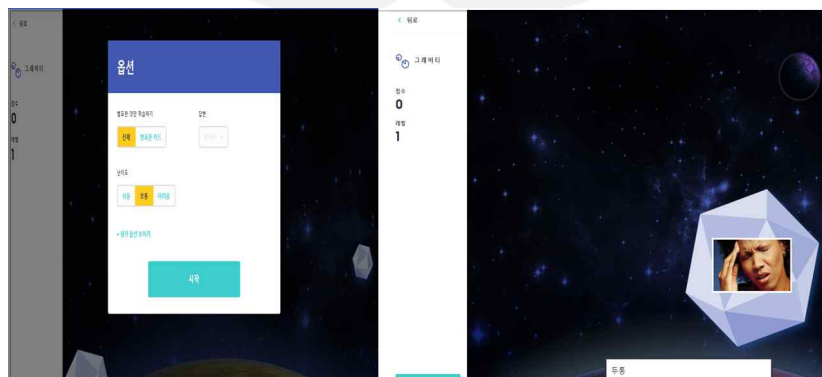
카드 맞추기는 세트 제작자가 입력해둔 방식 그대로 서로 짝을 맞추며 어휘를 학습하는 모드이다. 입력해둔 방식대로 어휘와 그림 짝 맞추기, 어휘와 의미 짝 맞추기 등 다양하게 짝맞추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카드 맞추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장 빨리 짝 맞추기를 끝낸 순으로 실시간으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들 간의 경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퀴즐렛 카드 맞추기

⑦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웹에서만 작동하는 학습 모드인데 우주를 배경으로 하여 학습한 단어나, 이미지가 운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학습자는 이 운석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단어를 주관식(타이핑)으로 작성해야 한다. 학습자는 그래비티 모드에서 중요 표시를 해 두었던 어휘 또는 교사가 제작해 놓은 셋트에서 전체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 정답의 수가 점수로 화면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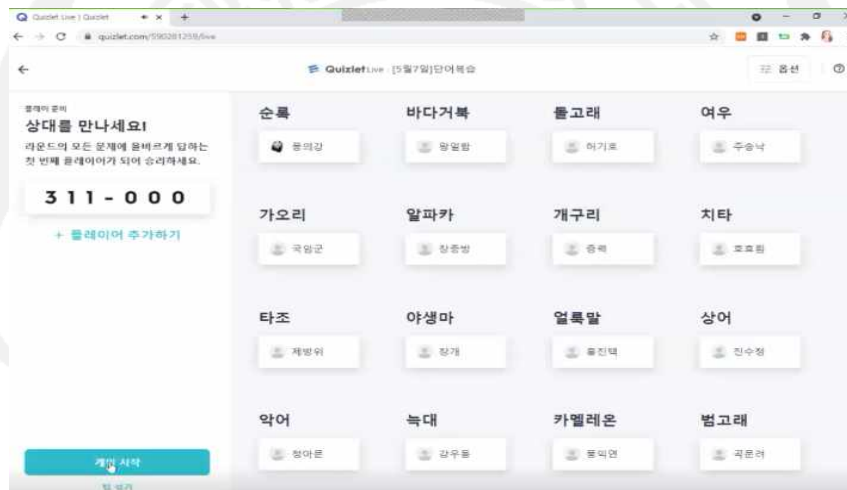
〈그림 16〉 퀴즐렛 그래비티

타나고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습자 스스로가 난이도(쉬움, 보통, 어려움)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⑧ 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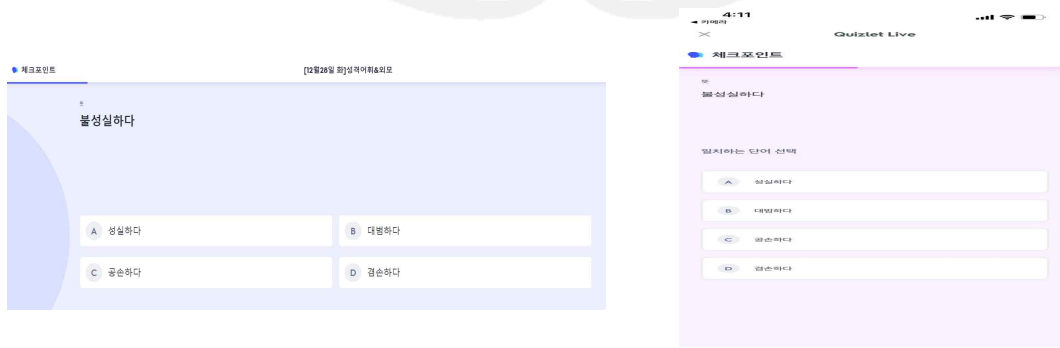
라이브는 팀을 이루어 다른 팀원들과 경쟁하는 단어 게임이다. 교사가 퀴즐렛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하는 방식을 개설한 후 참여자들에게 코드를 공유하면, 참여자들은 개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라이브의 대기실에서부터 게임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신나는 음악은 학습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코드를 부여받아 접속한 학습자들은 무작위로 팀을 이루게 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같은 팀이 된 사람들끼리 같은 문제를 공유받는다. 또 그 답은 그 팀의 구성원 중 단 한 명에게 있다. 따라서 팀원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스마트 기기만 들여다 보면 안 되고 같은 팀원들의 스마트 기기 모두를 함께 보면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만약 틀린 정답을 선택하게 되면 팀의 말이 다시 뒤로 간다. 최종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장 정확한 답을 골라낸 팀원들의 말이 도착점에 닿으면 게임이 동시에 종료된다.



〈그림 17〉 퀴즐렛 라이브

라이브는 본래 팀별로 경쟁하는 커뮤니티형 게임이었는데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개인전 모드로도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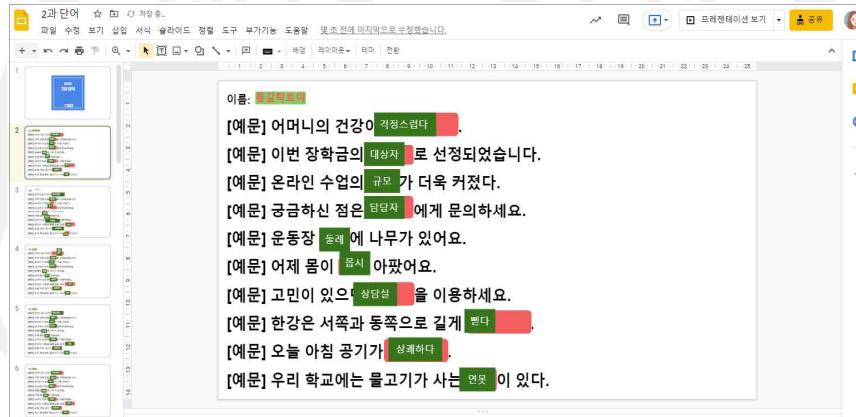
〈그림 18〉 퀴즐렛 라이브 체크포인트

최근에 퀴즐렛 라이브에 beta버전으로 ‘체크포인트’ 라는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이 또한 라이브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이 접속을 하면 어휘 퀴즈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함께 어휘 학습을 한 후에 빠르고 재미있게 단어의 이해 및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어휘 수업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은 MS의 파워포인트 기능과 유사하다. 하지만 파워포인트와 달리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은 사용자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 교사가 처음 제작한 구글 프레젠테이션 문서에 학습자들을 참여시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글 링크를 공유할 때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사람들 모두 ‘편집자’로 지정해야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

다음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H 대학에서 한국어 읽기쓰기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⁸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와 함께 어휘를 학습한 후 학습한 어휘를 문맥에 넣어보는 연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예시이다.



〈그림 19〉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어휘 수업 예시

① 학습자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새 어휘를 교사와 함께 학습한다. 이때 교사는 새 어휘를 제시할 때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며 어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

② 다음으로 교사는 PC에서 크롬을 통해 구글 프레젠테이션 웹에 접속한다. 계속해서 교사는 수업 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문서에 접속한다. 왼쪽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아 빈칸에 옮기는 시범을 보인다⁸⁹⁾. 이 모든 화면은 ZOOM의 화면 공유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보여 준다.

③ 이후 교사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링크를 공유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스마트 기기 또는 PC를 이용하여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공유 링크에 접속하도록 한다.

④ 이어 학습자 수만큼 생성된 슬라이드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점령하도록 한 후 이름을 쓰게 한다. 위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새 어휘를 연습해 보게 한다.

88) 이 학습자들은 2021년 2학기 H 대학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다.

89) 물론 직접 타이핑하여 써 보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교사가 미리 새 어휘를 오른쪽에 스티커처럼 작업해 두고 스티커 붙이듯 옮기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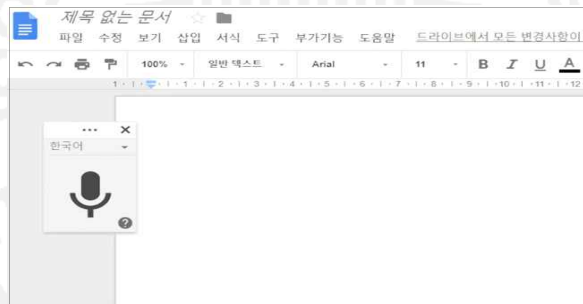
이때 학습자들은 교사가 공유한 구글 프레젠테이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는데 구글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익명으로 접속이 되므로 위의 수업의 예시와 같이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수업 진행을 통제하는 데 좋다.

5.2. ICT 활용 기반 한국어 말하기 수업

구글 독스(Google Docs)⁹⁰⁾는 온라인상에서 동기화를 통해 여러 장치에 동일한 문서로 작업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문서에 접속하여 동시에 작업을 하며 협업을 하거나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글 독스에 해당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웹이나 개별 앱으로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저장 장치나 백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정보 유실 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모든 서비스는 하나의 구글 계정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1) 구글 문서(Google Docs)를 이용한 발음 수업

구글 문서에서는 STT(Speech to Text)⁹¹⁾ 사용이 가능하다. 또 PC로 구글 문서 웹에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구글 문서의 링크를 공유하여 편집자 기능을 부여하면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앱이나 웹에서 구글 문서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⁹²⁾



〈그림 20〉 구글 문서 STT 기능

다음은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S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초급 학습자⁹³⁾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발음의 구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 예시이다.

90) 공식적으로 ‘구글 독스(Google docs)’는 구글 문서(Google docs), 구글 프레젠테이션(Google presentation), 구글 설문지(Google forms), 구글 스프레드 시트(Google spreadsheet) 등 앱이나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앱을 지칭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구글 문서(Google docs)와의 명칭에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구글 독스(Google docs)’는 전체 구글 오피스 앱을 지칭하기로 한다.

91)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이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STT(Speech-to-Text)라고도 한다. 키보드 대신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92) 이때 학습자들은 별다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로그인하지 않을 시 익명으로 접속이 된다.

93) 이 학습자들은 정부 초청 장학생들로 S 대학에서 한국어 초급1 수준을 공부하고 있었으며(2021년 9월)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특별 수업 시간에 발음만을 학습하는 수업 시간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① 학습자들은 발음 수업으로 진행된 특별 수업에서 한국어의 평음-격음-경음의 차이를 학습한다.

② 다음으로 교사는 교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구글 문서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의 TTS 기능을 사용하여 문장을 읽는 시범을 보인다. 이때 학습자들은 교사가 발화한 내용이 바로 글자로 타이핑되는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 확인한다.

③ 이후 교사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해 구글 문서의 링크를 공유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구글 문서의 공유 링크에 접속하도록 한다.

④ 이어 학습자들은 각자의 이름이 쓰여진 칸에서 문장을 발화하면서 자신이 소리를 정확하게 발화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한 발음이 타이핑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TTS의 인식 오류로 잘못 타이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문의 단순한 발화는 대부분 정확하게 타이핑이 되는 편이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발화가 얼마나 정확한지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 있고 반복적인 연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한 발음이나 발화의 피드백을 요하는 수업에서 교사가 일대 다수의 학습자들을 일일이 피드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하여 충분히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자신의 정확한 발화에 대해 확인과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10월22일 목요일</p> <p>① 감기에 걸렸어요. ② 좋은 꿈 꿔었어요? ③ 컴퓨터를 켜세요.</p> <p>● 선생님: 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었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자유리</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었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나그와</p> <p>감기에 걸렸어요 과말 중 가져 왔어요 무릎 주니까 너무 앉았어요</p>	<p>무자</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컴퓨터를 켜세요</p>	<p>티워</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었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프리스터파</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수지</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었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라이언</p> <p>감기에 걸렸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무나라</p> <p>감기에 걸렸어요 좋은 꿈 꿔어요 컴퓨터를 켜세요</p>	
	<p>마리아니</p> <p>감기가 걸렸어요</p>	

〈그림 21〉 구글 문서를 이용한 발음 수업의 예시

2) 보이스트레드(Voicethread)

보이스트레드⁹⁴⁾를 이용하면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수업 자료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과 실시간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교사는 보이스트레드에서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직접 내레이션을 녹음하여 첨부할 수 있고 슬라이드에 메모나 주석도 함께 남길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 슬라이드에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자가 학습이 가능하다. 또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학습자들 또한 교사가 제공하는 슬라이드에서 문서, 스냅샷, 다이어그램 및 비디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트레드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대쉬보드)에서 바로 타이핑, 녹음이 가능하며 또한 그림

94) 보이스트레드는 현재 일부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개의 슬라이드(대쉬보드) 개수를 초과하여 만들면 유료로 전환된다.

을 삽입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 후 과제 제시 및 과제 점검 과정이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보이스쓰레드를 이용하는 교사와 학습자들은 비디오 카메라, 녹음, 전화, 문자로 상호 댓글 교환이 가능하다.



<그림 22> 보이스쓰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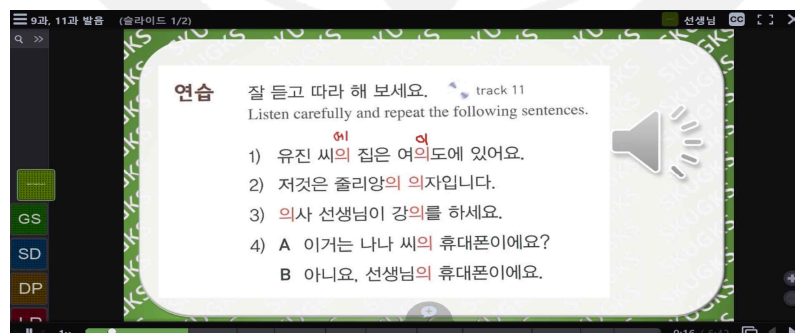
다음은 보이스쓰레드를 이용하여 S 대학에서 발음 특별 수업을 수강하는 초급 학습자⁹⁵⁾들을 대상으로 수업 후 활동 과제로 보이스쓰레드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부여한 예시이다. 학습자들은 수업 오리엔테이션날 보이스쓰레드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였고 G-mail로 회원가입을 해 둔 상태이다.

① 교사는 수업 전날 보이스쓰레드를 이용하여 미리 학습할 내용을 슬라이드로 제작해둔다. 슬라이드에는 배울 내용(교재 내용)에 교사가 주의해서 발음해야 하는 부분에 주석을 사용하여 체크를 하면서 교사의 목소리로 학생들이 따라야 해야 하는 문장을 녹음해 둔다.

② 학습자들은 발음 수업으로 진행된 특별 수업에서 ‘의’ 발음이 다르게 발화되는 상황을 학습한다.

③ 이후 교사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해 보이스쓰레드의 해당 슬라이드 링크를 공유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쓰레드 링크에 접속한다.

④ 이어 학습자들은 각 슬라이드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교사의 모범 발화를 들으며 복습한다. 해당 슬라이드에 바로 녹음을 하여 과제를 제출한다.



<그림 23> 보이스쓰레드 사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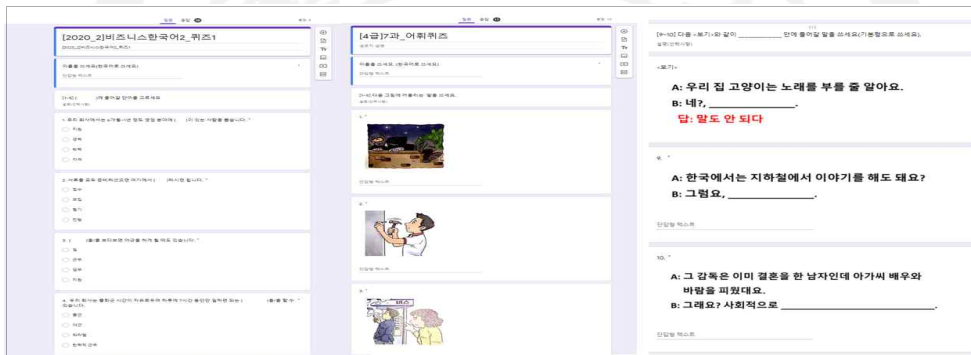
95) 이 학습자들은 정부 초청 장학생들로 S 대학에서 한국어 초급1 수준을 공부하고 있었으며(2021년 10월)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발음 특별 수업 시간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예시는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화면을 보면서 MP3 외에도 수업 시간에 들은 교사의 발화를 반복해서 다시 들을 수 있고 발화시 중요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원하는 만큼 반복하여 복습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은 해당 슬라이드에서 과제를 수행을 완료한 학습자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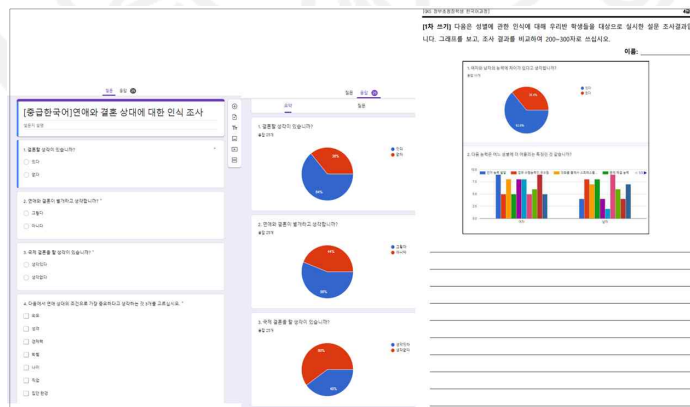
5.3. ICT 활용 기반 한국어 쓰기 수업

구글 설문지(Google Forms)는 온라인상에서 설문이나 평가, 의견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차트나 그래프로 자동 분석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구글 설문지는 작업이 간단한 편인데 다양한 샘플 템플릿을 제공하여 용도에 맞는 설문지 양식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⁹⁶⁾을 제공한다. 구글 설문지 또한 공유 링크 생성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는 구글 계정이 없어도 접근이나 참여가 가능하다.⁹⁷⁾

한국어 수업에서는 구글 설문지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퀴즈, 어휘 시험, 단원 평가는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24>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퀴즈 예시



<그림 25>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쓰기 수업 예시

96) 질문에 따라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지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선형배율,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날짜로 응답, 시간으로 응답 등의 기능을 지정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97) 만약, 학습자가 로그인을 하여 사용한다면,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학교 내부 도메인을 가진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단, 이때는 모든 학습자가 같은 내부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최근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구글 설문지는 주로 퀴즈나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교사가 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된 예시가 아닌 쓰기 수업에서 구글 설문지를 사용한 예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K 대학 경영대학원 한국어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⁹⁸⁾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실에서 쓰기 수업을 진행해 본 예시이다.

① 학습자들은 앞서 2시간 동안 단원 주제인 ‘연애와 결혼’에 대한 동영상과 보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나눈다. 또 교재에서 이와 관련한 글을 읽고 배경지식을 확장한다. 계속해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를 보고 서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학습한다.

② 교사의 주도 하에 반 학생들의 연애와 결혼 상대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③ 이후 교사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글 설문지의 링크를 공유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구글 설문지의 공유 링크에 접속하도록 한다.

④ 학습자들은 각각의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한다.

⑤ 이때 교사는 구글 설문지 웹으로 접속하여 반의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한다. 또 실시간으로 몇 명이 참여하였고,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⑥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교사는 스크린에 설문지 응답 페이지를 띄우고 학생들과 함께 결과를 확인한다.

⑦ 교사는 응답 결과 페이지를 계속 스크린으로 보여주거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공유한다. 학습자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하여 쓰기를 한다.

5.4. ICT 활용 기반 한국어 읽기 수업

소크라티브는 퀴즐렛에 비해 제공하는 학습 모드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매우 실시간으로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학습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이점이 있다. 소크라티브 역시 부분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료 서비스 이용 시 과목 단위, 학기 단위, 반 단위부터 시작하여 학습자의 개별 데이터도 분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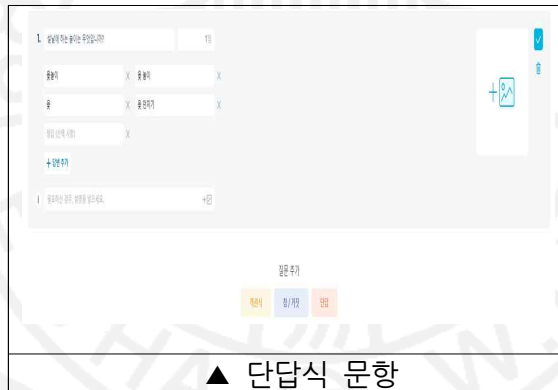
〈그림 26〉 소크라티브에서 제공하는 학습 모드

98) 이 학습자들은 2019년 2학기에 K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교양 수업으로 중급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다.

소크라티브에서 제공하는 퀴즈의 종류는 Multiple Choice(객관식), True/False(참/거짓), Short Answer(단답식)이 있다. 물론 객관식과 단답식, 참/거짓의 문항을 섞은 퀴즈 제작이 가능하다.



객관식 문항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삽입하여 퀴즈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러 중복 답안도 설정할 수 있다. True/False 문항의 경우 참인지 거짓인지 클릭을 하여 퀴즈를 푸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 밑에는 설명을 추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여기에 문제에 대한 힌트를 적을 수 있다. True/False 문항 역시 이미지 삽입이 가능하다



소크라티브에서 단답식 문항의 장점은 중복 답안을 여러 개 설정해둘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퀴즈를 볼 경우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띄어쓰기가 틀려서 오답처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모두 예비해두고 정답을 설정할 수 있어 유연한 채점이 가능하다.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를 바탕으로 퀴즈를 출제하려면 [Launch] 탭에 들어가 수업 전에 퀴즈를 출제할 수 있다. 출제하고 싶은 퀴즈를 클릭하면 Instant feedback(학생들 답 수정 불가), Open Navigation(학생들의 답 수정 가능), Teacher paced(교사용) 옵션을 선택하고, 익명 또는 기명으로 할 것인지, 퀴즈 질문과 답을 순서대로 혹은 무작위로 정렬할 것인지, 응답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 줄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퀴즈가 시작되면 학습자들이 퀴즈를 푸는 동안 교사는 [Result] 탭에서 실시간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퀴즈를 푸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선택한 답과 전반적인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수업에서 매우 유용하다.

[4월30일] 1(2)학기1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0:39

이름 표시 출장 표시 결근 표시

이름	합계%	1	2	3	4	5	6	7
.....	86%	✓ C	X O	✓ A	✓ B	✓ F	✓ G	✓ D
.....	71%	✓ C	✓ E	✓ A	✓ B	✓ F	X E	X E
.....	71%	✓ C	✓ E	✓ A	X E	X B	✓ G	✓ D
.....	100%	✓ C	✓ E	✓ A	✓ B	✓ F	✓ G	✓ D
.....	71%	✓ C	✓ E	X F	✓ B	✓ F	X D	✓ D
.....	57%	X G	X D	✓ A	✓ B	X C	✓ D	✓ D
.....	86%	✓ C	✓ E	✓ A	✓ B	X D	✓ G	✓ D
.....	0%							
.....	57%	X F	✓ E	✓ A	✓ B	X C	X D	✓ D
.....	86%	✓ C	X B	✓ A	✓ B	✓ F	✓ G	✓ D
.....	86%	X E	✓ E	✓ A	✓ B	✓ F	✓ G	✓ D
.....	71%	X E	X D	✓ A	✓ B	✓ F	✓ G	✓ D
.....	100%	✓ C	✓ E	✓ A	✓ B	✓ F	✓ G	✓ D
.....	100%	✓ C	✓ E	✓ A	✓ B	✓ F	✓ G	✓ D
.....	86%	✓ C	X O	✓ A	✓ B	✓ F	✓ G	✓ D
.....	86%	✓ C	✓ E	✓ A	✓ B	X D	✓ G	✓ D
.....	0%	X F	X B					
.....	86%	✓ C	✓ E	✓ A	✓ B	X D	✓ G	✓ D
.....	0%							
.....	86%	✓ C	X B	✓ A	✓ B	✓ F	✓ G	✓ D
.....	43%	✓ C	✓ E	X D	✓ B	X D	X D	X E
.....	71%	✓ C	X D	✓ A	✓ B	X B	✓ G	✓ D
.....	0%							
.....	100%	✓ C	✓ E	✓ A	✓ B	✓ F	✓ G	✓ D
.....	0%							
25. 구실 전체		86%	62%	86%	80%	57%	76%	86%

〈그림 27〉 소크라티브 Result 화면

6. 결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 현장은 급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어려움과 과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고수해 왔던 교수법과 학습 방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적응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자로 하여금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연구하게 하였으며 1:1 피드백,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수업 참여 등 대면 수업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측정하고 이해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을 연구하게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또 이를 위해 실제 ICT 도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의 활용은 교사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며 마주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흥미롭고 새로운 신기술들의 사용으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수업에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에듀테크 사용을 위한 기기 제공, 또 교사가 이러한 에듀테크를 교수·학습에 접목하여 사용하려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ICT나 에듀테크는 결코 먼 개념이 아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ICT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현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비대면 수업에서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와 현직에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소산(2021),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한국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4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19-153.
- 김형민 · 이선영 · 박영지(2020), 웹 기반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이중언어학 80, 이중언어학회, 105-136.
- 박선희 · 이예나(2020), 실시간 원격 수업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이중언어학 81, 이중언어학회, 59-99.
- 배대권 · 송문민(2014), 영어 어휘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ICT에 관한 고찰, 영미어문학연구 30(1), 영미어문학회, 45-76.
- 서향희 · 박주희(2021), 학교현장에서 에듀테크(Edu Tech)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 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학습자중심교육학회, 253-273.
- 손성희(2021),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의지 향상을 위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77-197.
- 안한나(2018), ‘퀴즐렛’ 어휘 학습의 효과성 검증: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14-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7-219.
- 조인욱(202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 한국어 교육 기관의 전면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41-265.
- 최선아 · 이화민(2011), 외국인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한국어 교육 애플리케이션,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2, 1480-1483.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인공지능 기반 개인 수준별 문제풀이 및 해설 서비스 개발 사업 제안요청서』.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서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연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 미 지(아주대학교)

위의 발표는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질을 이전의 대면 수업과 같게 하거나 또는 대면 수업보다 더 양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툴(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토론문에서는 발표를 들으며 느꼈던 몇 가지 의문점을 발표자에게 하고자 한다.

먼저 이 발표에서 소개한 툴(소프트웨어)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제2언어 수업으로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어떤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문제점 및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언어로서 한국어 수업은 단기간에 교육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나는데, 대면 수업이던 것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습자들의 성취도, 숙달도 향상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연구자께서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파악하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발표자께서 한국어 수업에서의 상호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언어 수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어의 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툴(소프트웨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학생:학생, 학생:교사 어떠한 상황에 더 소통에 적절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기능으로 말하기를 선택한 학습자가 많았는데, 발표에서는 주로 발음과 관련한 수업의 예를 보여주셨는데 이들 툴(소프트웨어) 가운데 진정한 말하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신지, 또는 말하기 교육을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이러한 툴(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거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교육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툴을 활용해 교육에 실제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으신지, 또 발표자의 개인 경험으로 이것은 확실히 교육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

2014. 04. 01. 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01. 09. 개정
2019. 01. 08. 개정
2021. 07.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 이라 칭한다)’ 이라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이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 윤리 규정의 시행)

본회의 모든 회원과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본회에서 개정된 ‘연구 윤리 규정’ 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투고자가 이를 준수하게 하여 양질의 논문을 출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07.08.)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저자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

하는 행위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표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다.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4) ‘중복 게재(이중 출판)’는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두고 혹은 유사한 논문을 동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학술발표회의에서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편집위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교육을 권장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7조 (저자 윤리) (신설, 2021.07.08.)

1. 저자는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나타난 투고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3. 저자는 본 학술지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편집위원 윤리) (신설, 2021.07.08.)

1. 편집위원은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윤리) (신설, 2021.07.08.)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서를 작성할 때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심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학술

지 출판 전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위원은 국어·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1인)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신설, 2018.01.09.)
6. 투고된 논문의 유사성 검사 결과가 10%이상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의 검토 후 인용문의 유사성이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1.09.)

제4장 연구윤리의 검증 및 조치

제12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2.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제보자 및 저자의 권리 보호) (신설, 2021.07.08.)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보자는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저자의 권리

1)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본 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저자는 연구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 (조사 결과 보고) (신설, 2021.07.08.)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1. 판정이란 윤리위원회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등)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게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1. 조사 결과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02.02.)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논문심사, 학술대회의 발표 및 토론 금지(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개정, 2021.07.08.)

3) 이화어문학회 홈페이지 및 이화어문논집을 통해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학회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2. 이화어문논집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2.)

제19조 (기타)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2.02.)

3.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02.02.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8.01.0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01.09.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01.08.부터 시행된다. **(2021.07.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07.08.부터 시행된다.**